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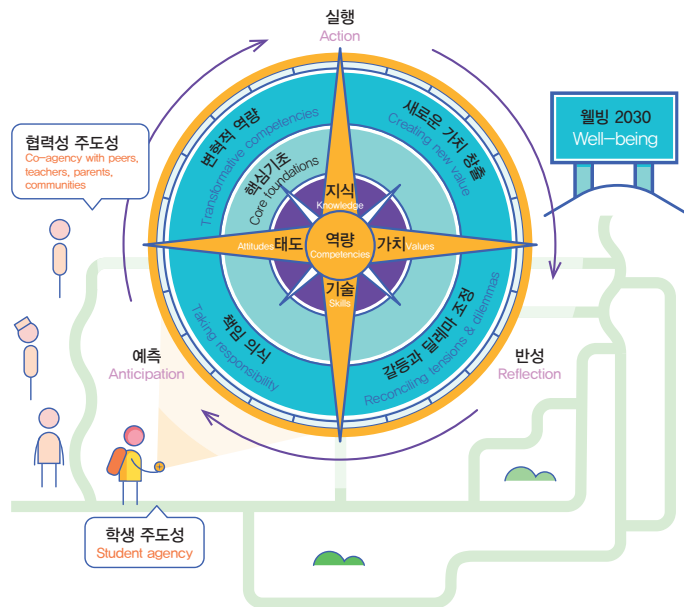
토의·토론으로 배움 깊이 더하기 자료집

고등 문학

토의·토론으로 배움 깊이 더하기 자료집 소개

1 들어가는 말

OECD Education 2030 학습 프레임워크에서는 학습자들이 웰빙(Well-being)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 주도성(Student agency)과 협력적 주도성(co-agency)을 발현하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공 지능 기술 발전,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생태 환경 변화 등에 따른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 가는 주도성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¹⁾



OECD Education 2030 학습 프레임워크⁽²⁾

여기서 말하는 주도성은 개인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관리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자기주도 학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습자 주도성'이란 세계와 연결된 자아를 인식하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탐색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자 주도성을 발현하는 수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타자와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의·토론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교과 내용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신의 삶과 연결된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며,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세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개인의 학업 성취를 넘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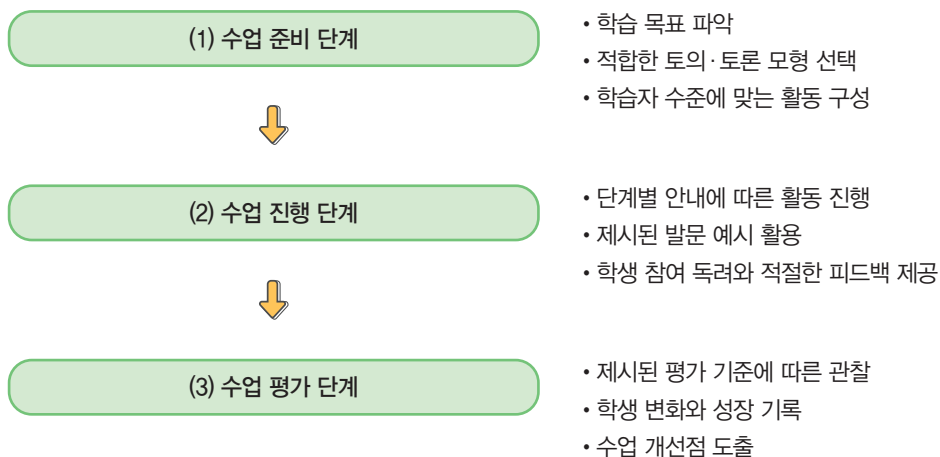
개발진은 2022 개정 지학사 문학 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교과서의 제재 및 학습 활동과 연계해 토의·토론 수업을 운영하여 학습자 주도성을 발현하는 수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본 자료집을 개발하였습니다.

2 토의·토론 수업이란 무엇인가요?

토의·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취 기준별 활동의 의미를 탐구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새로운 통찰에 도달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학술적으로 토의와 토론은 서로 다른 말하기·듣기 활동입니다. 토의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협력적 대화’ 방식입니다. 반면 토론은 하나의 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경쟁적 대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특정 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의와 토론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한 토론 결과를 가지고 토의로 이어갈 수도 있고, 토의 결과로 도출된 안건들을 토론으로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수업 방법을 지칭할 때, 두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토의·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토의·토론’을 ‘목적한 바의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³⁾’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개별 수업 용어를 지칭할 때는 ‘토의·토론’과 ‘토의’와 ‘토론’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하브루타 토론, 전시장 관람, 가치 수직선 토론, 포토 스탠딩 토론, CEDA 토론 등과 같은 다양한 토의·토론 모형을 제시합니다.

3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차례

포토 스탠딩 토론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6
소크라틱 세미나 × 「성난 풀잎」(이문구)	10
모듬 인터뷰 × 「다음에, 나머지 반도」(성석제)	17
전시장 관람 × 「길」(김소월)	26
이야기 엮기 × 엄마의 말뚝2」(박완서)	40
직소(Jigsaw) × 「속미인곡」(정철)	51
갤러리 워크 × 「천변 풍경」(박태원)	59
1:1 교차 인터뷰 × 「즐거운 편지」(황동규)	65
비경쟁 독서 토론 × 「엇박자 D」(김중혁)	77
월드 카페 토론 X 「홍보가」(작자 미상)	88
교차조사(CEDA) 토론 X 「찬기파랑가」(충담사)	99
비교 중심 하브루타 X 「참회록」(윤동주)	112
온라인 게시판 토론 X 「주몽 신화」(작자 미상)	120
비경쟁 토론 X 「이생규장전」(김시습)	132
토론 중심 하브루타 X 「태평천하」(채만식)	143
오픈 스페이스 토의 X 「통영 오광대」(장재봉 · 오정두 구술)	150
만다라트 토론 X 「원고지」(이근삼)	164
비경쟁 토론, 모듬 상호 평가 X 「주옹설」(권근)	174



포토 스탠딩 토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교과서 연계 단위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작품 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나희덕)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이와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포토 스탠딩 토론을 통해 성찰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깨지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이미지와 연결 지어 표현하며, 이를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시 텍스트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변화의 계기-변화 후'라는 구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미지를 선택할 때 자신의 경험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고 서로 건설적인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며,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대상에 대한 선입견이 깨진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2, 3과 연계한 내면화 활동(16~17쪽)
준비 자료	• 이미지 카드
토의·토론 방법	• 포토 스탠딩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복숭아나무와 관련된 참고 자료(사진, 그림, 동영상 등)를 보며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성화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반응을 존중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40분)	▶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파악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처음-변화의 계기-변화 후'로 구분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 전체 공유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정리한다. ▶ 모둠을 구성하여 대상을 새롭게 인식해 본 개인 경험을 떠올리고 관련 이미지를 선정한다. • 대상을 새롭게 인식해 본 경험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다. • 각 단계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선정 이유를 작성한다. ▶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원과 포토 스탠딩 토론을 진행한다. • 각자 준비한 이미지를 보여 주며 자신의 경험을 발표한다. • 발표를 경청하며 궁금한 점, 비슷하거나 다른 점, 인상적인 점을 기록한다. •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나눈다.	• 시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이 화자의 감정 변화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인의 경험 선정 시 진정성 있는 경험을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 이미지 선정 시 자신의 경험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포토 스탠딩 토론이란?

-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토론 방식이다.
- 시각적 자료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다양한 이미지 카드를 준비한다. •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② 이미지 선택 단계	•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이미지를 선택한다. • 선택 이유를 정리한다.
③ 공유 단계	• 선택한 이미지와 자신의 경험을 연결하여 발표한다. • 다른 학생들은 경청하고 질문한다.
④ 정리 단계	•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활동 도움말	• 포토 스탠딩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에는 잡지, 엽서, 이미지 카드 등 다양하다. 이 중 이미지 카드는 학교 예산으로 '이미지 프레임 카드', '솔라리움 카드', '생각 카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구입해 활용하면 된다. • 포토 스탠딩 토론을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한 뒤, 온라인 공유 보드(패들렛, 땀커벨, 퀴즈앤 보드 등)로 결과물을 공유하면 된다. • 학생 간의 활발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결과물을 공유한 뒤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유형을 안내해 주면 좋다. 학생들은 이미지를 활용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한 뒤, 궁금한 점,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 인상적인 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4 활동지

교과서 13~18쪽

포토 스탠딩 토론

화자의 인식 변화를 따라 이미지로 나의 경험 공유하기

1단원 (1) 문학의 가치

학년 반 이름: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에 따라 대상을 새롭게 인식해 본 경험을 친 구들과 나누어 보자.

1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자.

시간의 흐름	‘복숭아나무’에 대해 화자가 인식한 내용	
처음		
↓		
변화의 계기	발견	
	깨달음	
↓		
변화 후		

2 포토 스탠딩 토론을 통해 이 작품의 화자처럼 대상을 새롭게 인식해 본 나의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 포토 스탠딩 토론이란?

그림, 사진, 광고지 등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공유하는 토론 방식입니다. 시각적 자료를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을 새롭게 인식한 경험 예시

- ① 겉모습과 다른 친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경험
- ②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경험
- ③ 싫어하거나 어려워했던 것(과목, 활동 등)에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경험
- ④ 편견을 가졌던 대상(사람, 장소, 직업 등)을 새롭게 보게 된 경험 등

(1) 대상을 새롭게 인식해 본 경험을 떠올리고, 나의 경험에 맞는 이미지를 선정해 보자.

시간의 변화	대상에 대해 내가 인식한 내용	관련 이미지와 선정 이유
처음	• 어떤 대상인가요? •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하였나요? •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화의 계기	•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나요?	
변화 후	• 대상을 어떻게 보게 되었나요? • 나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앞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포토 스탠딩 토론을 해 보자.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대해 추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궁금한 점	학생 1	
	학생 2	
나와 비슷하거나 다른 점	학생 1	
	학생 2	
인상적인 점	학생 1	
	학생 2	

3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는가?	☆☆☆☆☆
2.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3.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성난 풀잎」(이문구)

교과서 연계 단위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작품 2 「성난 풀잎」(이문구)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풀잎이 오른 경험을 소재로 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한 수필을 감상하고, 소크라틱 세미나를 통해 글쓴이의 경험과 자연관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생각을 나누어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 모르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작은 모둠 세미나를 통해 중요한 질문을 선정한 뒤 질문에 관한 생각을 마련한다. 이후 교실 환경을 내부 원과 외부 원으로 만들고, 소크라틱 세미나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둘째, 작은 모둠 세미나에서 학생들이 ‘천지불인(天地不仁)’과 ‘자연스럽다’의 의미, 인간의 필요에 따른 가치 판단, 글쓴이가 경험한 ‘풀잎’의 의미와 깨달음 등 텍스트의 핵심 내용에 대해 서로의 질문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중요한 질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체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중받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되, 자신의 생각을 텍스트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 작품이 우리의 삶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함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가치 판단 등에 대해 사고하며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글쓴이의 자연관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며 문학의 윤리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1, 2(22쪽)
준비 자료	• 개별 질문 만들기 활동지, 토론 기록지 등
토의·토론 방법	• 소크라틱 세미나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수용하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40분)	▶ 「성난 풀잎」(이문구)을 읽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만든다.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잘 모르겠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등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 작은 모둠(3인 또는 4인 1모둠) 세미나를 진행한다. • 개인이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토론하며 핵심 질문을 선정한다. • 선정된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눈다.	•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 모둠원 모두가 참여하여 질문을 검토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질문이 텍스트의 핵심 내용('천지불인', '자연스럽다', 풀독의 의미 등)과 관련되도록 안내한다. • 토론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정리 (5분)	▶ 모둠별로 선정한 질문을 공유한다. ▶ 다음 차시 전체 세미나 준비 사항을 안내한다.	• 다른 모둠의 질문을 경청하며 다음 차시를 준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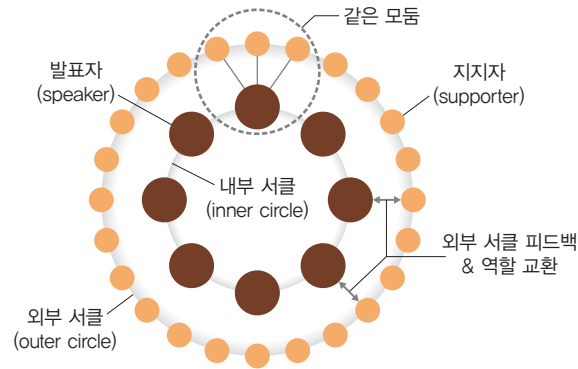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차시에 선정된 질문들을 확인한다. ▶ 소크라틱 세미나의 규칙을 상기한다.	• 세미나 진행 방식과 규칙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전개 (40분)	▶ 소크라틱 세미나를 진행한다. • 내부 원과 외부 원으로 교실을 재배치한다. • 모둠에서 선정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전체 세미나를 진행한다. • 내부 원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외부 원은 관찰하며 기록한다. • 자리 이동을 통해 모든 학생이 내부 원 토론에 참여한다.	•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발언 시 반드시 텍스트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한다. • 모든 학생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정리 (5분)	▶ 세미나를 통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 점을 정리한다. ▶ 인상 깊었던 질문과 그 이유를 작성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문학의 윤리적 기능과 연결 지어 학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소크라틱 세미나란?

-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를 가르치는 모습처럼 끊임없이 상대방과 질문을 주고받으며 앎을 추구하는 토론이다.
- 질문·공유·증명·반박 등의 과정을 거쳐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의미를 협력적으로 탐구하는 토론이다.



[소크라틱 세미나의 기본 요소 및 자리 배치]⁽⁵⁾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개별 질문 만들기 단계	• 텍스트를 꼼꼼히 읽고 중요한 것, 모호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생성한다.
② 작은 모둠 세미나 단계	• 3~4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모둠 안에서 각자의 질문을 공유하고 토의를 통해 핵심 질문을 선정한다. • 선정된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③ 전체 세미나 단계	• 교실을 내부 원과 외부 원으로 배치한다. • 모둠에서 먼저 발언할 학생 한 명이 내부 원에, 나머지 두 명이 외부 원에 앉도록 한다. – 내부 원의 학생만 세미나에서 발언할 수 있다. – 외부 원에 앉은 학생은 메모하며 내부 원의 토론을 경청하고, 내부 원으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 – 외부 원에 있는 학생들이 발언하고 싶어진다면 내부 원에 있는 학생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자리를 바꿔 앉는다.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내부 원의 학생을 돕고 싶을 때는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어 내부 원의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선정한 핵심 질문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대화를 진행한다. • 자리 이동을 통하여 전원 참여를 독려한다.
④ 정리 단계	• 나에게 의미 있었던 질문 또는 가장 활발하게 쟁점이 형성된 질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공유하며 세미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활동 도움말	• 질문 만들기 단계에서는 답이 명확한 사실 확인형 질문보다는 해석과 토론이 가능한 개방형 질문을 만들도록 안내한다. • 작은 모둠 세미나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한다. • 전체 세미나에서는 텍스트에 근거한 발언, 상대방 의견 경청, 대화 흐름 이어가기 등 세미나의 기본 규칙을 지키도록 한다. • 교사는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와 표현을 격려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4 활동지

교과서 19~24쪽

소크라틱 세미나

소크라틱 세미나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성찰하기

1단원 (1) 문학의 가치

학년 반 이름:

- 「성난 풀잎」을 읽고, 작품의 내용에 대해 중요한 것, 모호한 것,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자.

순	질문
1	
2	
3	
4	
5	
6	
7	
8	
9	
10	

도움말 질문의 유형⁽⁶⁾

유형	사실 질문	심화 질문	적용 질문	종합 질문
개념	‘낱말의 뜻,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되는 질문, 내용 확인 및 공유와 관련된 질문	내용에 대한 이해, 맥락에 대한 이해, 특별한 문장이나 표현의 의미 이해와 관련된 질문, 문제점을 찾는 질문	나 또는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온 질문	작품을 통해 깨달은 교훈, 작품의 주제나 글쓴이의 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나 좀 더 알고 싶은 점, 아쉬운 점 등을 묻는 질문
질문 틀	• ~은/는 누가 했는가? • 언제인가? • 어디에서 있었나? • 무슨 일이 있었나? • ~의 뜻은 무엇인가? • ~와/과 ~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	• ~의 잘못은 무엇인가? • ~이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에 대해 동의하는가? • ○○은 왜 ~라고 생각했을까? 등	• 만약 ~라면? • ~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나에게(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한 일이 있을까? • ~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했을까? 등	• 작품의 교훈은 무엇인가? •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등

- 모둠원들과 각자가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학급 전체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핵심 질문 3가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보자.

1 다음 방법에 따라 모둠의 핵심 질문을 선정해 보자.

핵심 질문 선정 방법
①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이 만든 질문을 모둠원에게 소개한다.
② 활동지를 돌려가며, 다른 친구가 만든 질문들 중 핵심 질문이 될 만한 질문에 투표한다.
③ 활동지를 한 바퀴 다 돌리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질문들을 선별한다.
④ 기존 질문을 수정·보완하거나 유사한 질문을 합치는 등 최종 토의를 거쳐 핵심 질문 3가지를 선정한다.

2 우리 모둠의 핵심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둠원들과 공유해 보자.

핵심 질문 1		
나의 의견과 근거		
모둠원의 의견과 근거		
핵심 질문 2		
나의 의견과 근거		
모둠원의 의견과 근거		
핵심 질문 3		
나의 의견과 근거		
모둠원의 의견과 근거		

○ 소크라틱 세미나를 통해 글쓴이의 자연관을 탐구하고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다음 자료를 읽고, 소크라틱 세미나의 절차와 규칙을 이해해 보자.

[소크라틱 세미나의 개념]

소크라틱 세미나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대신,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었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현대의 교실에서 실천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함께 읽고,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텍스트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소크라틱 세미나의 절차]

소크라틱 세미나는 자료를 읽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만드는 '개별 질문 만들기', 3~4명이 한 모둠이 되어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작은 모둠 세미나', 학급의 전체 학생들이 내부 원과 외부 원을 만들어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나누는 '전체 세미나', 토론의 전체 과정을 성찰하며 배움을 정리하는 '정리하기'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전체 세미나 참여 방법]

- 교실을 내부 원과 외부 원으로 배치합니다.
- 모둠에서 먼저 발언을 할 학생 한 명이 내부 원에, 나머지 두 명이 외부 원에 앉습니다.

1. 내부 원 참여자

- 모둠 당 한 명씩 내부 원에 앉아 토론에 참여합니다.
- 발언할 때는 반드시 텍스트의 특정 부분을 지목하여 근거로 제시합니다.
-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 동의/반박할 때도 텍스트를 근거로 합니다.
- 앞선 발언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대화를 이어갑니다.
- 발언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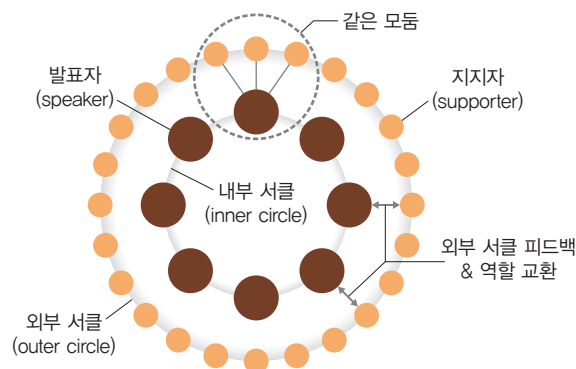
2. 외부 원 참여자

- 내부 원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중요한 내용을 메모합니다.
- 발언하고 싶을 때는 내부 원에 있는 모둠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터치합니다.
- 자리를 바꾸기 전에 할 발언을 미리 정리합니다.
- 직접 발언하기 어려울 때는 포스트잇에 의견을 적어 전달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원 친구의 발언을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포스트잇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틱 세미나의 규칙]

-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지 않습니다.
- 자리를 교체할 때는 토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합니다.

[소크라틱 세미나의 자리 배치 예시]



2 소크라틱 세미나의 절차와 규칙에 따라 「성난 풀잎」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자.

메모하기		
다른 모둠의 질문과 나의 생각		
논의 내용	인상적인 내용	
	새롭게 알게 된 내용	
	궁금한 내용	

● 배움 일기를 작성하며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자.

배움 확인 질문	
1. 글쓴이가 풀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2. 글쓴이가 제목을 '성난 풀잎'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소크라틱 세미나에서 다룬 질문 중 나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질문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4. 문학은 우리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였는가?	☆☆☆☆☆
2.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성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였는가?	☆☆☆☆☆
3.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4.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는가?	☆☆☆☆☆
5. 문학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가?	☆☆☆☆☆

「다음에, 나머지 반도」(성석제)



교과서 연계 단위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1) 문학의 가치

작품 3 「다음에, 나머지 반도」(성석제)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성석제의 콩트 「다음에, 나머지 반도」를 읽고 모둠 인터뷰 활동을 통해 문학의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김 주사, 이동수, 40대 후반의 사내, 그리고 작가의 역할을 맡아 가상 인터뷰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4명으로 구성된 모둠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어 대화를 나눈다. 질문자 역할의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들의 처지와 심리, 그들이 보여 주는 인간적 면모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자 역할의 학생은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하면서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다. 특히 작가 역할을 맡은 학생은 작품의 창작 의도와 문학적 장치의 활용에 대해 답변하면서 문학의 정서적·미적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과 등장인물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이해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인터뷰 질문이 단순한 내용 확인에 그치지 않고 인물의 심리와 행동의 동기, 시대적 상황과의 관계 등을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진지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시대 변화 속 소외된 인물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문학이 지닌 해학과 공감의 미학을 체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에 담긴 해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문학의 정서적·미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교과서 학습 활동 1, 2(30쪽)
준비 자료	개별 질문 만들기 활동지, 역할 표시 명찰(김 주사, 이동수, 40대 사내, 작가) 등
토의·토론 방법	모둠 인터뷰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1970~80년대 오일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보며 도시화 이전 시대의 모습을 이해하고,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 시청각 자료를 통해 작품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 과거와 현재의 비교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전개 (40분)	▶ 「다음에, 나머지 반도」를 읽고 내용을 파악한다. - 줄거리, 배경, 인물의 상황과 성격, 주제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한다. ▶ 모둠을 구성하고 역할을 배정한다.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각 모둠원에게 역할(김 주사, 이동수, 40대 사내, 작가)을 배정한다. ▶ 인터뷰 질문과 답변을 준비한다. - 답변자(말은 역할)의 관점에서 작품의 구체적 장면을 근거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작성한다. - 질문자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작성한다.	- 작품을 읽을 때 인물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과 해학적 장면을 찾아가며 읽도록 안내한다. - 학생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 배정을 조언한다. - 모든 역할이 동등하게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 인물의 관점에서 역할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한다. - 질문 작성 시 단순 사실의 확인이 아닌 인물의 심리와 행동 동기를 탐구하는 질문을 구성하도록 지도한다. - 답변 준비 시 작품의 구체적인 장면을 근거로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 다음 차시 모둠 인터뷰 활동의 규칙과 진행 방식을 안내한다.	▶ 다음 차시 활동을 위한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한다. ▶ 모둠 인터뷰 활동에서 질문자와 답변자의 역할, 인터뷰 진행 순서를 안내한다.	- 지난 차시에서 준비한 질문과 답변을 점검하며 활동의 목표를 상기시킨다. - 모둠 인터뷰 활동의 규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전개 (40분)	▶ 모둠 인터뷰 활동을 진행한다. - 답변자는 인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한다. - 나머지 모둠원들은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제시한다. -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심화한다. - 역할을 바꾸어 가며 인터뷰를 이어간다. ▶ 모둠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의 삶과 작품에 드러난 정서적·미적 가치를 정리한다.	- 답변자가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게 응답하도록 안내한다. - 질문이 작품의 핵심 주제인 도시화와 소외, 해학적 특성과 연결되도록 유도한다. - 모든 학생이 질문자와 답변자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작품의 정서적·미적 가치를 학생들의 삶과 연결 지어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모둠 인터뷰란?

- 모둠 인터뷰는 모둠원들이 특정 인물의 역할을 맡아 질문자와 답변자가 되어 대화를 나누는 토의·토론 방식이다.
- 질문자는 준비한 질문을 통해 인물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시도하고, 답변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하며 작품의 의미를 탐구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작품을 읽고,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이해한다. • 모둠을 구성하여 작품의 주요 인물이나 작가를 중심으로 역할을 배정한다. • 답변자는 맡은 인물의 상황과 성격을 고려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한다. • 질문자는 각 인물에게 던질 의미 있는 질문을 준비한다.
② 실행 단계	• 한 명이 답변자가 되고 나머지 모둠원들이 질문자가 된다. • 질문자들은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한다. • 답변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작품의 근거를 들어 답변한다. •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꾸어 다음 인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③ 정리 단계	• 모둠별 인터뷰 내용을 공유하고,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다.
활동 도움말	• 학생들이 작품의 내용과 인물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한다. • 질문이 단순 내용 확인을 넘어 인물의 심리와 행동 동기를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모든 학생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 질문자는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답변을 충분히 듣고 인상적인 내용을 메모하도록 안내한다. • 답변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과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진정성 있게 답변하도록 안내한다. • 준비한 질문만 하고 인터뷰를 마치기보다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심화하고 작품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도록 안내한다.

4 활동지

교과서 25~32쪽

모둠 인터뷰

모둠 인터뷰로 이해하는 도시화와 소외

1단원 (1) 문학의 가치

학년 반 이름:

모둠 인터뷰 활동을 통해 「다음에, 나머지 반도」의 주제와 작품이 지닌 가치를 이해해 보자.

1 「다음에, 나머지 반도」를 읽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인물	상황과 처지	성격	대표적인 대사나 행동
 김 주사	• 시대 변화로 인해 장사가 어려워짐	•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인물	
 이동수	• 1톤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젊은 상인	•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하는 인물	
 40대 후반의 사내	•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처지	• 소박하고 실리적인 인물	

2 다음 활동을 하며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시선과 태도를 탐구해 보자.

요소	관련 장면	작가의 시선과 태도
도시화에 따른 시장의 변화	• 대형 할인마트,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전통 시장이 밀려나는 상황이 묘사되는 장면 • 1톤 트럭과 스피커로 장사하는 이동수가 성공하는 반면, 전통적 방식으로 장사하는 김 주사는 구석 자리에서 고전하는 장면	
전통 시장의 정(情)	• 오랜 단골들과의 관계를 회상하며 김 주사가 장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 현대화 속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 시장만의 고유한 가치인 인간적 유대와 정을 소중히 여기는 시선을 보여 줌.
해학적 표현	• 40대 사내와 김 주사가 티셔츠 한 장을 두고 “사람이 몸동아리가 한 갠데 우에 두 개를 한꺼분에 입는다.”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 ‘반품’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김 주사가 ‘반동가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장면	

도움말 해학이란?

해학은 사회적 현상이나 현실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언어뿐만 아니라 태도, 동작, 표정, 말씨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세상이나 인간의 결함에 대한 동경과 이해, 긍정적 시선을 전제로 하므로, 풍자나 조롱, 비아냥과는 달리 품위가 있으며 선의의 웃음을 유발한다.

3 모둠원과 토의하여 모둠 인터뷰 활동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하고, 자신이 맡은 인물의 관점에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보자.

* 내가 맡은 역할:

* 나(내가 맡은 역할)의 고민거리:

* 다른 인물들에 대한 나의 생각:

* 시대 변화에 대한 나의 태도:

4 모둠 인터뷰 활동의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자.

(1) 답변자로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자.

예상 질문	나의 답변	작품 속 근거
1.		
2.		
3.		
4.		

(2) 질문자로서 다른 인물들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작성해 보자.

인물	질문	질문 의도
김 주사		
이동수		
40대 사내		
작가		

도움말 모둠 인터뷰 활동을 위한 질문 유형과 질문 작성 시 고려 사항

질문 유형	예시(「토끼와 거북이」)
인물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질문	• “거북이 님,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와의 경주를 제안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토끼 님, 평소 자신의 빠른 달리기 실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탐구하는 질문	• “거북이 님,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 곳을 지나치실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 “토끼 님, 깨어나서 거북이가 결승선에 먼저 도착한 것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작가의 의도를 탐구하는 질문	• “작가 님,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장면을 넣으신 특별한 의도가 있으셨나요?” • “작가 님께서는 왜 하필 동물들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셨나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질문	• “거북이 님, 이번 경주의 승리가 가져다준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토끼 님은 이번 패배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닫게 되셨나요?”
질문 작성 시 고려 사항	

- 작품의 구체적인 장면을 근거로 질문합니다.
-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인물의 내면이나 사건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구성합니다.
- 답변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듭니다.
- 작품의 주제와 교훈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합니다.

5 모둠 인터뷰 활동을 하고,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자.

(1) 모둠 인터뷰 활동 절차와 유의 사항을 숙지한 뒤, 인터뷰를 진행해 보자.

모둠 인터뷰 활동의 절차와 유의 사항

[모둠 인터뷰 활동 절차]

- ① 인터뷰 순서를 정하고, 답변자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역할(김 주사/이동수/40대 사내/작가)을 소개합니다.
- ② 나머지 모둠원들은 질문자가 되어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합니다.
- ③ 답변자는 인물의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④ 한 인물당 5분씩 인터뷰를 진행하고, 역할을 바꾸어 다음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유의 사항]

- ① 답변자는 맡은 인물의 입장과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말투와 행동으로 답변합니다.
- ② 질문자는 경청하는 자세로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합니다.
- ③ 모든 모둠원이 질문자와 답변자 역할을 골고루 경험합니다.

[참고 자료] 모듬 인터뷰 명찰

 김 주사 시골 오일장의 마지막 장돌뱅이로 30년 이상 일용잡화를 판매함.	 이동수 새 시대의 젊은 상인으로, 1톤 트럭으로 이동식 장사함.
 40대 후반의 사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삶을 살아가는 손님으로,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를 구사함.	 성석제 「다음에, 나머지 반도」의 작가로, 해학과 애환으로 시대의 변화를 그림.

(2) 다음 표를 작성하며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인상적인 질문과 답변	새롭게 이해하게 된 점
김 주사		
이동수		
40대 사내		
작가		

6 모듈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인상적인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우리 모듈의 활동 내용을 발표해 보자.

(2)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 작품에 등장한 인상적인 인물들을 떠올려 보고, 문학 작품을 통해 그 인물을 접한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자.
- * 이 작품에서 해학적인 특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찾고, 작가가 이와 같은 장면을 설정하여 얻는 효과를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 *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7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모듈 인터뷰에서 맡은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변하였는가?	☆☆☆☆☆
2.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하였는가?	☆☆☆☆☆
3. 문학의 정서적·미적 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전시장 관람

「길」(김소월)

교과서 연계 단원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1 「길」(김소월)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문학의 4대 갈래(서정, 서사, 극, 교술)의 특성을 모둠별로 시각화하여 전시 자료로 제작하고, 전시장 관람 방식의 토의·토론을 통해 문학의 갈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4인 1모듬으로 구성되어 각각 하나의 문학 갈래를 담당하며, 해당 갈래의 개념, 특성, 형상화 원리, 대표작품 등을 포스터와 설명 자료로 구성한다.

전시 자료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각자 맡은 갈래의 전문가가 되어 해당 갈래의 본질을 탐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1학년 공통국어 1, 2 과정에서 학습한 작품들을 예시로 활용하여 갈래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갈래와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 줄 수 있도록 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각 갈래의 핵심 개념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명료하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모듬원 모두가 전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여 교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셋째, 관람 시간이 단순한 설명과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 토의·토론 활동을 하며 문학의 갈래별 특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문학의 갈래' 설명문(33쪽)
준비 자료	• 전지(이젤패드), 사인펜, 색연필, 포스트잇
토의·토론 방법	• 전시장 관람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공통국어 1, 2에서 학습한 문학 작품들을 떠올린다. •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발표된 작품들을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분류해 본다. ▶ 각 갈래의 특성을 떠올려 본다. • 갈래별로 기억나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본다.	• 다양한 갈래의 작품이 고르게 언급되도록 유도한다. • 학생들의 자유로운 발표를 존중하되,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각 갈래의 기본적인 특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개 (40분)	▶ 모둠별로 문학 갈래를 선정하고 자료를 학습한다. • 서정, 서사, 극, 교술 중 한 갈래씩 선정한다. • 자료를 읽으며 배정된 갈래의 개념, 특성, 형상화 원리를 학습한다. • 대표적인 작품 사례를 찾아 정리한다. ▶ 갈래 설명 포스터를 제작한다. • 갈래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시각적으로 구성한다. • 포스터에 개념,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 주요 특징, 예시 작품, 갈래를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한다. ▶ 발표 준비를 한다. • 발표 순서와 내용을 정한 뒤, 역할을 바꾸어 가며 발표 연습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다.	• 모든 모둠원이 자료 학습에 참여하도록 한다. • 갈래의 핵심 개념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 그림 자료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모둠원 모두가 제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 • 발표 시간(5분)을 고려하여 핵심 내용을 선별하도록 한다.
정리 (5분)	▶ 전시 준비 상태를 점검한다. • 포스터를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 발표 순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 다음 차시 활동을 예고한다. • 전시장 관람 활동의 규칙을 명확히 전달한다.	• 모든 모둠의 준비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전시장 관람 활동의 규칙을 확인한다. • 총 6회의 순환 관람 방식을 설명한다. • 모둠별 앞 번호 2명(1~3회차), 뒤 번호 2명(4~6회차)의 역할을 안내한다. ▶ 관람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한다. • 설명자는 포스터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 관람자는 메모하며 경청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순환 관람의 진행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 시간 배분(각 회차 5분)을 안내하고 시간을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40분)	▶ 모둠 인터뷰 활동을 진행한다. • 답변자는 인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한다.	• 시간을 정확히 지켜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 나머지 모둠원들은 준비한 질문을 차례로 제시한다. •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심화한다. • 역할을 바꾸어가며 인터뷰를 이어간다. ▶ 모둠별 활동 내용을 공유하며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의 삶과 작품에 드러난 정서적·미적 가치를 정리한다.	• 모든 학생이 설명자와 관람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한다. • 질문과 답변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촉진한다. • 형성 평가는 모둠원들과 충분히 토의하며 해결하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전시장 관람식 토의·토론이란?

- 전시장 관람식 토의·토론은 학생들이 모둠별로 제작한 전시물을 중심으로 설명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으며 학습하는 토의·토론 방식이다.
- 모둠원들이 번갈아 가며 전시 해설사와 관람객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학습 주제를 배정한다. • 배정을 받은 주제에 대해 모둠별로 전시 자료(포스터)를 제작한다. • 모둠 안에서 발표 연습을 하며 모든 모둠원이 전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② 전시 단계	• 완성된 포스터를 교실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한다. • 각 모둠의 전시물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관람과 설명이 원활하도록 한다. • 전시물 앞에 설명자가 서서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③ 관람 단계	• 관람은 모둠별로 설명자와 관람자의 역할을 나누어 진행한다. • 설명자는 전시물 앞에서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며, 관람자는 다른 모둠의 전시물을 관람하며 경청하고 질문한다. • 교사의 신호에 맞추어 일정 시간마다 다음 전시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순환하며, 이 과정을 통해 모든 학생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 • 각 순환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간 관리를 통해 모든 전시물을 효과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형성 평가 및 성찰 단계	• 관람이 끝난 후에는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활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활동 도움말	• 전시 자료 제작 시 시각적 효과와 내용의 정확성을 모두 고려하게 한다. • 설명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 관람자는 메모하며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준비하게 한다. • 모든 모둠원이 전시 내용을 숙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순환 관람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시간을 관리한다. • 형성 평가는 모둠원들과 충분히 토의하며 해결하도록 한다.

4 활동지

교과서 35~40쪽

전시장 관람

우리가 차린 문학 갈래 전시관

1단원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학년 반 이름:

○ 다음 자료를 읽으며, 문학의 갈래에 따른 세계 인식과 형상화 원리를 이해해 보자.

- 1 우리 모둠에서 '서정, 서사, 극, 교술' 중 담당하고 싶은 갈래 한 가지를 선정해 보자.
- 2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갈래를 설명한 자료를 읽으며, 해당 갈래가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성을 이해해 보자.

도움말 읽기 자료는 '일반 자료'와 '쉬운 자료'의 두 가지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자신의 이해도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의 내용은 동일하며, 설명 방식의 차이만 있습니다.

서정 갈래

마음의 노래: 시적 화자가 들려주는 감정의 세계

일반 자료

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사',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극',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 서정 갈래는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압축된 언어로 노래하는 방식으로, 고대 가요, 향가, 고려 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와 같은 운문 양식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정 갈래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시적 화자가 세계를 바라보며 느끼는 주관적 감정과 정서를 중심으로 형상화합니다. 예를 들어 봄날의 꽃을 보며 느끼는 생명의 기쁨이나, 달빛을 보며 떠오르는 그리움과 같은 내면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정 갈래의 형상화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어의 함축성입니다. 하나의 시어에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겨울'이라는 시어가 '시련', '고난', '죽음'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각적 이미지의 구현입니다. 시는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추상적인 정서나 관념을 구체적인 감각으로 형상화합니다. '구겨진 벅타이처럼 풀어진 길'이라는 표현에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시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운율의 활용입니다. 시어의 선택과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여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서정 갈래를 감상할 때는 우선 시적 화자가 누구이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어서 그러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가 보이는 정서와 태도를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이별의 상황에서도 담담한 태도를 보이는지, 아니면 강한 슬픔을 표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에 사용된 시어들의 함축

적 의미를 탐구하고, 비유와 상징을 통해 구현된 이미지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시어의 배열이 만들어 내는 운율의 효과를 살피며, 이러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합니다. 서정 갈래는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게 해 주는 문학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주죠.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각자의 삶에 몰두하기 쉬운 시대에 더욱 소중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자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직접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달 방식에 따라 문학은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상황을 보여 주는 ‘극’, 생각을 설명하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서정 갈래는 시인의 마음속 감정을 노래하는 문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가 대표적이죠. 시인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든 자신의 감정을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서정 갈래만의 특별한 표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봄’이라는 단어가 ‘희망’이나 ‘시작’을 의미하는 것처럼요.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꿔 표현합니다.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길’이라는 표현에서 처럼 ‘길’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리듬감 있게 표현합니다. 리듬감이 느껴지는 시어를 선택하거나, 특정한 말을 반복하여 음악처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서정 갈래를 감상할 때는 먼저 시 속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이별하는 상황에서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이 사용한 단어들의 숨은 의미를 찾아보고, 어떤 비유를 썼는지,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서정 갈래는 우리의 마음을 풍부하게 해 주는 문학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 주죠.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각자의 삶에 몰두하기 쉬운 시대에 더욱 소중한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사 갈래

이야기의 힘: 서술자가 그려 내는 세상 속 우리들

일반 자료

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사’,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극’,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 서사 갈래는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상의 인물과 사건으로 그려 내는 문학으로, 설화, 고전 소설, 근대 소설, 현대 소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서사 갈래는 세계와 대결하거나 갈등 속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극 갈래와 공통점

을 지니지만,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서사 갈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형상화됩니다. 첫째,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둘째,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셋째,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역할을 하는 갈등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서사 갈래에서 서술자는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술자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서술하는 목소리나 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시점의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시점의 선택에 따라 문학적 효과 또한 달라집니다.

서사 갈래를 감상할 때는 먼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합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각각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작품의 분위기와 인물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작가가 선택한 서술 시점이 작품의 주제와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파악합니다.

이처럼 서사 갈래는 서술자와 시점을 통해 인물, 사건, 배경을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인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문학의 중요한 갈래입니다. 특히 서사 갈래는 세계와 대결하고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서사 갈래는 인간과 세계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자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직접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달 방식에 따라 문학은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상황을 보여 주는 ‘극’, 생각을 설명하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서사 갈래는 작가가 이야기꾼(서술자)을 내세워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을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대 소설이 대표적입니다. 서사 갈래는 연극처럼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다룬다는 점에서 극 갈래와 비슷하지만,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사 갈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둘째, 그 인물들이 겪는 다양한 사건들입니다. 셋째,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서술자는 이 세 가지를 잘 엮어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냅니다. 특히 인물들이 겪는 갈등은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사 갈래에서 서술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서술자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제3자가 관찰자처럼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사 갈래를 읽을 때는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먼저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찾아봅니다. 또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서사 갈래는 인간이 살면서 겪는 다양한 갈등과 고민을 보여 주는 문학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에 서사 갈래는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극 갈래

무대 위의 생생한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인생의 순간들

일반 자료

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사’,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극’, 사실이나 경험에 관한 생각을 알려 주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 극 갈래는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여 작자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대사 및 행동을 통해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문학입니다. 희곡,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이 극 갈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극 갈래는 서사 갈래와 마찬가지로 세계와 대결하거나 갈등 속에 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사 갈래가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이때 극적 대화와 행동은 현재형 시제로 표현되어 관객에게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극 갈래의 형상화 원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무대에서의 상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둘째, 극작의 사건을 현재적 행위로 보여 주고자 하는 사건의 직접적 재현을 추구합니다. 셋째, 무대 위에서 배우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넷째, 인물의 성격과 의식이 반영되는 극적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극 갈래를 감상할 때는 우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각각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특히 주요 인물들 사이의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대화와 행동이 인물의 성격과 극적 상황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분석합니다. 또한 지시문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구체적인 행동, 표정, 심리 등을 파악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의미를 이해합니다.

극 갈래는 대화와 무대 지시문을 통해 인간의 삶을 직접적이고 현장감 있게 보여 주는 문학의 중요한 갈래입니다. 특히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극적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삶과 내면세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극 갈래는 관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특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쉬운 자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직접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달 방식에 따라 문학은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상황을 보여 주는 ‘극’, 생각을 설명하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극 갈래는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극이나 드라마의 대본이 여기에 속합니다. 극 갈래는 소설처럼 이야기를 통해 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다룹니다. 하지만 소설이 이야기꾼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극 갈래는 배우들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렇게 직접 보여 주는 방식은 관객들에게 마치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극 갈래에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대에서 공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을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으로만 표현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주로 인물들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이를 통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극 갈래를 읽을 때는 먼저 등장인물들이 서로 어떤 관계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누가 누구와 갈등을 겪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지시문을 통해 장면의 배경이나 분위기, 인물의 표정이나 동작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 갈래는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문학입니다. 배우들의 생생한 연기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직접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감정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극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극 갈래는 우리에게 더욱 풍부한 문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극작: 연극의 각본을 씀.

교술 갈래

일상의 발견: 글쓰기가 나누는 삶의 깨달음

일반 자료

문학은 작가가 자신의 체험이나 사건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서사’, 사건을 행동으로 보여 주는 ‘극’,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알려 주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 교술 갈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글쓰기의 경험과 사색을 서술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문학입니다. 가전(假傳), 고전 수필, 근대 수필, 현대 수필 등이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교술 갈래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한 성찰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닙니다. 작가는 자기 주변에서 겪은 진술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찰하여 깨달음을 전달하거나, 삶의 자세나 인생의 의미, 인생에 대한 성찰,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 등을 서술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술 갈래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담아내는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술 갈래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쓰기가 직접 체험한 구체적 사실이나 깊이 있는 사색을 바탕으로 작품을 전개합니다. 둘째, 글쓰기가 경험한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의 태도를 드러내며,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구현합니다. 셋째, 자유로운 형식과 개성적인 문체로 글쓰기의 개성이나 성격, 가치관 등을 표현합니다.

교술 갈래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닙니다. 특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쓰기의 체험이나 사색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진술하고 친근한 어조로 독자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교술 갈래를 감상할 때는 먼저 글쓰기가 어떤 경험이나 사실을 다루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이어서 그러한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글쓰기의 해석과 평가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파악합니다. 또한 글쓰기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문체와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특히 글쓰기만의 개성적인 표현 방식과 진술한 어조가 작품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봅니다.

교술 갈래는 일상적 체험과 사색을 통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전달하는 문학의 중요한 갈래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교술 갈래는 개인의 진술한 경험과 사색을 통해 독자들에게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쉬운 자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직접 보여 줄 수도 있고, 설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달 방식에 따라 문학은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감정을 노래하는 ‘서정’,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사’, 상황을 보여 주는 ‘극’, 생각을 설명하는 ‘교술’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교술 갈래는 작가가 자신이 경험한 일이나 생각을 독자에게 직접 들려주는 문학입니다. 우리가 일기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전합니다. 수필이 대표적인 예인데, 작가는 일상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교술 갈래의 특별한 점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도, 거기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가는 일상의 작은 사건으로부터 삶의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사회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교술 갈래는 다른 문학 갈래와 달리 형식이 자유롭습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문체로 글을 쓸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로움 덕분에 작가의 진솔한 목소리가 더욱 잘 드러나고, 독자와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술 갈래를 읽을 때는 먼저 글쓴이가 어떤 일을 겪었거나 어떤 것을 보고 생각했는지 찾아봅니다. 그다음 그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 글쓴이가 어떻게 느끼고 판단했는지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도 주목해 보세요. 특히 글쓴이만의 독특한 표현과 진솔한 말투가 글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교술 갈래는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주는 문학입니다. 작가의 진솔한 경험과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우리의 삶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에, 교술 갈래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3 모둠원과 토의하며,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갈래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보자.

○○○

◎ 갈래:

.....

◎ 개념

.....

◎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

.....

.....

◎ 감상 방법과 가치

.....

.....

◎ 예시 작품

.....

.....

◎ 갈래를 표현하는 그림

.....

.....

.....

모둠 안에서 전시장 관람 활동을 위한 발표 연습을 해 보자.

1 포스터 발표를 위한 역할을 나누어 보자.

회차	발표자	세부 역할
1~3회차		• 발표자 1: • 발표자 2:
4~6회차		• 발표자 3: • 발표자 4:

2 우리 모듈 포스터의 특징과 장점을 생각해 보자.

항목	특징과 장점
내용적 측면	
시각적 측면	
기타	

3 발표 연습을 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자.

예상 질문	답변 내용	근거
1.		
2.		
3.		
4.		
5.		

● 전시장 관람 활동을 하며 문학 갈래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징을 이해해 보자.

1 다음 자료를 읽으며 전시장 관람 활동의 방법과 유의 사항을 이해해 보자.

[전시장 관람 활동이란?]

전시장 관람 활동은 모둠별로 제작한 전시물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협동 학습 방식입니다. 각 모둠이 설명자와 관람객의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며, 전시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지식과 관점을 나눕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토의·토론 활동입니다.

[활동의 진행 방법]

- 우리는 총 6회에 걸쳐 전시물을 관람하게 됩니다. 한 번의 관람은 5분 동안 진행됩니다.
- 처음 1~3회차에서는 모둠의 앞 번호 2명이 전시 해설사가 됩니다. 뒤 번호 2명은 다른 모둠의 전시물을 관람합니다.
- 이어지는 4~6회차에서는 역할을 바꾸어, 뒤 번호 2명이 전시 해설사가 되고 앞 번호 2명이 관람을 하게 됩니다.

[전시 해설사가 될 때는]

- 우리 모둠이 준비한 전시물 앞에서 자신감 있게 설명해 주세요.
- 갈래의 개념, 특성, 형상화 원리를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 친구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친구들과 대화하듯 설명하면 좋습니다.

[관람객이 될 때는]

- 다른 모둠의 전시물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 설명을 듣고, 새롭게 알게 된 점, 인상 깊은 점, 궁금한 점 등을 포스트잇에 작성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 우리가 맡은 갈래와 다른 갈래의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이것만은 꼭 지켜 주세요]

- 시간이 되면 바로 다음 전시물로 이동해 주세요.
- 설명할 때나 들을 때나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 주세요.
- 다른 모둠의 발표를 존중하며 경청해 주세요.
- 전시장 관람 활동을 마친 뒤에는 형성 평가를 할 예정이니, 각 모둠의 설명을 경청해 주세요.

2 모둠으로 돌아와 새롭게 알게 된 점, 인상 깊은 점, 궁금한 점을 공유하며 형성 평가를 준비해 보자.

● 모둠원과 협력하여 다음 형성 평가 문제를 해결하고,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자.

※ 다음 형성 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서정 갈래

1. 서정 갈래에서 하나의 단어에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아 표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2. 다음 중 서정 갈래의 형상화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율의 활용
 ② 시어의 함축성
 ③ 감각적 이미지의 구현
 ④ 서술자의 관점 전환
 ⑤ 비유와 상징의 사용
3. 서정 갈래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 ×)
4. 다음 중 서정 갈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건의 전개를 중시한다.
 ② 현재형 시제로 상황을 재현한다.
 ③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④ 주관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⑤ 자유로운 형식으로 사색을 전개한다.

서사 갈래

5. 서사 갈래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쓰시오.
6. 서사 갈래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목소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7. 다음 중 서사 갈래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형 시제의 사용
 ② 갈등을 통한 주제 구현
 ③ 운율을 통한 정서 전달
 ④ 자유로운 형식의 활용
 ⑤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함
8. 서사 갈래에서 사건 전개 중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쓰시오.

극 갈래

9. 극 갈래에서 배우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표정, 무대 상황 등을 지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10. 극 갈래는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만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 / ×)

11. 다음 중 극 갈래의 시간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형 시제 사용
- ② 현재형 시제 사용
- ③ 미래형 시제 사용
- ④ 시제 표현의 생략
- ⑤ 시제의 자유로운 전환

12. 다음 중 극 갈래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 ② 현재형 시제를 사용한다.
- ③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다.
- ④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한다.
- ⑤ 대사와 행동으로 극이 진행된다.

교술 갈래

13. 교술 갈래는 글쓰이의 주관적 경험이나 성찰을 다룬다는 점에서 서정 갈래와 유사하다. (○ / ×)

14. 다음 중 교술 갈래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율의 중시
- ② 진솔한 어조의 사용
- ③ 개성적 문체의 구사
- ④ 사색적 성찰의 표현
- ⑤ 자유로운 형식의 활용

15. 교술 갈래는 우리에게 삶을 돌아보고 ()하는 기회를 주는 문학이다.

16. 다음 중 교술 갈래의 주된 형상화 방식은?

- ① 운율을 통한 정서 표현
- ② 갈등을 통한 사건 전개
- ③ 대사를 통한 상황 제시
- ④ 감각적 이미지의 구현
- ⑤ 논리적 분석과 사색적 고찰

[정답]

1. 함축성 2. ④ 3. × 4. ④ 5. 인물, 사건, 배경 6. 서술자 7. ② 8. 갈등 9. 지시문 10. ○ 11. ② 12. ④ 13. ○ 14. ① 15. 성찰 16. ⑤

●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포스터의 핵심 내용을 나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
2. 다른 모둠의 발표를 경청하고 질문하였는가?	☆☆☆☆☆
3.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찾고, 어려움이 있는 친구를 돕는 등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4. 문학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엄마의 말뚝 2」(박완서)

교과서 연계 단원 1. 문학의 본질과 양상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작품 2 「엄마의 말뚝 2」(박완서)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를 현대의 독자 맥락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경험한 오늘날의 고등학생들은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트라우마와 집단적 상처의 의미를 탐구할 수 있다.

이 활동은 교과서 내용을 모두 학습한 상황을 전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먼저 작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브루타 활동을 통해 ‘문학을 통한 사회적 재난의 애도’에 대한 설명문과 작품을 함께 읽으며 재난의 의미와 문학의 역할을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과거의 재난이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정한 애도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이후 김애란 작가의 「모두의 일곱 해」를 참고하여, ‘만약 오빠가 살아 있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 보는 창작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이 지닌 애도와 치유의 기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작품 속 인물들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둘째, 하브루타 활동에서 문학의 애도 기능과 사회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야기 쓰기 활동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진정한 애도의 의미를 담은 창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전쟁 경험과 현대의 사회적 재난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문학이 지닌 치유와 애도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토의·토론 활동을 하며 독자 맥락에서 「엄마의 말뚝 2」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등장인물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하며 문학의 애도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문학의 맥락’ 설명문(34쪽), 「엄마의 말뚝 2」(41~50쪽)
준비 자료	• ‘문학을 통한 사회적 재난의 애도’ 설명문, 이미지 카드
토의·토론 방법	• 하브루타, 이야기 쓰기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최근 우리가 겪은 재난을 떠올리며, 사회적 재난과 개인적 불행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세월호 참사, 태안 화력 발전소 사고, 코로나19, 청주 공평2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태원 참사 등 • 우리가 겪은 재난과 작품의 배경이 된 '6.25 전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떠올려 본다.	•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40분)	▶ 엮어 읽기로 '문학을 통한 사회적 재난의 애도'에 관한 글을 읽으며, 이 글의 관점으로 「엄마의 말뚝 2」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든다.(10분) • 질문 예시: – 재난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지속되는가? – 진정한 애도란 무엇인가? – 문학은 애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모둠원과 각자 만든 질문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 있는 질문 4가지를 선정한다.(5분) ▶ 선정된 질문에 대해 하브루타 토론을 진행한다.(25분)	• 개별 질문 만들기 활동 시 제시글의 핵심 내용을 작품 이해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이 되도록 안내한다. • 글의 내용, 개인의 경험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야기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이 끝나면 토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준비를 하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 모둠별로 인상적인 토론 내용을 공유하며 현대 독자에게 「엄마의 말뚝 2」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정리한다. ▶ 다음 차시 활동을 예고한다.	•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점검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 문학이 사회적 재난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방식에 대해 떠올린다. • 현대 독자에게 「엄마의 말뚝 2」가 갖는 의미를 떠올린다.	• 지난 차시 학습과 이번 차시 학습의 연계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전개 (40분)	▶ 김애란의 「모두의 일곱 해」를 함께 읽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작가의 생각, 희생자에 대한 애도 방식을 파악한다.(10분) • '만약 ~(이)라면'이라는 전제로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에 주목한다. ▶ 모둠원과 이야기 엮기 활동을 진행한다.(20분) • '만약 전쟁 후에도 오빠가 살아 있다면'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쓴다. • 토의를 통해 이미지 카드 꾸러미에서 모둠원 수에 맞게 이미지를 선택하고, 해당 이미지를 중심으로 오빠의 이야기를 창작한다.	• 이야기 엮기 활동이 단순한 상상이 아닌 애도의 의미를 담은 글쓰기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 이미지 카드 선택 시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이미지 – 구체적인 일상을 상상할 수 있는 이미지 – 작품에 제시된 오빠의 상황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

	▶ 전체 학생들과 이야기를 공유하고,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에 대해 생각을 나눈다.(10분)	• 이야기 창작 시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 이미지와 이야기의 연관성 설명 –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묘사 – 진정성 있는 상상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이야기 엮기란?

- 그림이나 사진(4컷 만화 등)을 활용하여 협력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다.
- 학생들은 주어진 시각적 자료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친구들과 공유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이야기 엮기에 활용할 시각 자료 꾸러미를 각 모둠에 배부한다. • 각 모둠원은 이야기 창작 주제에 맞는 시각 자료를 1장씩 선택한다.
② 이미지 선택 단계	• 선택한 시각 자료를 공유하며 각각의 자료에서 연상되는 이야기를 창작한다.
③ 전체 공유 단계	• 전체 학생들과 모둠별로 만든 이야기를 공유한다. •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활동 도움말	•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창작하되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이야기 엮기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자료에는 잡지, 엽서, 이미지 카드 등 다양하다. 이 중 이미지 카드는 학교 예산으로 '이미지 프레임 카드', '솔라리움 카드', '생각 카드' 중 하나를 한 학급의 모둠 수만큼 구입해 활용하면 된다. • 이야기 엮기 활동을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미지를 생성한 뒤, 온라인 공유 보드(패드렛, 핑커벨, 퀴즈앤 보드 등)으로 결과물을 공유하면 된다.

4 활동지

교과서 41~50쪽

이야기 엮기

6.25와 세월호를 잇는 기억의 자리

1단원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학년 반 이름:

○ 다음 글을 읽고, 모둠원과 하브루타 활동을 해 보자.

문학은 재난의 상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최근의 사회적 재난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해야 할 집단적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애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애도는 사회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한 사회가 구성원의 상실과 고통을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지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애도가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애도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나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기도 합니다.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애도라 여기거나, 추모식을 열고 묵념하는 것으로 애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애도는 진정한 치유와 성찰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는 한국 전쟁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한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 전쟁은 점차 추상적인 역사적 사실로만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주는 다리가 되어, 전쟁이 개인의 삶에 남긴 구체적인 상처와 그 고통이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상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현실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빛과 실’이라는 강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은 문학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와 깨달음에 관한 물음이었습니

다. 작가는 인간이 가한 잔혹함과, 그에 저항했던 존엄함 사이에서 과거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되살렸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통해 문학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에서 고통이 생겨나고, 어떤 고통은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현재에 되살립니다. 작품 속 인물의 구체적인 경험과 감정을 통해 우리는 먼 과거의 사건을 마치 현재처럼 느끼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박완서 작가는 “통일이 직업인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구호를 만들어 내어 분단을 치장하면 되겠지만, 진실로 통일이 꿈인 사람은 끊임없이 분단된 상처를 쥐어뜯어 괴롭게 피 흘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학은 교과서나 역사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개인의 목소리, 일상의 기록들을 담아냄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인간적 깊이를 더해 줍니다. 작가의 말처럼 이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토막 난 채로 아물어 버리면 다시는 이을 수 없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학을 통한 애도는 과거의 상처를 현재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과거의 비극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1 위 글을 읽고 다음 표를 정리해 보자.

중요한 내용	인상적인 내용	더 알고 싶은 내용

2 위 글의 관점으로 「엄마의 말뚝 2」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브루타를 위한 질문 유형과 형식	
질문 유형	형식 예시
두 글의 공통점 찾기	• 두 글은 ~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두 글에서 말하는 ~의 의미는 무엇인가? • 두 글에서 ~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두 글의 차이점 찾기	• 두 글에서 ~이/가 나타나는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 ~에 대한 두 글의 관점은 어떻게 다른가? • ~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의 글을 다른 글에 적용하기	• (가) 글의 ~ 개념으로 (나) 글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 (가) 글의 사례는 (나) 글의 ~을/를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 (가) 글의 관점에서 볼 때 (나) 글의 ~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	• 두 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 두 글의 문제의식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순	개별 질문
1	
2	
3	
4	
5	

3 모둠원들과 질문을 공유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은 질문을 선정해 보자.

순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질문
1	
2	
3	
4	

4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자.

질문	인상적인 대화 내용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5 모둠별 토의 내용을 전체 학급과 공유해 보자.

다른 모둠의 발표 내용 중 인상적인 내용

6 배움 일기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배움 확인 질문

1.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브루타 활동을 하며 「엄마의 말뚝 2」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3. 6.25 전쟁을 직접 겪어 보지 않은 우리 세대에게 이 작품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요?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하브루타 활동에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대화에 참여했는가?	☆☆☆☆☆
2. 하브루타 활동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했는가?	☆☆☆☆☆
3. 하브루타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했는가?	☆☆☆☆☆
4. 독자 맥락에서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가?	☆☆☆☆☆

● 다음 글을 읽고, 모둠원과 이야기 엮기 활동을 해 보자.

모두의 일곱 해⁽⁷⁾

김애란

- 열일곱에 일곱 해를 더하고
- 다시 스물둘에 일곱 해를 보탠 뒤
- 일곱 살에 일곱 해를 합하고
- 마흔셋에 다섯 해를 덧대 보았다.

언뜻 이상한 산수처럼 보이는 저 문장들 속에는 누군가 이 세상에 머물다 간 시간과 떠난 시간이 모두 담겨 있다. 열일곱에 일곱 해를 더하면 스물넷, 스물둘에 일곱 해를 보태면 스물아홉, 일곱 살에 일곱을 더하면 열넷, 마흔셋에 다섯 살을 합하면 마흔여덟이다.

이 중 굵게 표시한 맨 처음 숫자는 7년 전 제주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과 학생들의 나이이다. 만약 살아 있다면 올해 스물네 살이 되었을 아이들. 모두 알다시피 사고 당시 이들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두 번째 굵은 숫자는 세월호 승무원 고 박지영 씨의 나이이다. 그녀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조를 돕다 배 안에서 숨을 거뒀다. 세 번째 숫자는 세월호 참사의 가장 어린 희생자 고 권혁규 군의 나이이다. 권 군은 가족들과 제주로 이사하다 사고를 당했고 끝내 육지로 돌아오지 못해 지금까지 미수습자로 남았다. 마지막 숫자는 2016년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고 김관홍 님의 나이이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희생자 분들을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 가며, 한 구 한 구 안아’ 올린 잠수사 분. 그 뒤 우리 사회에 대한 실망과 트라우마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 만일 살아 계셨다면 올해 마흔여덟을 맞으셨을 거다.

고 김관홍 님의 마지막 해 나이를 제외하고 나는 나머지 사람들의 나이를 모두 가져 봤다. 열세 살도 돼 보고, 스물네 살도 겪어 보고, 스물아홉 살도 맞아 본 적 있는 사람. 운이 좋다면 앞으로도 또래들과 비슷한 삶의 무게를 지고, 엇비슷한 고민과 기쁨, 회한을 느끼며 살아갈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이 글을 쓰기 전 저기 저분들이 모두 살아 있다면 지금 어떤 얼굴로 이 봄을 맞고 계절까 궁금해졌다. 그런데도 내겐 여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일이 어렵게 느껴져, 내 얼굴에 저 분들 얼굴을 포개 보는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미 겪은 시간을 당신도 경험한 양 덧대 보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나의 이십 대와 지금 청춘들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나눌 법한 게 있지 않을까 싶었다. 이를테면 이런 마음 같은 건.

- 스물네 살 나는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뤘다. 버스 정류소에서 연인과 헤어질 때마다 항상 그가 다음 버스를 타길 바랐고, 그러다 홀로 돌아서는 길, 보세 옷 가게의 쇼윈도에서 자주 눈을 떼지 못했다.

어쩌면 이런 기억도.

- 스물네 살 나는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다. 담당자가 ‘단수 여권으로 하실 건가요? 복수로 할 건가요?’ 물었고, 잠시 고민하다 ‘단수로 해 주세요’ 답했다. 내 앞에 펼쳐질,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의 크기는 딱 그만했고, 그마저도 좋았다.

- 스물네 살 봄에 나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립스틱을 선물받았다. 여름에는 친구들과 팔빙수를 먹고, 비 오는 날에는 부대찌개를 사 먹었다. 취업 생각에 가끔 가슴이 어둡해졌지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맡는 비 냄새, 교정의 풀 냄새가 가끔 더 큰 실감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적어 두고 보니 저기 버스 정류소에 선 사람이 너였으면, 정말 너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시시하고 남루한 것조차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다 겪어 봤다면, 사랑이나 우정뿐 아니라 권태도, 회의도, 지리멸렬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러다 마흔 즈음에는 지친 중년의 눈빛을 가진대도 그건 그것대로 나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 박지영 씨가 살았는지 모를 아니 살아 봤어야만 할 스물아홉도 내 모습에 포개 되짚어 봤다.

- 스물아홉에 나는 은행에서 처음 대출 상담을 받았다. 웬지 어른이 된 기분이었지만 막상 나보다 훨씬 노련해 보이는 직원 앞에 섰을 땐 아이처럼 긴장했다. 스물아홉에 나는 내 자매의 신혼집에 화분을 사들고 놀러 갔다. 가윗돈이 생기면 부모님께 용돈을 보냈고, 후배들에게 밥을 사는 식으로 가끔 삶에 자부를 느꼈다.

열네 살 혹은 마흔여덟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

- 열네 살에 나는 용돈을 계획 없이 써 언니들에게 자주 돈을 빌렸다. 일기장에 적는 말이 늘었지만 진짜 비밀은 적지 않았다. 누군가 자꾸 그리운 마음이 들었고,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도 친구들이 좋았다.

다만 마흔여덟 살만은 나도 겪은 적이 없어, 상상으로 이미 지난 일인 양 그려 봤다.

- 마흔여덟에 나는 옷값을 줄이고 의료비를 늘였다. 소설이나 영화로 익힌 그 모든 연습에도 불구하고 삶의 많은 것이 예상과 달라 당황했고, 그런 내 몸과 화해하느라 바빴다. 그럼에도 그런 마음마저 다스리며 적응하고, 함께 늙어 가는 친구들을 만나 종종 서로의 고독에 시치미를 떼며 웃다 헤어졌다.

그리고 여기 다 적지 못한, 여러 가지 비밀을 포함한 무수한 날들. 그런 것이 내게 있었다. 그 일들과 함께 살아오며 나는 전과 또 다른 내가 됐고, 여전히 그렇게 '내가 되어 가는 중'이다. 지금은 여기 없는 누군가의 삶에 나의 서른하나, 마흔, 스물일곱을 겹쳐 봐도 마찬가지다. 어느 시절을 포개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이 눈앞에 수만 장의 벚꽃처럼 흩어진다. 하루하루 그 밝기와 온도가 다 다른 햇빛, 바람의 질감을 비롯해 혹 그제 실망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겪었어야 할 실망, 실연, 실패까지도. 그들이 그 안에서 배웠을 무수한 감정, 가까운 이들과 나눴을 그날 치 웃음,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부모님과 형제, 친구와 선생님, 이웃과 나눴을 하루하루의 사랑이 떠오른다. 누군가 살아 본, 살았을 법한, 살았어야 할 어떤 7년. 그 모든 일곱 해, 평범하고 흔해 더 귀하고 찬란한 시간들. 그 사이 꼭 훌륭해지지 않아도, 무언가 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충분히 빛났을 모두의 일곱 해가.

그러다 비록 그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고 간 것, 우리가 받은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이내 속연해진다. 누군가 그토록 훼손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뺏기지 않은 어떤 존엄과 태도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큰 빛을 졌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다 합한다 한들 그들이 온당히 누렸어야 하는 것들의 가치만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 7주기다. 떨어지는 꽃잎 위로 일곱 해의 무게가 쌓인다. 그들이 누리지 못한 삶은 매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새롭게 갱신될 것이다. 그 어떤 말들 앞에서도 그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이 무거워 쉽게 고개 들 수가 없다.

-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에세이 『월간 십육일』 중에서

1 위 글에서 글쓴이가 ‘만약 ~(이)라면’이라는 설정을 통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을 살펴보자.

* 글쓴이는 어떤 가정을 하고 있나요?

* 글쓴이는 이야기를 어떻게 구체화하나요?

* 글쓴이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모둠원과 함께 ‘만약 『엄마의 말뚝 2』의 오빠가 전쟁 후에도 살아 있다면’을 가정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이야기 엮기 활동 절차

1. 이미지 카드 꾸러미에서 각자 한 장씩 이미지를 선택한다. 오빠의 인생에서 각자 다른 시기를 맡아 이야기를 만들기로 하고, 선택한 이미지가 오빠의 어떤 모습과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다.
2. 모둠원들과 함께 오빠의 인생 경로, 가족 관계의 변화 과정, 삶의 주요 전환점 등을 고려해 이야기의 기본 설정을 합니다.
3. 정해진 시기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미지와 연결하여 구체적으로 씁니다.
4. 앞뒤 시기를 맡은 모둠원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5. 모둠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큰 서사로 완성합니다.

이야기 제목:

모둠 명:

이미지 카드 놓는 곳	작성자:	이미지 카드 놓는 곳	작성자:
이미지 카드 놓는 곳	작성자:	이미지 카드 놓는 곳	작성자:

3 모둠에서 만든 이야기를 전체 학급과 공유하고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

4 배움 일기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배움 확인 질문	
1. 이야기 쓰기 활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이야기를 만들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3. 사회적 재난에 대한 상처를 애도하는 과정에서 문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이미지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
2. 문학의 애도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했는가?	☆☆☆☆☆

직소(Jigsaw)

「속미인곡」(정철)

교과서 연계 단위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속미인곡」(정철)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정철의 가사 「속미인곡」의 갈래를 변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원작 속의 정서를 시조, 랩, 수필, 극과 같은 다양한 갈래로 변환하며, 각 갈래가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동일한 내용을 다양한 갈래로 표현해 보며, 학생들은 「속미인곡」의 형식적 특징과 그것이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된다. 수업은 직소(Jigsaw)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원모둠과 전문가 모둠을 오가며 갈래를 변환하고, 변환한 갈래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황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속미인곡」의 일부를 장르 변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도록 독려한다. 우스꽝스럽거나 터무니없어 보이는 아이디어라도 꼭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서로의 의견에 비판을 금지하고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장르 변환의 결과를 검토하면서 학생들이 각 장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장르의 특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의 다양한 형식을 이해하고,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한편, 협업을 통한 창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독특하고 다양한 발상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며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하나의 작품으로 엮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문학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이해한다. •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교과서 연계	• 「속미인곡」(79~86쪽)
준비 자료	•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 직소(Jigsaw)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수업의 주제를 안내한다. • 「속미인곡」을 다른 갈래로 변환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속미인곡」의 내용적, 형식적 특징을 복습한다. ▶ 직소 수업 방식을 안내한다. •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자리 배치를 확인한다. • 직소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한다. ▶ 학습의 목표를 안내한다. • 갈래 변환 활동을 통해서 「속미인곡」의 형식과 내용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답에 대해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활동과 학습 목표와의 연관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개 (40분)	▶ 원모둠에서 변환할 갈래를 선택한다. • 「속미인곡」의 일부를 발제한 후, 해당 부분을 다양한 시조, 수필, 극, 랩 등의 다양한 갈래로 변환할 것을 안내한다. • 원모둠에서 각자 원하는 갈래를 서로 다르게 하나씩 선택한다. ▶ 전문가 모둠에서 갈래를 변환하여 창작한다. • 「속미인곡」에서 선택한 갈래로 변환하기에 적절한 부분을 선정하여에 작성한다. • 어떻게 갈래를 변환할지, 강조할 주제와 정서는 무엇인지, 선택한 갈래의 특징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품을 전개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의를 한다. • 개별적으로 갈래 변환 작품을 창작한다. ▶ 원모둠에서 갈래 변환 작품을 분석한다. • 원모둠으로 돌아와서 작품을 공유하고 분석한다. • 작품을 돌려 읽으면서, 활동지의 작품 분석표를 작성한다. 원작과 변환 작품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가사의 특성을 생각하고 기록한다.	• 모듬의 전체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전문가 모듬을 지정해 준다. 8개 모듬인 경우, 갈래별로 전문가 모듬이 2개씩 나와서 자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바닥에 앉거나, 의자를 들고 이동하여 전문가 모듬을 적절히 만들도록 지도한다. • 각 갈래의 특성에 대해서 학생이 질문하면 구체적으로 안내하되, 갈래의 특징을 너무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지키면 창작이 어렵다는 것도 안내하여 학생들이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이 원작과 변환 작품을 비교하며 가사의 내용적·형식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 초점을 둔다.
정리 (5분)	▶ 가사의 형식과 내용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짚어 주며 마무리한다. • “정철이 임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굳이 시조나 수필이 아닌 가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각 모듬에서 내린 결론이 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속미인곡」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짚어 준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직소(Jigsaw)란?

- 협동 학습의 한 유형으로, 학생들이 특정 주제나 학습 내용을 나누어 맡고, 각자 맡은 부분을 책임지고 학습한 후 이를 팀원들과 공유하여 전체 내용을 완성하는 학습 방법이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학습 주제 제시	• 교사가 학습할 전체 주제를 설명하고, 이를 세분화하여 각 부분의 중요성을 안내한다. - 예 특정 문학 작품의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고 다양한 갈래로 변환하기
② 원모둠에서 영역 분담	• 학생들을 4~6명씩 소그룹 '원모둠'으로 나눈다. • 각 모듬은 동일한 전체 주제를 학습하지만, 각 학생은 주제의 세부 영역 중 하나를 담당한다.
③ 전문가 모듬에서 학습	• 동일한 세부 영역을 맡은 학생들끼리 모여 '전문가 그룹'을 형성한다. • 전문가 그룹에서 해당 영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자료를 분석하거나 창의적 작업을 수행한다. - 예 한 학생은 작품의 형식적 특징 분석, 다른 학생은 갈래 변환 작업하기
④ 원모듬에서 내용 공유	• 각 학생이 자신의 전문가 그룹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 모듬으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설명한다. • 팀원들은 각자의 역할을 통해 전체 주제에 대해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 기본 모듬에서 서로의 내용을 공유한 후, 전체 주제에 대한 심화 활동이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 예 각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토의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⑤ 발표 및 피드백	• 팀별로 학습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다. - 예 작품 변환 후 원작과의 차이점, 갈래 변환의 효과를 발표하기

4 활동지

교과서 79~86쪽

직소(Jigsaw)

서로 다른 애뜻한 마음

2단원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학년 반 이름:

「속미인곡」의 형식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을 복습해 보자.

구분	내용	효과
형식상의 특징	• 3·4조 연속체, 4음보 연속체 • 서사·㉠[바]ㅅ·㉡[가]ㅅ의 3단 구성	• 짧은 시가로는 표현하기 힘든 사대부의 사상을 길게 표현함.
표현상의 특징	• 한자 속어와 ㉢[조]ㅅ[전례(典例)와 고사(故事)]가 거의 들어가지 않음.	• 우리말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됨. • 시적 화자의 소박하고 진실한 정서가 드러남.
	• ㉣[고]ㅅ[天] 형식: 시적 화자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보조적 인물을 설정하여 대화 형식으로 표현함.	• 대화 상대자가 위로하거나 공감해 줌으로써, 그 사연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타인도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다가오게 됨.
	• 시적 화자: 버림받은 선녀와 함께 대화하는 선녀를 시적 화자로 내세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점잖게 숨기던 사대부 여성의 태도와는 달리, 솔직하고 소박한 ㉤[인]ㅅ ㉥[인]ㅅ의 태도를 보여 줌.	• 작가인 정철은 소박하고 적극적인 서민 여성의 심정을 빌려 임금에 대해 변하지 않을 자신의 충성을 표현함.

[정답] ㉠ 본사, ㉡ 결사, ㉢ 전고, ㉣ 대화체, ㉤ 서민 여성

원모듬 「속미인곡」의 일부를 갈래 변환하기 활동에서 자신이 어떤 갈래로 변환할지 선택해 보자.

1 다른 갈래의 예시를 보며, 나는 「속미인곡」을 어떤 갈래로 바꿀지 생각해 보고, 해당 갈래의 □에 표시하여 선택해 보자.
(모듬에서 각자 서로 다른 갈래를 선택해야 함.)

갈래	갈래 예시		선택
	주제 예시	본문	
시조	꽃이 핀 강촌의 봄 풍경의 흥취	압개에 안개 갓고 뒤희희 히 비친다 빙 떠라 빙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온다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와(於思臥) 강촌(江村) 온갓 고지 먼빛치 더욱 도타 - 「어부사시사」(윤선도)	☐

랩	좌절과 도전	힘들죠 (힘들죠)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너를 비웃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잔을 비우고 don't know where to go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고개를 숙일 땀 손을 모아 날개를 피고 you can fly	눈을 뜨며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뿐인 삶의 나침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실새 없이 신세 타 타타 타령만 아 아 아 아 아련한 옛꿈을 쫓던 가련한 두 팔로 화려한 날개를 피고 – 「Fly」(에픽하이) 중에서	☐
수필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살아오면서 나도 이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 번 상처를 받았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한 번만 경험한다. 추억으로 그 순간을 여러 번 되새길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렬함은 점점 줄어든다. 아무리 사진을 찍고 일기를 쓰고 비디오로 촬영해도 한 번 지나간 뒤의 일들은 더 이상 내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일을 배워야 한다. – 「하늘을 힐끔 쳐다보는 것만으로」(김연수)	☐	
극	사람의 가치는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럴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잔치를 했는데. 처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 교수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환을 내지 않았소? 처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래서 그랬지요. 교수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처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교수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 – 「원고지」(이근삼)	☐	

◎ 갈래를 선택한 이유:

.....

.....

.....

2 각 갈래를 선택한 모둠원은 원모둠에서 전문가 모둠으로 교과서와 활동지를 챙겨서 이동한다.

○ **전문가 모둠** 「속미인곡」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다른 갈래로 바꾸어 보자.

1 교과서의 「속미인곡」을 보고, 어떤 부분을 선택한 갈래로 변환할지 토의하여 아래 빈칸에 써 보자. (발췌할 때는 10행 이상의 분량을 발췌)

선정한 갈래	「속미인곡」에서 선정한 부분(원문을 그대로 옮겨 쓰기)	
☐ 시조 ☐ 랩 ☐ 수필 ☐ 극		

2 다음 쪽의 ‘갈래 변환 예시’를 읽어 보며 어떻게 변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3 아래 ‘고려할 것’에 대하여 토의한 후, 「속미인곡」에서 선정한 부분을 어떻게 변환할지 토의해 보자.

〈고려할 것〉

① 선정한 부분에서 강조할 수 있는 작품의 주제(연군지정)와 정서(슬픔, 애뜻함, 아쉬움, 쓸쓸함, 희망 등)는 무엇인가?

② 우리가 선정한 갈래(시조, 랩, 수필, 극)의 갈래적인 특성(형식적, 내용적)은 무엇인가?

③ 변환할 작품의 처음-중간-끝 부분을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

4 앞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갈래로 변환하여 창작해 보자.

ccc

※ 갈래 변환 예시

「속미인곡」

임(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구나(지나갔구나)
 내일이나(임 소식 전) 사람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나무를)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해와 달을 어찌 보며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 리를 바라보라

갈래 변환
작품 예시
(소설)

그녀는 오늘도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 오길 기다리며 아침부터 바느질로 시간을 보냈다. 바늘 끝에 실을 꿰며 정교하게 무늬를 수놓았지만, 귀는 대문 쪽에서 들릴 발소리에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쳐 갔지만, 정작 그녀가 기다리는 발걸음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즈음, 그녀는 손에 들린 바느질감을 내려놓았다.

“오늘도 헛수고구나...”

그녀는 탄식하며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혹시라도 높은 곳에서 멀리 임의 소식이 오는 길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마을 뒷산을 오르기로 했다. 산길은 가팔랐고, 잡목들이 길을 막아 곳곳에서 몸을 굽히거나 나뭇가지를 밀어야 했다.

“조금만 더 가면 꼭 보일 거야.”

스스로 다독이며 올라가던 그녀는 발을 헛디뎈 돌부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녀는 풀숲에 넘어지며 손바닥과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아, 이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절뚝이며 내려오는 그녀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다.

“왜 이렇게 무리하고 그러냐?”

어르신 나무람에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소식이라도 전해 줄 사람이 오나 해서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원모듬 모듬원과 갈래 변환한 작품을 돌려 읽고, 원작과 변환한 갈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아래 표에 정리해 보자.

구분	두 작품의 형식적 또는 내용적 공통점은?	갈래 변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나 요소가 생략되거나 추가되었는가?	갈래 변환으로 인해 느껴지는 것(주제, 정서, 분위기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속미인곡」 원작과 갈래 변환한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사’ 갈래의 특징은?
소설 변환 작품 예시	내용적인 공통점: 임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상실의 아픔의 주제, 애함과 슬픔과 같은 정서	원작에서는 서정적이고 절제된 언어로 정서가 표현되었지만,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로 자세히 서술되었다.	변환 과정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정서와 아픔이 더 부각되었다. 소설이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느낌을 준다.	가사는 소설에 비해 더 짧아서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소설에 비해 상상의 여지가 크다. 또한 운율이 있어 감상할 때 리듬감이 느껴진다.
시조 변환 작품				
랩 변환 작품				
수필 변환 작품				
극 변환 작품				

- 1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정철이 가사를 활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갤러리 워크

「천변 풍경」(박태원)



교과서 연계 단위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작품 「천변 풍경」(박태원)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박태원의 소설 「천변 풍경」에 사용된 카메라의 눈 기법과 세태 소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학교의 세태(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천변 풍경」의 카메라 눈 기법이 쓰인 부분과 같이 서술하면 된다. 카메라의 눈 기법을 우리 학교라는 친숙한 공간에 적용해 보고, 학교의 다양한 장면과 이야기를 소설과 같이 서술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세태 소설에 왜 카메라의 눈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느끼게 된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세태 소설이 카메라의 눈 기법을 통해서 당대의 시대 상황과 시대 속을 살아가는 다양한 특성의 인물들을 담아내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학생들이 의미 있는 사진을 찍어 오도록 안내하여 자신이 인상적인 장면, 아름답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상황을 찍어 오도록 해야 한다. 「천변 풍경」의 작가도 자신이 봤던 모든 장면을 카메라의 눈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맞는 장면을 선정하고 이를 의도에 맞게 표현했다는 것을 미리 강조하고 사진을 찍어 오도록 한다. 둘째,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며 감상하도록 지도하여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카메라의 눈 기법을 활용하여 일상의 장면을 언어로 표현하고, 친구가 표현한 일상의 다양한 모습을 갤러리 워크를 통해서 감상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상의 장면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의 시작인 '낯설게 보기'를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문학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이해한다. •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2(96쪽)
준비 자료	• 학생들이 찍어 온 학교의 사진(짧은 동영상), 포스트잇, 활동지, 테이프
토의·토론 방법	• 갤러리 워크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천변 풍경」의 시대적 배경과 '카메라의 눈' 기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이 작품이 1930년대 청계천 주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 지난 시간에 과제로 제시했던 내가 담고 싶은 우리 학교의 모습 사진 (또는 짧은 동영상)을 가져왔는지 확인한다. ▶ 학습 목표와 내용을 간단히 안내한다. • 「천변 풍경」의 서술 기법인 카메라의 눈 기법으로 우리 학교와 학급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 보며, 세태 소설과 카메라의 눈 기법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할 것임을 안내한다.	• 학생들이 작품의 배경과 기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전개 (40분)	▶ 사진을 공유한다. • 각자 갖고 온 사진을 모둠원들에게 보여 주며, 자신이 갖고 온 사진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고, 이 사진을 왜 가져왔는지를 공유한다. ▶ 사진을 카메라의 눈 기법으로 표현한다. • 「천변 풍경」에서 카메라의 눈 기법이 사용된 부분을 참고하며, 자신이 찍어 온 사진을 카메라의 눈 기법으로 서술한다. ▶ 모둠에서 상호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 자신이 쓴 글과 상호 평가지를 돌리며 상호 피드백을 실시한다. ▶ 갤러리 워크 활동을 통해서 학교의 다양한 장면을 표현한 작품을 공유한다. • 자신이 쓴 글을 교실 벽에 붙인다. • 포스트잇을 개인당 4장씩 배부한다. • 돌아다니며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한다. • 활동지를 작성하는 동안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격려한다.
정리 (5분)	▶ 각자 작성한 내용을 공유하며 다음 시간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 학생들이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도록 미리 점검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갤러리 워크란?

- 갤러리 워크는 학습자들이 만든 작품이나 작업물을 교실 안에 전시하고, 다른 학습자들이 이를 둘러보며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이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작품 완성: 학생들에게 작품(소설, 에세이, 그림, 발표 자료, 포스터 등)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전시 준비: 작성된 작품을 게시할 공간(교실 벽면, 테이블, 온라인 게시판 등)을 마련한다. • 자료 준비: 감상 및 피드백을 위한 메모지(포스트잇)나 피드백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예 •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 “이 작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 “공감한 내용은?”
② 전시 단계	• 작품 게시: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지정된 공간에 전시한다. 작품 옆에 제목과 간단한 설명을 추가해 이해를 돕는다. • 역할 분담: 제작자는 작품 옆에 서서 질문에 답하거나, 다른 팀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동한다.
③ 감상 및 피드백	• 작품 감상: 학생들은 순서에 따라 이동하며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한다. • 특정 작품 앞에 3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여 모든 작품이 골고루 감상되도록 유도한다. • 피드백 작성: 감상한 작품에 대해 칭찬과 개선점을 적은 포스트잇을 작품 옆에 붙인다. 〈피드백 가이드라인〉 ① 존중하며: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② 구체적으로: 작품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며 감상이나 개선점을 제시한다. 예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더 상세한 묘사를 추가하면 독자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③ 의미 있게: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는 평가보다는, 작품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안한다.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면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될 것 같아요.”
활동 도움말	• 모든 작품에 골고루 관심이 가도록 감상 순서를 정하고, 특정 작품 앞에 3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규칙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작품이 동등한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피드백은 상대를 존중하고 구체적이며 도움이 되도록 작성하도록 강조한다. 상대방의 작품을 존중하며,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제안을 통해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모든 작품이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갤러리 워크

관찰이라는 카메라, 글이라는 사진 한 장

2단원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학년

반 이름:

- 다음을 참고하여 내가 표현하고 싶은 우리 학교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사진이나 짧은 동영상으로 찍어 오자.

1 「천변 풍경」에 대한 소개 글⁽⁸⁾을 읽어 보자.

박태원의 소설 「천변 풍경」은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서울의 청계천 주변을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 낸 작품입니다. 이 시기는 일본의 지배로 인해 조선이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겪던 때였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새로운 문화와 전통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천변 풍경」은 세태 소설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청계천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계층, 직업,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보여 줍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태원은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야기를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소소한 고민과 일상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냅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1930년대라는 시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천변 풍경」에 사용된 카메라의 눈 기법에 대한 글을 읽어 보자.

「천변 풍경」에서 사용된 ‘카메라의 눈’ 기법은 마치 영화 카메라가 주변을 찍는 것처럼 청계천 주변의 여러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 줍니다. 이 기법 덕분에 이야기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만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모습을 골고루 담아냅니다. 독자는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청계천과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당시 도시의 활기와 혼란, 그리고 사람들의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며, 그 시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느끼게 해 줍니다. 이 기법으로 「천변 풍경」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3 우리 학교의 다채로운 장면, 다양한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 중에서 나는 어떤 장면을 표현해 보고 싶은지 써 보자.

4 내가 표현하고 싶은 장면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 각자 찍은 사진을 모둠원들과 공유해 보자.

1 어떤 장면인지 한 마디로 표현해 보자.

2 왜 이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는지 말해 보자.

○ 자신이 찍은 사진을 아래의 카메라의 눈 기법이 사용된 「천변 풍경」의 부분을 참고하여 작품을 창작해 보자.

창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을 주었다. 한 이십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사이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히나 상쾌하다.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의,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미 웃을 놀지 않는 젊은이들이, 철망 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좌우로 돌려 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한다.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딱 재미스러웠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잘나만 보이는 것도 또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임바네스 입은 민 주사며, 중산모 쓴 포목전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 있는 취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은 이를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지절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그러는 각정이 떼들도, 이곳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댄,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

ccc

.....

.....

.....

.....

.....

.....

.....

.....

○ 학급에서 작품을 공유하고, 표현해 보자.

1 모둠 내에서 자신의 글과 상호 평가지를 돌리고 자기 평가를 해 보자.

평가 대상자 () 반 () 번 이름: ()

평가자 () 반 () 번 이름: ()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1. 이 작품이 드러내는 우리 학교의 세태(모습)는?

2.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평가자 () 반 () 번 이름: ()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1. 이 작품이 드러내는 우리 학교의 세태(모습)는?

2.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장점, 특징 등, 존중하며·구체적으로·도움이 되게)

평가자 () 반 () 번 이름: ()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1. 이 작품이 드러내는 우리 학교의 세태(모습)는?

2.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자기 평가 () 반 () 번 이름: ()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1. 이 작품이 드러내는 우리 학교의 세태(모습)는?

2.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2 자신의 작품을 교실 벽에 붙인 후, 돌아다니며 4개 이상의 작품을 보고, 포스트잇으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을 붙이자.

1:1 교차 인터뷰

「즐거운 편지」(황동규)

교과서 연계 단위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1 「즐거운 편지」(황동규)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주체적인 독자인 개인이 환경과 가치관, 취향, 관점에 따라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근거를 들어 작품에 대해 평가하여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감상’과 ‘비평’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1:1 교차 인터뷰 방식을 활용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 분석하고 작가의 의도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황동규의 「즐거운 편지」에 대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교과서 학습 활동 3번(104쪽)에 제시된 작가 인터뷰 내용과 읽기 자료를 통해 시의 의미를 깊이 있게 감상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시의 구절을 소개하기 위해 「즐거운 편지」의 감상과 비평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교차 인터뷰를 통해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적절한 추론 과정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와 문장 표현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활동으로 기획하였으나 모두 다른 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교사의 적절한 개입보다 학생의 반응 위주로 활동이 진행되기에 학습 목표 달성에 대해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즐거운 편지」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한 학급이 같은 작품을 감상하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작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과서 106쪽 여여 읽기에서 제시한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는 작품(백석의 시, 멧새 소리)’과 ‘주제가 유사한 작품(고재종의 시, 첫사랑)’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큰 오류가 없다면 학생들의 감상과 평가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작품의 내용과 형식 맥락을 고려한 감상과 비평 활동에 대한 경험이 문학의 재구성과 창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읽는 안목을 기르고 주체적인 수용 태도를 갖추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과 관점을 이해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자신의 처지와 관점,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한다. • 근거를 가지고 작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평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1, 2, 3, 4와 연계한 작품 감상 활동(103~105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명찰(기자), 포스트잇
토의·토론 방법	• 1:1 교차 인터뷰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영화 「편지」에서 주인공이 「즐거운 편지」를 낭송하는 장면을 보고 작품의 분위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영화 속에 시를 삽입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 시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 • 「즐거운 편지」에 대한 시 질문을 제시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며 단계별로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이해한다. •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태도에 주목하여 구절의 의미를 해석한다. •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에 주목하며 시를 감상한다. ▶ 작품에 대한 공감적 읽기 • 교과서 학습 활동에 제시된 작가 인터뷰 내용을 통해 작품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고, 사랑의 감정을 대하는 작가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자신의 직·간접 경험과 관련하여 시의 정서와 표현한 생각을 나눈다. ▶ 작품에 대한 비판적 읽기 • 읽기 자료로 제시된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읽고 비평문의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비평문이 독자가 작품을 감상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며, 비평문의 가치에 대해 토의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화자, 시적 상황, 정서와 태도, 표현 방법 등에 대해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드라마, 영화, 소설 속의 주인공 등을 떠올리며 간접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시적 화자의 감정과 비교해 보도록 안내한다. • 전문 비평가의 글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읽을 수 있는 읽기 자료를 통해 비평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리 (5분)	▶ 시를 소개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하고, 자신이 소개할 작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문학 작품을 다양한 층위에서 감상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를 소개하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하고, 미리 작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비평이 문학을 폭넓게 감상하는 주체적인 행위임을 이해한다. •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의 학습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이 소개할 작품을 선정해 오는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주지시킨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을 통해 문학 창작의 의의와 감상의 가치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한강의 시와 소설을 감상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문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개 (40분)	▶ 질문지 항목을 확인하고 개인 답변을 준비한다. • 질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질문의 의도를 이해한다. • 자신이 고른 작품에 대해 질문지의 답변을 작성하며 인터뷰 내용을 준비한다. ▶ 1:1 교차 인터뷰를 진행한다. •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한다. • 자신의 직접, 간접 경험과 관련하여 시의 정서와 표현한 생각을 나눈다.	• 답변의 내용에 대한 꼬리 질문을 만들어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적절한 근거를 밝힐 수 있도록 구성한다. • 교차 인터뷰의 구체적인 방법과 횟수는 교사가 학습의 특성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한다.

	▶ 활동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 다시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와 인터뷰 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모둠별 최고의 소감을 선정하고 발표하여 학급 구성원 전체와 공유한다.	• 구체적인 시의 내용보다는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의 차이와 문학 비평의 의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한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자신의 감상과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근거가 필요함을 설명한다. •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문학에 대한 감상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⁹⁾

(1) 1:1 교차 인터뷰란?

- 전통적인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의 하나이다.
- 수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제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질문 워크시트를 준비한다. • 학생 개인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시를 준비하고 인터뷰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을 구상한다.
② 교차 인터뷰 단계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사람이 기자 역할을 담당한다.('기자'라고 적힌 명찰 착용, 또는 포스트잇에 작성 및 부착) • 기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질문지와 필기도구를 가지고 교실 앞으로 이동한다. • 앉아 있는 사람 중 우리 모둠원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 인터뷰가 끝나면 '기자' 명찰(메모지)을 인터뷰를 받는 사람에게 물려준다. • 다시 '기자' 역할을 맡은 학생이 앞으로 이동하여 과정을 반복한다.
③ 감상 및 피드백	• 모둠으로 돌아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 개인이 인터뷰한 시의 내용을 다른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하며 듣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에 대한 감상과 비평을 친구들과 나눈 소감을 중심으로 공유 활동을 진행한다.
④ 정리 단계	• 주체적으로 문학을 감상하는 것의 가치와 의의를 정리한다. • 자신의 감상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활동 도움말	• 질문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두 사람의 역할을 서로 교차하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며, 서로 역할을 교차하는 동시에 대화 상대를 바꿀 수도 있다. 학습자의 수가 적다면 전자의 방법을, 역동적이고 흥미 있는 진행을 위해 후자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질문 워크시트는 필요에 따라 완성형이나 괄호형으로 준비할 수 있다. • 학습의 목표가 감상과 비평에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성 있는 반응을 존중하되, 교사는 인터뷰 공간을 순회하며 내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에 오류가 있거나 인터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대화 내용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활동지

교과서 101~106쪽

1:1 교차 인터뷰

시 인터뷰를 통한 문학 감상의 깊이 더하기

2단원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학년 반 이름:

○ 「즐거운 편지」를 읽고 사랑의 감정에 임하는 화자의 태도와 표현에 주목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자.

1 교과서 102쪽에 제시된 시를 감상하고 아래의 질문에 대해 답해 보자.

시의 내용에 대한 질문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시적 대상은 누구(혹은 무엇)인가요?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나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시의 표현에 대한 질문	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나요?(연과 행의 배치, 수미상관 등)	
	시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운율, 감각적 이미지, 함축적인 의미 등)	

2 학습 활동 3번(교과서 104쪽)에 제시된 작가의 인터뷰와 다음의 읽기 자료를 보고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자.

읽기 자료 1 ⁽¹⁰⁾

내 사랑은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매일 같이 변함없이 일어나서 사소해 보일 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굉장한 일이 또 있을까? 오늘 해가 지지 않으면, 오늘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큰일 아닌가? 그 엄청난 일이, 그것도 매일같이 벌어진다는 것은 실로 경이라고 해야 옳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화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다. 등 뒤에 서서 얼굴 한 번 제대로 비치지 못한 처지지만 그대에게 은근히, 그러나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다. 내 사소한 사랑이야말로 위대하지 않은가? 다만 늘 그대 뒤에 있기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하게, 늘 그대 앞은 배경에 있기에 그대가 몰라줄 뿐. 하지만 그대여, 그대가 찾는 위대한 사랑은 어디에 있을까? 당신은 굉장한 사랑을 찾고 또 기다리고 있는가? 그래, 당신은 장동건이나 이민호를 꿈꿀 수 있다. 당신은 고소영이나 수지를 꿈꿀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가 진정 어려운 일에 부닥쳐 한없는 괴로움에 빠질 때 그때 그대를 도울 사람, 그대가 의지할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극점에 빛나는 오로라도, 대양을 뒤집는 태풍도 아니다. 당신

이 온전히 빛나도록 배경이 되어 주는 해 질 녘 노을, 당신의 땀을 닦아 주는 바람일 게다. 당신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나는 그대의 등 뒤에서 벗어나 그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그대를 불러 보리라.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을 지켜 온 자이니 말이다. 그때 가거들랑 나를 인정하고 내게 의지하다. 나처럼 당신을 오랫동안 조용히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기다린 자라 있든가. 지금 사소해 보이는 내 존재가 과연 그때도 사소할 것이냐, 나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 당신을 지키는 그대 등 뒤의 사람인 것이다. (중략)

그러나 언젠가 그칠 사랑을 고백한다면, 연애시로서는 당혹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짝사랑의 상대에게 연애시를 바치면서 이런 문구를 넣는 의도는 자신의 성숙을 드러내 보이고자 함에 다름없다. 이 시의 대상이 연상의 여인이었다는 것은 그래서 흘러들을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자각이 과시용 거짓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인의 회상을 빌리면 처음에는 김소월이나 한용운류의 연애시를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랑도 선택이고, 중간에 그칠 수도 있고, 멈췄다가 또다시 다르게 시작될 수도 있고, 정으로 바뀌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 시작(詩作) 과정에서 깨달았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이 말이다. 그런 조숙과 자각이 없었으면 이 시는 세련된 연애시 이상의 수준을 넘기기 어려웠으리라.

열정으로 넘쳐 제어하기 힘들기 일쑤인 기쁜 우리 젊은 날, 황동규는 사랑을 순간의 감정으로 파악하지 않고 이처럼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연속성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이 시를 사적(私的)인 경지에서 승화시킬 수가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칠 것이다. 눈도 그치고 그러다 다시 퍼붓고 하는데 사랑이라고 다르랴. 다만 그때 그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따름이다. 사랑이, 이토록 열렬한 사랑이 그칠 것이라는 것 알지만, 그 기다림의 순정성만 있다면 떳떳할 수 있다. 반드시 그칠 줄 확실하는 것만큼, 지금 그대를 사랑하는 것도 분명한 일. 그래서 나는 지금 그대에게 이 사랑을 고백한다. 기다리겠노라고, 그 기다림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 편지는 ‘즐거운 편지’ 편지가 되는 것이다.

시의 감상에 대한 질문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시의 주제에 대해서 작가와 같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목을 ‘즐거운 편지’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음 시간 활동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시를 고르고 옮겨 써 보자.

ccc

읽기 자료 2 (11)

고등학생에게 추천하는 시

송승훈 선생님

개인 시집

김광규, 『안개의 나라』, 문학과지성사
 김남주, 『김남주 시전집』, 창비
 김남주, 『꽃 속에 피가 흐른다』, 창비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김용택, 『섬진강』, 창비
 도종환, 『부드러운 직선』, 창비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알에이치코리아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문학동네
 도종환, 『담쟁이』, 시인생각
 박노해, 『노동의 새벽』, 느린걸음
 박우현, 『그때는 그때의 아름다움을 모른다』, 작은숲
 배창환, 『내 생애의 별들』, 작은숲
 배창환, 『별들의 고향을 다녀오다』, 실천문학사
 브레히트, 『살아 남은 자의 슬픔』, 한마당
 서정호, 『58년 개띠』, 보리
 신경림, 『신경림 시전집 1』, 창비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시인생각
 안도현, 『외롭고 높고 쓸쓸한』, 문학동네
 양정자, 『가장 쓸쓸한 일』, 문학동네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와다리
 이시영, 『경찰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창비
 이시영, 『바람 속으로』, 창비
 이시영, 『하동』, 창비
 이용악, 『낡은 집』, 미래사
 임길택, 『탄광마을 아이들』, 실천문학사

정세훈, 『몸의 중심』, 삶창
 정세훈, 『우리가 이 세상 꽃이 되어도』, 푸른사상
 정일근, 『바다가 보이는 교실』, 창비
 정지용, 『향수』, 미래사
 정호승, 『수선화에게』, 비채
 정호승, 『흔들리지 않는 갈대』, 시인생각
 조항미, 『봄 꿈』, 산지니
 최두석, 『숨살이꽃』, 문학과지성사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이미출판사
 황지우, 『게 눈 속의 연꽃』, 문학과지성사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시선집: 여러 시인의 시를 엮은 책

강건후 외, 『선생님 시 읽어 주세요』, 창비
 김영찬 외, 『국어 선생님의 시 배달』, 창비
 김용택, 『시가 내게로 왔다 1-3』, 마음산책
 도종환, 『꽃잎의 말로 편지를 쓴다』, 창비
 도종환,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 나무생각
 이육근 외, 『칠판에 적힌 시 한 편』, 창비
 전국국어교사모임, 『국어시간에 시 읽기 1-4』, 휴머니스트
 전국국어교사모임, 『문학시간에 시 읽기 1-4』, 휴머니스트

시 해설책: 시를 설명하는 책

김이경, 『시 읽는 법』, 유유
 소래섭, 『우리 앞에 시적인 순간』, 해냄
 정재찬,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 인플루엔셜
 하상만, 『문학시간에 읽은 시』, 자이출판사

●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수상 소감⁽¹²⁾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폐하, 왕실 전하, 그리고 신사 숙녀 여러분.

제가 여덟 살이던 날을 기억합니다. 오후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도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처마 밑에 또 다른 작은 군중이 보였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제 팔과 종아리를 적시는 습기를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이 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촉촉이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면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니 이 경이로운 순간이 몇 번이고 되살아났습니다. 언어의 실을 따라 또 다른 마음 속 깊이로 들어가 또 다른 내면과의 만남.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실에 매달아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 그 실을 믿고 다른 자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이 던져온 질문이며,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인간으로 남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가장 어두운 밤,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묻는 언어,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과 생명체의 일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언어,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지니고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문학을 위한 이 상이 주는 의미를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 ‘한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학급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문학 창작’이란

내가 생각하는 ‘문학 감상’이란

1 준비한 시를 읽으며 질문지를 작성해 보자.

시의 내용에 대한 질문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가요?	
	시적 대상은 누구(혹은 무엇)인가요?	
	화자는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정서를 느끼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시의 표현에 대한 질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형식상의 특징이 있나요? (연과 행의 배치, 수미상관 등)	• 특징: • 나타난 부분: • 효과:
	시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운율, 감각적 이미지, 함축적인 의미 등)	• 특징: • 나타난 부분: • 효과:
시의 감상에 대한 질문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의 경험과 관련짓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표현할 것)	
	작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주제에 대해서 작가와 같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의 제목을 () 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2 1:1 교차 인터뷰 활동을 통해 친구와 시에 대한 감상을 나누어 보자.

■ 1:1 교차 인터뷰란?

듣기 중심의 수동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2인 1조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토의 학습 방법

■ 1:1 교차 인터뷰 방법

- ① 자신이 준비한 시를 바탕으로 질문지에 답변을 적으며 감상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단답형의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가 드러나게 답변 작성)
- ② 어깨짝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사람부터 기자 역할 진행
- ③ 자신의 모둠이 아닌 사람을 만나 시에 대한 감상 인터뷰 하기
- ④ 질문하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의 역할을 바꾸어서 2회 수행
- ⑤ 각 모둠에 돌아와서 인터뷰 소감 나누기

3 1번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1:1 교차 인터뷰를 진행해 보자.

인터뷰 1

시의 감상에 대한 질문	인터뷰 대상	이름:
	좋아하는 시 제목	
	작가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 '기자'의 창의적인 꼬리 질문	

인터뷰 2

시의 감상에 대한 질문	인터뷰 대상	이름:
	좋아하는 시 제목	
	작가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가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 ‘기자’의 창의적인 꼬리 질문	

4 원래의 모둠으로 돌아와 인터뷰를 진행한 소감을 말해 보자.

모둠 이름	모둠원 이름	인터뷰를 주고 받은 소감

5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과 정서에 공감하며 감상하였는가?	☆☆☆☆☆
2.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였는가?	☆☆☆☆☆
3. 1:1 교차 인터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엇박자 D」(김중혁)



교과서 연계 단위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작품 2 「엇박자 D」(김중혁)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상과 견해를 돕는 비경쟁 독서 토론 방식을 활용하여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상황과 인물, 작가의 표현 의도와 주제 의식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에 대해 주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토론 활동을 바탕으로 소설 이어쓰기 활동을 진행하여 작품에 대한 창의적 수용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급 약속을 만들고 서약하는 공동체 활동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이 특정한 질문이나 모둠에 몰리지 않도록 교사의 순회 지도와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학습 목표를 강조하여 동료 평가가 문학의 감상을 나누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되새기는 형성 평가의 일환임을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인 층위에서 감상하며 주체적인 독자로서 또한 문학 작품의 창작자로서의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품의 주제의식인 다양성의 가치와 존중의 미덕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자신의 처지와 관점,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한다. • 근거를 가지고 작품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평한다. •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감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1, 2와 연계한 작품 감상 활동(113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포스트잇(혹은 허니콤 보드)
토의·토론 방법	• 비경쟁 독서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친구에 대해 소개하는 소설을 읽고 자유롭게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볼 것임을 안내한다.	
전개 (40분)	▶ 질문 만들기를 연습한다. •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김중혁 작가의 작품인 「무용지물 박물관」을 읽고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도록 안내한다. ▶ 모둠을 구성하고 비경쟁 독서 토론의 방식을 안내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의 정의와 순서, 의의에 대해 안내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을 위해 학급에서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모듬지기를 선정한다. • 다 함께 소설 「엇박자 D」를 읽는다.	• 질문을 만들고 답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경쟁 토론과 대비되는 비경쟁 토론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책을 읽는 동안 순회하며 전체 학생의 독서 속도와 이해도를 점검한다.
정리 (5분)	▶ 비경쟁 독서 토론을 통해 소설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책 대화를 나누어 볼 것임을 안내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1차시에 읽은 작품의 간략한 줄거리를 정리하고, 독자의 가치관, 경험, 취향 등에 따라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전개 (40분)	▶ 브레인 라이팅을 통한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 소설에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고 모둠원들에게 소개한다. • 모둠원들이 적은 단어들을 관련 있는 것끼리 묶고 의미 단위로 연결하여 이야기 주제를 선정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의 단계에 따라 세 번의 토론을 진행한다. • 자신의 직접, 간접 경험과 관련하여 시의 정서와 표현한 생각을 나눈다. ▶ 활동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 다시 원래의 모듬으로 돌아와 비경쟁 독서 토론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모듬지기의 설명을 듣는다. • 비경쟁 독서 토론 과정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을 나눈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에 더하여 모듬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여러 면모를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 관찰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의 흐름에 적절하게 개입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터 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1차시에 학급 규칙을 선정하고 모듬지기를 뽑았으므로 미리 비경쟁 독서 토론의 운영 방법을 안내하거나 진행을 위한 도움 자료를 제공하여 토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희망 학생의 발표를 통해 논의의 내용과 소감을 학급 전체와 공유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을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다양한 생각과 관점의 차이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 같은 문학 작품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자발적인 독서 모임이나 독립 서점 등에서 열리는 독서 관련 행사에 대해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2차시 활동 중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주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 1, 2차시 활동을 통해 공감적, 비판적 감상을 나누었고, 소설의 장면 상상하기를 통해 창의적인 형태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표현하는 활동을 하게 됨을 설명한다.	• 작품을 감상하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읽는 안목을 기르고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추 수 있음을 강조한다.
전개 (40분)	▶ 소설의 주제 의식을 정리한다. •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의 주제 의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한다. ▶ 소설 이어쓰기를 한다. • 자신이 선택한 주제 의식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소설의 장면을 설정하고 소설의 내용을 상상하여 꾸며 쓴다. ▶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 모둠원들과 창작한 내용을 돌려가며 읽고 동료 평가를 시행한다.	• 독서 토론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실을 순회하며 지도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쓰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 의식을 표현할 수 있도록 친구의 작품에서 장점을 구체적으로 찾아 칭찬하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김중혁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 교사가 설명을 하고, 「엇박자 D」를 통해 어떻게 표현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학생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독후 활동의 가치를 강조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비경쟁 독서 토론이란?

- 함께 책을 읽고 토론에 필요한 질문을 각자 만든 다음,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둠을 만들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활동이다.
- 참여자 간의 평등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토론을 통해 나와 타인을 이해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공동체 형성	• 비경쟁 독서 토론을 위한 약속을 정하고 토론의 순서를 익힌다. • 모듬지기를 선정한다. • 함께 책을 읽는다.
② 이야기거리 만들기	• 책을 읽은 소감을 나누며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 모듬별로 이야기 나눌 주제를 선정한다.
③ 첫 번째 토론	• 모듬별로 책에 대한 느낌과 개인의 경험 공유하고, 첫 번째 질문을 만든다.
④ 두 번째 토론	• 각 모듬의 모듬지기가 학급 전체에게 첫 번째 질문을 소개한다. • 모듬지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질문을 만든 모듬으로 이동한다. • 모듬지기가 새로운 구성원에게 첫 번째 토론의 내용 소개한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토론을 마치며 논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 만들기
⑤ 세 번째 토론	• 각 모듬의 모듬지기가 학급 전체에게 두 번째 질문을 소개한다. • 모듬지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질문을 만든 모듬으로 이동한다. • 모듬지기가 새로운 구성원에게 두 번째 토론의 내용을 소개한다. •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다. • 토론을 마치며 논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세 번째 질문 또는 결론을 만든다.
⑥ 정리 활동	• 원래의 모듬으로 돌아가 모듬지기로부터 첫 번째 질문의 전개 과정에 대해 듣고 소감을 나눈다.
활동 도움말	• 브레인 라이팅을 진행할 때는 포스트잇이나 육각 자석 메모판(허니컴 보드) 등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교사가 순회 과정에서 모듬의 논의 정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한 키워드를 유목화시켜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모듬에서 이야기를 주도해나가는 모듬지거나 적극적인 학생은 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소수의 학생이 이야기를 독점하여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비경쟁 독서 토론의 의의에 반하는 것을 염려한다면, 토론 활동에 앞서 토킹 스틱을 배부하여 정해진 횟수 이상 발언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4 활동지

교과서 107~115쪽

비경쟁 독서 토론

비경쟁 독서 토론을 통한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문학 감상

2단원 (2)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학년 반 이름:

- 김중혁의 소설 「무용지물 박물관」을 읽고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 보자.

(작품 전체에 대한 설명: 교과서 115쪽 참조)

읽기자료 1

김중혁 소설, 「무용지물 박물관」 줄거리

광고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나는 메이비라는 남자로부터 청취자를 위해 선물로 증정할 라디오의 디자인을 의뢰받는다. 나의 아이디어로 작고 단순한 안테나의 형태로 제작된 라디오는 큰 인기를 얻고 메이비는 다음 작품을 의뢰한다. 자원봉사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방송의 청취자들을 위한 사은품을 기획해 달라는 것. 그의 방송에 호기심을 느낀 나는 ‘무용지물 박물관’이라는 코너를 찾아 듣는다.

그는 노란 잠수함, 보잉 707, 크리스마스 트리, 에펠탑과 암스테르담 등에 대해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그의 방송은 눈을 뜨고 있다는 이유로 무심정하게 지나쳤던 사물들,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진 감각과 가치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한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의 의뢰를 거절한다. 사물에 대해 메이비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읽기자료 2 (13)

압축

“결국 압축이 관건인 셈이군요.”

“압축하지 않는 건 죄악입니다. 디자인이든 삶이든 말예요. 너저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건 정말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나는 평소에는 잘 얘기하지 않던 나의 디자인론까지 들먹이면서 작은 것이 어쩌서 아름다운지를 설명했다. 그 뒤에도 한참이나 얘기를 늘어놓았지만 그는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히 내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역시, 그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가 주는 위압감을 견뎌내기 위해 나는 온갖 이야기들로 발버둥을 친 것이다. 나의 엉터리 같은 이야기 열 마디보다 그의 목소리가 주는 무게감이 훨씬 컸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무덤에 암전히 들어가 누워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압축은커녕 오후 5시의 그림자처럼 실제보다 몇십 배는 길어지고 말았다. (17~18쪽)

메이비의 라디오

메이비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용지물 박물관’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노트북 앞으로 갔다. 시각 장애인 라디오 사이트를 열어 메이비의 방송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메이비의 방송은 그날로 96회째였고 각 회마다 작은 글씨로 부제가 달려 있었다. 고층 빌딩, 캠퍼지, 만화책, 야구, 크리스마스 트리, 도서관, 공항과 같은 사물의 이름이 가득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페이지의 가장 아래쪽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은 바로 눈앞에 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된다.

나는 초대되지 않은 파티에 간 사람처럼 마음이 불편해졌다. 어쩐지 계속 눈을 감고 있어야만 할 것 같았다. 비틀즈의 노래가 끝나고 다시 메이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수함 설명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집에 있는 잠수함 모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비틀즈의 영화 『Yellow Submarine』에 등장했던 잠수함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만져 볼 수 있다면 좀더 이해가 쉬울 텐데 아쉽네요. 전체적인 모습은 입이 툭 튀어나온, 심술 맞은 물고기 같아요.”

노란 잠수함

“재미있다니 다행이다. 요즘 회사일이 너무 바빠서 자원봉사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럼 안 되겠네.”

“당연히 안 되지. 너같이 뛰어난 디자이너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디자이너라고?”

“물론이지, 넌 최고의 디자이너야.”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라디오 디자인’을 그만둔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메이비의 방송을 듣고 난 다음부터, 나는 디자인을 한다는 게 조금 씩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의 라디오 방송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내 안의 무엇인가가 조금 바뀐 것만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나는 디자인이란 통조림이라고 생각해 왔다. 통조림을 따는 순간부터 내용물은 썩기 시작한다. 디자인이 완성되어 제품이 출시되는 순간, 디자인은 이미 낡은 것이 된다. 하지만 메이비가 만들어 낸 디자인은 절대 썩지 않았다. 디자인이란 정말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 물론 답은 없다.

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

- 라디오 ‘무용지물 박물관’은 어떤 청취자를 위한 방송인가?
- ‘나’가 ‘메이비’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
-
-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는 질문

- 작가는 ‘나’와 ‘메이비’ 중에서 어떤 사람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을까?
- ‘모든 것은 바로 눈앞에 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된다.’는 구절의 의미는?
-
-
-

나와 세상에 던지는 질문

- 내가 생각하는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 직장인이자 사회인으로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
-
-

○ 비경쟁 독서 토론을 통해 「엇박자 D」를 읽은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자.

1 비경쟁 독서 토론에 대하여 알아보자.

■ 비경쟁 독서 토론이란?

함께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대화를 나누는 토론. 의견을 평가하거나 허점을 찾아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는 토론의 방식

■ 비경쟁 독서 토론의 단계

- ① 모둠 친구들과 브레인 라이팅을 통해 이야기거리 만들기
- ② 1차 토론 – 책을 읽은 자신의 소감과 경험을 나누고 첫 번째 질문 만들기
- ③ 모듬지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질문을 만든 모듬으로 이동
- ④ 2차 토론 – 모듬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질문 만들기
- ⑤ 모듬지기를 제외하고 자신이 관심 있는 질문을 만든 모듬으로 이동
- ⑥ 3차 토론 – 모듬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세 번째 질문 또는 결론 만들기
- ⑦ 원래의 모듬으로 돌아와 소감 나누기

2 비경쟁 독서 토론을 위한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자.

+ 활동 예시

비경쟁 독서 토론을 위한

2학년 1반의 약속

1. 진실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2.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3. 서로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4.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대신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5. 서로를 존중하는 곱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여 토론에 참여합니다.

202 . . .

학급 대표 _____ (서명)

● 브레인 라이팅

- 소설 '엇박자 D'를 읽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각각 메모지에 쓰고 모둠원에게 소개하세요.
- 모둠원들의 소개가 끝나면 관련 있는 단어들끼리 연결해 보세요.
- 앞선 활동을 바탕으로 모둠에서 대화를 나눌 대주제를 선정합니다. 모둠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키워드와 관련해 이야기거리를 정합니다.

우리 모둠이 선정한 대주제

● 첫 번째 독서 토론

- 1 모둠에서 선정한 대주제를 중심으로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말해 보자.

모둠 책 대화 메모하기

- 2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모둠 질문을 정해 보자.

우리 모둠이 선정한 질문

● 두 번째 독서 토론

내가 선택한 두 번째 토론의 질문은

모둠 책 대화 메모하기

1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모둠 질문을 정해 보자.

우리가 함께 만든 모둠 질문

○ 세 번째 독서 토론

내가 선택한 세 번째 토론의 질문은



모둠 책 대화 메모하기

1 독서 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나 책 대화의 결론을 써 보자.

책 대화를 통해 얻게 된 (질문/결론)은

○ 토론 소감 나누기

모둠 이름	모둠원 이름	독서 토론을 진행한 소감 /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소설 이어쓰기

1 「엇박자 D」의 주제는 무엇인지 써 보자.

내가 생각하는 「엇박자 D」의 주제는 이다.

그 이유는
 (이)기 때문이다.

2 주제를 잘 보여 줄 수 있는 소설의 장면을 상상해 보자.

새롭게 넣고 싶은 장면	
예시	• 고등학교 합창단으로 지원하는 엇박자 D • 음악 선생이 엇박자 D에게 자진 사퇴를 권했을 때 그의 반응 • 20년 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을 남몰래 준비하고 있는 엇박자 D의 모습 • 공연 뒤풀이 자리에서 합창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나와 엇박자D
내가 넣고 싶은 장면	

3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여 소설을 이어 써 보자.

소설을 이어 쓰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 이 소설은 서술자인 '나'의 회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 '-ㄴ(었/였/했)다' 형태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소설의 전반적인 흐름과 잘 어울리도록 합니다.

4 내가 창작한 부분을 모두 친구들과 돌려가며 읽고 평가해 보자.

동료 평가 시 유의사항

- 친구가 마음을 다해 작성한 글이니 독자인 나도 정성껏 읽습니다.
-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논의한 내용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 친구의 글에서 칭찬해 주고 싶은 장점을 찾아 메모지에 적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한 근거를 들어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글을 다 완성하지 못한 친구의 글에도 주제를 선택, 문장 표현, 혹은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자 노력한 점 등에 대해서 칭찬을 남겨 주세요.

수업 성찰 일기

오늘 문학 시간에는 소설에 대한 공감적, 비판적 감상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주제를 표현해 보는 소설

 어 쓰기 활동을 했다.

월드 카페 토론

「홍보가」(작자 미상)



교과서 연계 단원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 · 창작

작품 2 「홍보가」(작자 미상)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이 과거에서 현대 사회로 왔다는 설정으로 진행되는 월드 카페 형식의 창작적 토론 활동이다. 학생들은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을 탐구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서사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8개 주제의 카페를 순회하며 「홍보가」,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등 고전 소설을 골라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한다. 각 카페에서는 주인공의 성격과 가치관, 작품의 주제 의식, 주요 등장인물들의 관계, 시공간적 배경, 서술 방식과 표현 기법, 사건의 구성(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등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방안을 토론한다. 각 카페의 카페지기는 이전 참여자들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새로운 참여자들과 함께 즐거움을 발전시키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접목한다. 학생들은 월드 카페 토론을 통해 도출된 창작안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고전 소설의 현대적 재구성 작품을 창작한다. 완성된 작품은 학급 전체와 공유하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고전 소설의 줄거리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각 고전 소설의 핵심 주제와 갈등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활동을 진행한다. 둘째, 카페별 토론이 단순한 현대화가 아닌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재해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셋째,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고전 소설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으로 창작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월드 카페 토론을 통해 고전 소설의 재구성 방안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 고전 소설을 재구성하여 창작한 작품을 공유하며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3, 4(135~137쪽)
준비 자료	• 이젤패드, 포스트잇, 사인펜
토의·토론 방법	• 월드 카페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고전 소설의 현대적 재해석 사례를 살펴본다. • 유튜브, 웹툰, 영화 등 다양한 매체의 사례 제시한다. ▶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월드 카페 토론 방식을 안내한다.	• 학생들이 고전 소설 재해석의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도록 흥미로운 사례를 제시한다. • 월드 카페 토론의 단계와 규칙을 명확히 안내한다.
전개 (40분)	▶ 1차 월드 카페 토론(15분) • 8개의 카페(홍보가,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카페를 각 2개씩)를 만들고, 자신이 재구성하고 싶은 고전 소설 카페로 이동한다. • 재구성할 주인공의 성격, 작품의 주제 의식, 등장인물, 시·공간적 배경, 서술 방식과 표현 기법 등을 논의한다. ▶ 2차 월드 카페 토론(15분) • 사건의 구성(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을 논의하여 고전 소설을 재구성한다. ▶ 3차 월드 카페 토론(10분) • 1~2차 토론 내용 점검하고,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사항을 논의한다.	• 구체적인 고전 소설 작품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에서 학습한 작품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카페지기는 토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수업 전에 카페지기를 선정하여, 따로 카페지기가 해야 할 역할을 안내하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 단순한 현대화가 아닌 작품의 본질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 모든 학생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정리 (5분)	▶ 각 카페의 토론 내용을 전체와 공유한다. ▶ 다음 차시 활동을 예고한다.	• 각 모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격려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이전 차시 학습 내용을 확인한다. ▶ AI를 활용한 창작 활동 방법을 안내한다.	• 토론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을 상기시킨다. • AI 활용 시 유의 사항을 명확히 안내한다.
전개 (40분)	▶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AI 프롬프트를 작성한다.(15분) • 주인공의 성격, 주제, 등장인물, 배경, 서술방식, 사건의 구성 등을 정리하고, AI 프롬프트를 작성한다. ▶ AI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한다.(15분) •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결과물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 온라인 공유 문서에 결과물을 입력하고 공유한다.(10분) • 공유 문서에 게시된 모둠별 작품을 함께 읽고, 다른 모둠의 작품에 대해 댓글로 감상을 나눈다.	• AI 프롬프트 작성 시 지난 시간 토론 내용이 잘 반영되도록 한다. •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수정·보완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 작품의 우수한 점을 중심으로 감상을 나누고, 댓글 작성 시 예의를 갖추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정리한다. • 친구들의 경험을 듣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점검표 작성을 통해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도록 한다. • 활동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월드 카페 토론이란?

- 카페와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둠별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토론 활동이다.
- ‘지식과 지혜는 딱딱한 회의실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의 대화를 통해 생성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 카페지기과 손님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며, 손님들이 카페 간 이동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4~5명으로 모둠을 구성한다. • 8개 주제의 카페를 설치(전지, 포스트잇, 사인펜 준비)한다. • 각 모둠에서 카페지기 1명을 선정한다.
② 토론 단계	• 각자 원하는 카페로 이동하여 여러 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카페지기과 손님역할은 다음과 같다. [카페지기 역할] • 토론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 새로운 참여자들에게 이전 토론 내용 설명한다. •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진행한다. •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손님 역할] • 각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한다. • 다른 참여자의 의견 경청한다. • 이전 카페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카페에 연결한다.
③ 정리 단계	• 카페지기는 각 카페의 최종 토론 결과 공유한다. • 교사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피드백한다.
활동 도움말	• 카페지기는 카페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모든 의견을 전지와 포스트잇에 기록하여 시각화한다. • 토론 시간은 각 차시별로 10~15분이 적당하다. • 카페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 있게 이동한다.

4 활동지

교과서 127~139쪽

월드 카페 토론

시간 여행 문학 다방

2단원 (3) 문학과 매체, 작품의 재구성·창작

학년 반 이름:

● 고전 소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창작하려 한다. 월드 카페 토론을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창작 활동을 해 보자.

시간 여행 문학 다방 월드 카페 토론 방법 안내

[월드 카페 토론이란?]

월드 카페 토론은 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대화하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입니다. 우리는 고전 소설 속 인물들이 현대 사회에 시간 여행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합니다. 카페지기는 카페에 남아 토론 내용을 기록하고, 손님은 다른 카페로 이동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토론 방법]

1. 역할 나누기

- 카페지기: 카페를 지키며 토론을 이끌고 기록하는 사람
- 손님: 다양한 카페를 돌아다니며 아이디어를 나누는 사람

2. 카페 선택하기

- 8개의 카페가 있습니다(홍보가 A/B, 심청전 A/B, 춘향전 A/B, 홍길동전 A/B)
- 여러분이 재구성하고 싶은 작품의 카페를 선택해 주세요.

3. 순차적으로 토론 진행하기

- ① 1차 토론(15분): 인물, 배경, 주제, 서술 방식과 표현 설정하기
- ② 다른 카페로 이동하기
- ③ 2차 토론(15분): 사건의 구성(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설정하기
- ④ 다른 카페로 이동하기
- ⑤ 3차 토론(10분): 초안을 점검하고 수정·보완하기

[참여자 역할]

1. 카페지기가 해야 할 일

- 카페의 토론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 새로운 손님이 오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 모든 손님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 토론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2. 손님이 해야 할 일

- 각 카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눠 주세요.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 주세요.
- 이전 카페에서 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새로운 카페에 공유해 주세요.

1 나의 역할을 정하고, 손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관심 있는 카페로 이동해 보자.

(1) 나의 역할: 카페지기 / 손님

(2) 카페 배치도



(3) 작품 주요 요소 정리⁽¹⁴⁾

홍보가

- 작가: 작자 미상
- 갈래: 판소리
- 주제: 권선징악, 형제 간의 우애, 계층 간의 갈등
- 줄거리

충청·전라·경상도 접경에 놀보와 홍보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인 놀보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홍보를 내쫓는다. 홍보는 아내와 여러 자식을 거느리고 움집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 갖은 고생을 하면서 묵묵히 살아간다. 그러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여도 홍보의 살림은 여전히 가난하기만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홍보는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새끼제비를 주워다가 정성껏 돌본 끝에 날려 보낸다. 이듬해에 그 제비는 홍보에게 은혜를 갚고자 박씨 한 개를 물어다 주었는데, 가을이 되어 잘 여문 박을 거두어 켜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속에서는 온갖 눈부신 보물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와 홍보는 하루 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것을 안 놀보가 홍보에게 달려와 벼락부자가 된 자초지종을 듣고는 자기도 새끼제비 한 마리를 잡아다가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린 뒤 실로 동여매어 날려 보낸다. 그 제비 또한 이듬해 봄에 박씨를 물어다 주었다. 그러나 놀보가 심어서 거둔 박 속에서는 온갖 괴물이 나타나 그의 재산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두 빼앗기고 그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마음씨 고운 홍보는 이 소식을 듣고 놀보를 데려다 지성으로 봉양하고 놀보는 개과천선하여 함께 행복을 누렸다.

- 재구성 예시: 형 놀보는 대기업 임원, 홍보는 착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가

심청전

- 작가: 작자 미상
- 갈래: 판소리계 소설
- 주제: 부모에 대한 심청의 지극한 효성, 권선징악, 인과응보
- 줄거리

송나라 말년 황주 도화동이란 곳에 심학규라는 봉사가 곱씨 부인과 살고 있었다. 곱씨 부인은 심청을 낳은 후 7일 만에 죽고 만다. 마을 사람들은 심 봉사를 측은히 여겨 심청에게 젖을 먹여 준다. 심청은 건강하게 자라나 십오 세에 이르러서는 길쌈과 삶바느질로 아버지를 극진히 공양한다. 어느 날 늦게 귀가하는 심청을 찾아 나선 심 봉사는 실족하여 그만 웅덩이에 빠지는 봉변을 당한다. 이때 마침 몽운사 화주승이 그를 구해 주고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하자, 심 봉사는 시주하겠노라고 서약하고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것을 알게 된 심청은 남경 상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시주한다. 행선날이 되어서야 심청이 아버지에게 사실을 고하며 하직 인사를 하자 심 봉사는 실신한다.

남경 상인들의 배를 타고 심청은 인당수에 뛰어든다. 바닷속에서 심청은 용궁으로 모셔지며 후한 대접을 받고 연꽃 속에 들어가 다시 인간계로 돌아온다. 남경 상인들은 바다에 떠 있는 연꽃을 이상히 여겨 천자에게 바친다. 천자는 연꽃 속에서 나온 심청을 아내로 맞이하고, 황후가 된 심청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맹인 잔치를 벌인다. 심청이 떠나고 난 뒤 뽕덕 어미와 같이 살던 심 봉사는 잔치 소문을 듣고 황성으로 향한다. 심 봉사는 도중에 뽕덕 어미의 농간으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맹인 잔치에 참석하여 황후가 된 심청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된다.

- 재구성 예시: 교통사고로 시각 장애인이 된 아버지의 수술비를 위해 신약 임상 실험에 참여하는 의대생 심청

춘향전

- 작가: 작자 미상
- 갈래: 판소리계 소설, 애정 소설
- 주제: 춘향의 굳은 정절과 신분적 제약을 벗어난 사랑,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줄거리

성 참판과 퇴기 월매 사이에 미모와 재주가 뛰어난 춘향이 출생했다. 남원 부사의 아들 이몽룡이 광한루에 구경 나왔다가 향단과 함께 그네를 뛰는 춘향을 보고, 그 자태에 반해서 그 날 밤 춘향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춘향 집을 찾아가던 이 도령은 월매 앞에서 춘향과의 백년 가약을 맹세하고 허락을 받아 내었다. 둘은 밤마다 깊은 사랑에 빠져 지내던 중, 이 부사가 서울로 영전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된다.

새로 부임한 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들 것을 강요하자 춘향은 죽기를 맹세하고 항거하다가 형장을 맞고 하옥된다. 한편, 서울로 올라간 이 도령은 과거에 급제하여 전라도 암행 어사가 되어 내려온다. 어사가 거지꼴로 변장하고 춘향의 집을 찾아가자 월매가 푸대접을 한다. 어사는 변 사또의 생일 잔치날, 각 읍 수령이 모인 틈을 타 어사출두를 단행하고 변 사또를 봉고 파직한다. 춘향은 어사가 몽룡인 것을 확인하고 월매와 더불어 크게 기뻐한다. 어사는 춘향을 데리고 상경하여 부부로서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린다.

- 재구성 예시: 지역 환경 단체 활동가로 개발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환경 운동가 춘향

홍길동전

- 작가: 허균(조선 중기 문신이자 소설가)
-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사회 소설
- 주제: 불합리한 사회 제도 개혁과 이상 사회 추구
- 줄거리

홍길동은 홍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 태어난 서자이다.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학식과 도술이 뛰어났으나 서자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았다. 어느 날 홍 판서의 첩인 초란의 음모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도술로써 위기를 벗어난 후 집을 떠나게 된다. 정치 없이 방랑하다가 도적들과 겨루어 도적의 괴수가 된 길동은 활빈당이라 이름 짓고 해인사, 각 지방의 토호들과 탐관오리들을 찾아가 불의의 재물을 탈취한 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라에서 길동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나 길동의 도술을 당해 내지 못하고, 결국 조정에서는 홍 판서와 길동의 형을 인질로 잡아 두게 된다. 길동은 왕에게 병조 판서의 자리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아 낸다. 그는 궁궐에 들어가 왕을 알현하고 벼 천 석을 요구하여 배에 싣고 섬나라 울도국에 들어간다. 그곳의 요괴를 무찌르고 왕이 된 길동은 이상적인 정치를 펼치다가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다.

- 재구성 예시: 대기업 회장의 비밀스러운 사생아이자 화이트 해커 홍길동

2 월드 카페 토론을 하며 고전 소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토론 단계	재구성 요소		내용
1차 토론 (15분)	작품 명		
	주제		
	주인공의 성격		
	등장 인물		
	시간적·공간적 배경		
	서술 방식과 표현		
2차 토론 (15분)	사건의 구성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3차 토론 (10분)	점검 질문		• 원작의 핵심 가치나 주제 의식이 현대적으로 잘 반영되었나요? •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현대적 맥락에서 개연성이 있나요? •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나요? • 갈등 해결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나요? • 선택한 서술 방식이 이야기 전달에 효과적인가요? •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가요? • 더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월드 카페 토론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고전소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창작한 소설을 만들어 보자.

1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모둠원과 생성형 AI에 입력할 프롬프트를 구성해 보자.

소설 창작 프롬프트 예시

[요청 사항]

당신은 대한민국 최고의 패러디 소설 창작 전문가입니다. 당신의 소설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 설정에 맞게 2000년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홍보가'를 재해석한 2,000자 분량의 단편 소설을 써 주세요.

[세부 설정]

- 주인공: 연홍보(32세), 사회적 기업 '착한인공지능' 대표
 - 성격: 따뜻한 마음씨, 혁신적 사고방식
 - 신념: 이윤보다 가치 중시, 상생 경영
- 형 놀보: 연놀보(42세), 대기업 영업 본부 임원
 - 성격: 성과 지향적, 이기적
 - 특징: 회사 성과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음.
- 시간적 배경: 2024년 봄~겨울
- 공간적 배경: 서울 성수동 소재 사회적 기업 사무실, 강남 대기업 본사

[주요 사건]

- 발단: 연홍보가 IT 업계의 열악한 근무 환경(996 근무, 크런치 모드)을 개선하고자 'AI 스타트업'을 차리겠다고 선언하자, 형 연놀보가 이를 비웃으며 갈등이 시작됨.
- 전개: 연홍보가 성수동에 '착한인공지능' 회사를 차려 SI 업계에서 고통받는 청년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업계 최저 연봉이지만 워라벨을 보장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 감.
- 위기: '착한인공지능'은 연봉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져 회사 운영이 힘들어지고, 연놀보는 이를 예견했다는 듯 "알고리즘 못 짜는 놈들은 도태되는 거"라며 비웃음. 게다가 아버지가 남긴 USB의 소스코드로 홍보를 더욱 압박함.
- 절정: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원들과 함께 개발한 '효도 AI' 챗봇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둠. 노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요양원에서 대기가 생길 만큼 인기를 얻으며 회사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함.
- 결말: '효도 AI'의 성공으로 홍보의 '착한 경영'이 주목받기 시작함. 반면 놀보의 P그룹은 과도한 업무 강도로 인한 직원들의 이탈로 위기를 맞음. 이때 홍보가 개발한 AI 기술을 공유하며 형을 돕고, 형제는 진정한 화해를 이룸.

[서술 방식과 표현]

1. 해학적 요소

- 현대의 신조어와 밈을 적절히 활용해 주세요.
- 과장된 상황 묘사로 웃음을 유발해 주세요.
- 반어법과 역설을 활용한 유머를 넣어 주세요.

2. 풍자적 요소

-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위트있게 비판해 주세요.
- 은유와 상징을 활용한 간접적 비판을 해 주세요.
-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세요.

[강조할 점]

- 원작의 권선징악 주제를 현대적으로 해석
- 청년 실업, 노동 문제 등 현실적 이슈 반영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의 가치 강조

결과물 예시

“형... 제가 이번에 AI 스타트업을 차리려고요.”

강남 P그룹 본사 라운지. 연놀보 영업 본부장은 5만 원짜리 ○○호텔 아메리카노를 마시다 말고 동생을 쳐다봤다.

“너 진짜 방구석 코딩만 하더니 미쳤니? GPT도 모르는 놈이 무슨 AI를 한다고? 우리 회사 개발팀 워라밸이 어떤 줄 알아? Work & Rest & Life Balance! 일하다가, 쉬다가, 또 일하고!”

그러나 연홍보는 고개를 저었다.

“형, 농담 아니고 진지하게 들어 보세요. 요즘 개발자들 너무 힘들어요. 996 근무[★]에, 크런치 모드[★]에... 심지어 ‘SI 노비’[★]란 말까지 있다던데…….”

“아니, 그게 네가 책임질 일이야? 세상은 원래 적자생존이야. 알고리즘 못 짜는 놈들은 도태되는 거고.” 연놀보는 동생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웃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코드 한 줄 제대로 못 짰잖아. 아버지가 남긴 USB에 있는 소스코드도 다 내가 관리하는 게 그래야.”

그렇게 시작된 연홍보의 ‘착한 AI’ 프로젝트. 성수동의 허름한 사무실(네이버도 구글도 이런 차고에서 시작했다고 위안하며)에서 시작한 이 작은 회사는 SI 지옥에서 탈출한 청년 개발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대표님, 진짜 야근 없어요? 저희 전 회사는 ‘WLB’가 ‘Work Like Bug(벌레처럼 일해라)’였거든요…….” 면접장에서 만난 청년 개발자들의 다크서클은 이미 검은색에서 보라색으로 진화해 있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진짜 ‘AI’를 추구하는 회사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fternoon Inn(오후에는 집)이죠!”

직원들은 웃었다. 연봉이 업계 최저였지만, 착한 AI에는 웃음이 넘쳤다. 밤샘 코딩 대신 페어 프로그래밍이 있었고, 버그를 만들어도 ‘버그 파티’(피자 먹으며 다 같이 디버깅)가 열렸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청년들이 만든 ‘효도 AI’ 프로그램이 세상에 나왔다. 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 주는 AI 챗봇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잔소리와 녀살도 완벽하게 구현했다.

“뭘? 잔소리하는 AI라고? 말도 안 돼. 우리 P그룹의 AI는 업무 효율성 200% 향상! 직원 행복 지수 -200%야!”

코웃음 치던 형 놀보의 입이 떡 벌어진 건, 효도 AI가 대박이 나면서부터였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졌고, 요양원에서는 대기 순번까지 잡혀 갔다.

(후략)

★996 근무: IT기업에서 직원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까지 일하게 하는 근로 관행

★크런치 모드: 업무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것

★SI: System Integration, 고객이 요청하는 ‘시스템’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개발과 구축 전반을 담당하는 업무

2 모둠원과 생성형 AI로 작성한 초안을 읽고, 수정·보완해 보자.

점검 질문	점검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
1. 원작의 핵심 가치나 주제 의식이 현대적으로 잘 반영되었는가?	☆☆☆☆☆	
2.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이 현대적 맥락에서 개연성이 있는가?	☆☆☆☆☆	
3. 사건들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가?	☆☆☆☆☆	
4. 갈등 해결 과정이 설득력 있게 전개되는가?	☆☆☆☆☆	
5. 의도한 서술 방식과 표현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가?	☆☆☆☆☆	
6. 우리 시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인가?	☆☆☆☆☆	
7.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표현은 없었는가?	☆☆☆☆☆	
8. 부자연스러운 설정은 없었는가?	☆☆☆☆☆	
9. 그 외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는가?	☆☆☆☆☆	

3 완성된 작품을 온라인 공유 문서 도구에 게시한 뒤, 다른 모둠의 작품을 읽고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어 보자.

▣ 인상적인 부분, 궁금한 부분,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세요.

- 원작의 재해석: 현대적 해석이 참신한 부분, 원작의 의미를 잘 살린 부분
- 표현의 묘미: 인상적인 대사나 장면, 재미있는 표현이나 설정,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표현이나 설정
- 공감되는 요소: 현실감 있는 설정, 공감되는 인물이나 상황

예시 댓글 “주인공을 IT 업계 종사자로 설정한 것이 현대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특히 ‘워라밸’을 재치 있게 표현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여 주면 더 깊이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4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월드 카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건설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는가?	☆☆☆☆☆
2. 원작의 가치를 이해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는가?	☆☆☆☆☆
3. 인물, 배경, 사건을 창의적으로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했는가?	☆☆☆☆☆
4. 다른 모둠의 작품을 주의 깊게 읽고, 친절하고, 구체적이며,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남겼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교차조사(CEDA) 토론

「찬기파랑가」(충당사)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1) 서정 갈래

작품 3 「찬기파랑가」(충당사)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교차조사(CEDA) 토론을 활용하여 국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흔히 한국 문학을 한국인이 한국인의 생활과 정서를 표현한 문학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한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를 향유하며 시공간, 세대와 민족, 계층과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시대에 이러한 한국 문학의 정의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가치수직선 토론을 활용하여 보다 간략한 방식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주체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차조사 토론의 논제로 다문화, 세계시민, 인공지능 등 현대 문학과 예술 창작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담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한국 문학의 범주와 같이 일원화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떠한 작품을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논지를 세우고 논거를 마련하며 상대방의 의견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을 진행하며 문화와 예술, 사회에 이르는 시각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 문학의 가치와 바람직한 향유 방법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K-컬처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문학의 범위와 현재 위치,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학습 활동 4와 연계한 탐구 활동(159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 교차조사(CEDA) 토론

1차시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 전문과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향가와 개별작품에 대해 교사가 강의식 수업 진행을 진행하여 문학의 이해에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차자 표기인 향찰로 표기된 향가를 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논의한다. ▶ 활동지에 제시된 읽기 자료를 활용하여 영화 「미나리」의 국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 읽기 자료 (가)는 영화의 즐거리를, (나)는 골든 글로브 외국어영화상 후보 선정에 대한 논란을, (다)는 이러한 논란으로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개 (40분)	▶ 한국 문학의 범위에 관하여 학습한다. • 한국 문학의 범위에 관한 교과서의 설명을 정리하며 학습 내용을 되짚어 본다. • 창작 주체, 내용, 언어 표현 등이 한국 문학의 정의와 벗어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가치 수직선 모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척도로 나타내고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교차조사 토론을 위한 준비 과정 1 • 교차조사 토론의 정의와 절차에 대해 학습한다. • 논제 분석하기, 질문 만들기 과정을 연습한다. • 논제 제시에 앞서 찬반 역할을 정한다. ▶ 교차조사 토론을 위한 준비 과정 2 • 각 모둠에서 논의할 논제를 선정하고 학급 전체와 공유한다. • 어깨짝과 함께 논제 분석 활동지를 작성한다.	• 여러 차시에 걸쳐 토론 학습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가치 수직선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다. 가치 수직선 토론은 수직선 위에 자기가 생각하는 정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그 까닭을 설명하는 토론 방식이다. 가치 판단이 필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개인 학습지를 작성하거나 칠판에 수직선을 그리고 학생들이 메모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여 학급 전체와 생각을 공유할 수도 있다. • 한국 문학을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에 대한 의견을 논점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성 있는 조건을 담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5분)	▶ 다음 시간에 모둠별 논제로 디베이트 토론 실습이 이루어질 것임을 안내한다. • 어깨짝과 함께 토론의 절차에 대해서 익히고 논제 분석 활동지를 바탕으로 서로 생각을 나누고 토론을 준비할 것을 주지시킨다.	• 수업의 전개와 정리 과정 중, 토론을 위해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필요하다면 전자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나 기사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3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집단 지성'에 대한 읽기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을 통해 추상적인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개념을 가지게 될 것임을 안내한다.	
전개 (40분)	▶ 교차조사 토론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 • 역할에 따른 자리 배치 여부, 논제분석 활동지 작성에 대해 점검한다. • 미흡한 부분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한다. ▶ 교차조사 토론을 진행한다. • 교사의 사회로 모든 모둠이 동시에 토론을 진행한다. ▶ 모둠 토론에 대한 경과와 감상을 나눈다. • 각 모둠별 논제와 논의과정을 요약하여 학급 전체와 공유한다. • 활동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을 통해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논의해 보는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 각자 수업 성찰 일기를 작성하며 배우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 토론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경우 토론의 전 과정을 녹음하여 소리를 글자로 변환하고,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토론의 흐름에 적절하게 오탈자를 수정하여 대본의 형태로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논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쓰는 형태의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정리 (5분)	▶ 다음 차시 학습을 예고한다. • 향가에 이어 고려 속요 「정석가」를 학습하며 갈래적 특성과 참신한 발상에 대해 살펴볼 것임을 안내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교차조사(CEDA) 토론이란?

- 미국의 교차조사토론협회의 이름을 딴 토론법으로 주로 정책 명제를 다룬다.
- 입론과 반론 사이에 조사(반대 신문)를 위한 질문이 들어가 토론에 긴장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교차조사 토론 발언 순서 및 시간
 - 본 토론을 15분 전후로 수행할 수 있어 준비 학습과 정리 학습이 한 차시에 가능하다.
 - 원래의 교차조사 토론은 두 번의 반박으로 끝나지만, '답변 및 마무리'로 마지막 순서를 변형하여 재반박을 하지 않고 자신 팀의 논점을 요약하고 초점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긍정 팀	부정 팀
1. 긍정 측 입론(A1) [a1] – 1분	
	2. 부정 측 교차조사 질문(B2) [b3] – 1분
	3. 부정 측 입론(B1) [b1] – 1분
4. 긍정 측 교차조사 질문(A1) [a3] – 1분	
숙의(작성) 시간 – 1분	
5. 긍정 측 입론(A2) [a2] – 1분	
	6. 부정 측 교차조사 질문(B1) [b1] – 1분
	7. 부정 측 입론(B2) [b2] – 1분
8. 긍정 측 교차조사 질문(A2) [a1] – 1분	
숙의(작성) 시간 – 1분	
	9. 부정 측 반론(B1) [b3] – 1분
10. 긍정 측 반론(A1) [a3] – 1분	
	11. 부정 측 답변 및 마무리(B2) [b2] – 1분
12. 긍정 측 답변 및 마무리(A2) [a2] – 1분	

[] 안의 소문자는 3 : 3(6명) 모둠의 경우임.

자리 배치 방법

교탁

A1 ▽	A2 ▽
▲ B1	▲ B2

A1 ▽	A2 ▽
▲ B1	▲ B2

A1 ▽	A2 ▽
▲ B1	▲ B2

A1 ▽	A2 ▽
▲ B1	▲ B2

A1 ▽	A2 ▽
▲ B1	▲ B2

A1 ▷	◀ B1
A2 ▷	◀ B2
A3 ▷	◀ B3

A1 – 긍정 팀 첫째 토론자 / B1 – 부정 팀 첫째 토론자
A2 – 긍정 팀 둘째 토론자 / B2 – 부정 팀 둘째 토론자
A3 – 긍정 팀 셋째 토론자 / B3 – 부정 팀 셋째 토론자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교차조사 토론에 대해 안내하고 특징과 순서를 설명한다. - 앉은 자리대로 모둠을 짜되 역할을 정확하게 알도록 손을 들어 역할을 확인한다.
② 논제 분석	- 논제가 담긴 활동지를 받고 논제를 분석하며 팀별 작전 회의를 진행한다. - 작전 회의 동안 입론과 질문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③ 교차조사 토론	- 사회자를 따로 두지 않고 교사가 학급 전체의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자를 A1, B1 등으로 불러 순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한다.
④ 정리 단계	모둠 토론의 경과와 소감을 발표한다.
활동 도움말	- 원활한 교차조사 토론을 위해서는 논제 분석, 질문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교차조사 토론 전에 간단한 형태의 활동을 통해 토론 활동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 활동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정해진 자리가 있으므로 입장과 역할에 따라 발언을 하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할 수 있다. - 발언이 짧게 끝난 모둠이 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팀 작전을 짜는 시간을 보내고 전체 학급의 토론 순서를 지킬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청중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입장을 골라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디자인하였다. 학교급의 상황에 따라 찬반의 역할을 맡은 대표 학생이 토론을 진행하고 다른 학생들이 청중과 평가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또 토론의 사회자, 감독, 시간 계시원, 기록원, 심판(판결문 작성), 기자(사진, 기사 작성) 등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학급 전체가 토론의 참여자가 되도록 구성할 수도 있다.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한 생각 나누기

2단원 (1)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학년

반 이름:

영화 「미나리」는 한국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읽기 자료

가 “미나리는 어디서든 잘 자라”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난 한국 가족.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 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예리)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함께 살기로 하고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씨를 담은 할머니가 도착한다. 의젓한 큰딸 ‘앤’(노엘 케이트 조)과 장난꾸러기 막내아들 ‘데이빗’(앨런 김)은 어느 그랜마 같지 않은 할머니가 영 못마땅하다 함께 있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어느 가족의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된다!

나 ⁽¹⁵⁾

「미나리」와 영화의 국적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수여하는 골든글로브상에서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선정되며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나리」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미국 회사이고 한국계 미국 감독이 한국계 미국인 배우와 한국 배우들을 기용해 만든 자전적 이민 가족 이야기다. 이미 수많은 영화제에서 최대의 관심을 받던 ‘미국’ 영화였는데 골든글로브가 오스카상의 국제영화상과 유사한 범주인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올렸고, 그 결과 작품상 수상이 불가능해졌다. 한국어가 절반 이상인 영화이지만, 한 영화의 국적을 규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미국 영화라고 분류하는 것이 합당한 상황에서 내려진 이러한 결정에 대해 미국 내 언론들이 앞장서 비판, 자성, 반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어가 더 많이 쓰였던 영화가 작품상에 오른 적이 있으므로 「미나리」를 배제한 골든글로브의 결정은 단순히 한국어가 영어보다 많이 사용됐다는 근거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다. 이 결정은 미국 영화와 미국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뉴욕의 이탈리아인과 아일랜드인 이민사를 다룬 수많은 갱스터 영화들은 미국 영화이고, 한국 가족의 이민 스토리는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린다고 외국 영화일까? 아시아계 영화인들과 일부 언론은 이것이 영어 사용만의 문제가 아닌 인종 차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후략)

다 (16)

사람의 감정을 조립할 수 있을까?

미나리는 어디서든 자란다.

두 사람이 불과 싸우는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고 할 뿐, 아무리 영화를 곱씹어 보아도 이게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사람의 영화인지, 미국 사람에 대한 미국 사람의 영화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은 도통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이삭’보다 ‘아이작 청 Issac Chung’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는 감독이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은 우리와 다르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라고 단정 짓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는 고난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경험을 그린 빼어난 예술 작품을 못 알아보게 하는 눈가리개였을 것이다.

ccc

나는 영화 「미나리」의 국적

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교과서 150쪽을 읽고 학계에서 정의하는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정리해 보자.

한국 문학이란?	창작 주제	
	내용	
	형식	

2 아래의 작품을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사례	
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노동 현실과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 생각한 바를 한글로 쓴 시
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국인이 영어로 쓴 수필
다	시가 6.25 전쟁을 배경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를 서술자로 하여 창작한 한글 소설

3 가치 수직선 토론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척도	
사례	-2 -1 0 1 2 반대 중립 찬성 절대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 문학임이 분명하다.
가	-2 -1 0 1 2 반대 중립 찬성 이유
나	-2 -1 0 1 2 반대 중립 찬성 이유
다	-2 -1 0 1 2 반대 중립 찬성 이유

교차조사 토론을 활용하여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논의해 보자.

1 교차조사 토론이란?

■ 교차조사 토론

찬성과 반대팀으로 나누어 입론과 조사를 위한 질문, 반론의 과정을 거치는 토론의 유형

■ 교차조사 토론을 위한 약속

- ① 모든 친구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토론 모형입니다. 같은 의견을 담당하는 짝과 힘을 합해 논제를 분석하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 ② 교차조사 단계는 반론의 근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의 입론을 확인하고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반론과 혼동하지 말고 상대 팀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질문하도록 합니다.

교차조사 토론을 위한 두 가지 준비⁽¹⁷⁾

1 논제에 따른 쟁점 찾기

- [좋은 논제의 조건]
 - 토론해 볼 가치가 있는 것
 - 현재의 상황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
 - 찬반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 쟁점이 뚜렷하게 하나인 것
 - 토론 참여자의 관심과 수준에 맞는 것

기준	내용
타당성	논제가 추구하는 상위 가치,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
보편성 (보편적 합리성)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 인권, 헌법 등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를 따져 보는 것
현실성 (현실적 신뢰성)	현실적으로 공정하고 적합한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지, 이익을 주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 주는 것

기준	내용	
논제		
논제가 추구하는 가치	폭력 및 도난 사고 예방, 외부인 출입 금지	
쟁점	긍정 입장의 쟁점	부정 입장의 쟁점
타당성		
보편성 (보편적 합리성)		
현실성 (현실적 신뢰성)		

2 교차조사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의 유형

유형	뜻	내용
사실적 질문	정확한 뜻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명료화를 위한 질문	• 토론자께서는 ~라고 말씀하신 거죠? • 여기에서 ~라는 용어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신 건가요? • ~라는 용어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추론적 질문	주장과 이유, 이유와 근거 사례 사이의 타당성을 살피는 질문. 전제나 근거를 확인하는 질문	• 그 주장의 전체(상위 가치)는 무엇인가요? • 토론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들어 줄 수 있나요? •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 근거 자료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 인용한 설문 조사의 대상자는 몇 명인가요?
비판적 질문	발언한 논증에 대해 다른 견해, 관점, 의견 등을 묻는 질문. 상대방의 주장 이나 표현의 오류를 지적하는 질문. 질문자의 주관이나 판단 개입. 질문 보다는 주장이나 반론이 되기 쉬움.	• 저는 ~하게 생각하는데 토론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라고 주장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 그렇다면 ~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 경우에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 만약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의적 질문	당연한 것을 묻는 것. 논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묻는 것. 논리의 비약이나 논제 일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활용에 유의.	•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 인간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 이 토론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 우리 모둠에서 선정한 논제

가치 수직선 토론에서 제시한 문학 작품의 사례처럼 '한국 문학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작품 A>에 대해 설정해 보자.

논제	<작품 A>를 한국 문학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설정한 <작품A>의 특징	창작 주체	
	내용	
	형식	

● 우리가 토의·토론을 하는 이유

읽기자료 (18)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강하다

우생학 창시자인 영국의 유전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1907년 플리머스 시장에서 도살된 황소 한 마리의 무게를 알아맞히는 대회를 열었다. 참가한 800여 명 가운데 황소 무게를 정확하게 맞힌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골턴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다. 참가자들이 추정한 황소 무게의 평균치는 1197파운드, 실제 황소 무게 1198파운드와는 단지 1파운드 차이만 났을 뿐이다. 가족 전문가들보다도 훨씬 더 정확했다. 다수의 생각, 즉 ‘크라우드(crowd)의 지혜’가 모이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생생한 사례다.



토론을 앞둔 나의 생각

.....

.....

.....

● 절차와 역할에 맞게 교차조사 토론을 진행해 보자. (19)

1 교차조사 토론의 순서 및 시간

긍정 팀	부정 팀
1. 긍정 측 입론(A1) [a1] – 1분	
	2. 부정 측 교차조사 질문(B2) [b3] – 1분
	3. 부정 측 입론(B1) [b1] – 1분
4. 긍정 측 교차조사 질문(A1) [a3] – 1분	
숙의(작전) 시간 – 1분	
5. 긍정 측 입론(A2) [a2] – 1분	
	6. 부정 측 교차조사 질문(B1) [b1] – 1분
	7. 부정 측 입론(B2) [b2] – 1분
8. 긍정 측 교차조사 질문(A2) [a1] – 1분	
숙의(작전) 시간 – 1분	
	9. 부정 측 반론(B1) [b3] – 1분
10. 긍정 측 반론(A1) [a3] – 1분	
	11. 부정 측 답변 및 마무리(B2) [b2] – 1분
12. 긍정 측 답변 및 마무리(A2) [a2] – 1분	

[] 안의 소문자는 3 : 3(6명) 모둠의 경우임.

2 교차조사 토론 입론, 반론, 답변 준비서

논제	〈작품 A〉를 한국 문학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창작 주체			
	내용			
	형식			
논제 분석	핵심 용어 정리			
	핵심 용어가 추구하는 가치는?			
	쟁점 도출 (무엇을 문제로 삼을까?)	기준	쟁점	
		타당성 (취지, 목적)		
		보편성 (인권, 양심, 헌법)		
		현실성 (불공평, 부적합, 불편, 불이익)		
역할	긍정팀		부정팀	
	☐ A1 ☐ A2 ☐ A3		☐ B1 ☐ B2 ☐ B3	
쟁점	요소	입론	예상반론	답변
쟁점 1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쟁점 2	주장			
	이유			
	근거, 사례			
쟁점 3	주장			
	이유			
	근거, 사례			

● 수업 성찰 일기

내면 관찰 (메타인지)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 창의적 사고
	느낌/태도 관찰	생각 파악(느낌의 원인)	변화 대책(필요시)
학습활동 중 나의 느낌과 태도	나의 느낌, 기분이 _____ _____ 것으로 관찰된다.	그 이유는 _____ _____ _____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알게 된 것			
자신에 대해 알게 된 것 (변화된 것)			
질문이나 더 알고 싶은 것			
학습 활동 소감 (실천 계획, 의견, 건의 등)			

비교 중심 하브루타

「참회록」(윤동주)



교과서 연계 단원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1) 서정 갈래

작품 3 「참회록」(윤동주)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교과서를 통해 윤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만나본 학생들이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라는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차 세계 대전, 제국주의와 식민 통치 등의 시대적 연결고리를 가진 작품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비교 대상이 되는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비교와 대조를 통해 개별 작품의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토의·토론 활동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작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활동은 윤동주의 「참회록」에 대한 절대론적 관점(화자의 행위와 태도, 참회의 의미), 표현론 혹은 반영론적 관점(작가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 시대적인 상황)에서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학생 활동이 완료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였다. 둘째, 작품을 비교하기 위한 좋은 질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유연한 사고로 개성과 깊이를 갖춘 질문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운문 문학의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측면을 두루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문학과 역사, 사회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서로를 비추고 있음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하브루타를 통해 하나의 주제에 대해 깊고 넓게 대화하는 맛을 알고 문학의 감상을 나누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화와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교과서 연계	• 시의 전문과 소단원 학습 목표를 연계한 확장 활동(174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 비교 중심 하브루타(짝 활동)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시간에 함께 본 영화 「동주」의 장면과 시 「참회록」의 화자를 떠올리며 식민 치하의 지식인으로서 윤동주의 불안과 부끄러움의 정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일본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에 전쟁을 위한 징병제가 공포되고 징용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만난 조선 청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회록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전개 (40분)	▶ 이바라기 노리코의 「내가 제일 예뻐할 때」를 감상한다. • 「참회록」 학습 과정과 유사하게 화자의 행위와 태도, 구절의 의미, 작품의 시대적 배경 등에 대해 짝 학습을 진행한다. ▶ 비교 중심 하브루타를 진행한다. •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에 대해 정보를 탐색한다. • 탐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만든다. • 비교 중심 하브루타의 절차에 따라 짝 토론, 모둠 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벤다이어그램 활동지에 정리한다. • 모둠 질문을 한 가지씩 골라 학급 전체에게 소개하고 담임 교사와 함께 쉬우르하며 「참회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논의한다.	•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사전에 배울 내용을 익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프로젝트 수업 진행 과정을 통해 충분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에 하브루타를 시행해야 한다. • 쉬우르는 전체 토론을 이르는 표현이다.
정리 (5분)	▶ 점검표를 작성하며 하브루타 활동에서 배운 점과 참여 태도에 대해 자기 평가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비교 중심 하브루타란?

- 교과서나 교재 등에서 비교할 대상을 정한 다음,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고 질문을 뽑은 다음, 그 질문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에 대해 다양하게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다.
- 비교가 토론을 자극하고, 사고를 자극하며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의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펼친다.

(2) 진행 방법⁽²⁰⁾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비교 대상을 선정한다. • 비교 대상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한다.
② 질문 만들기	• 질문을 만든다. • 질문을 내용, 심화, 적용, 메타로 구분하여 질문 순서를 정한다.
③ 짝 토론	• 일대일로 짝을 지어 토론했다. • 짝별로 좋은 질문 1~3개를 고른다.
④ 모둠별 집중 토론	• 최고의 질문을 뽑아 집중 토론한다.
⑤ 토론 결과 나누기	• 좋은 질문과 토론 내용을 발표한다.
⑥ 쉬우르	• 교사와 학생들이 뽑은 질문을 중심으로 개념과 주제에 맞게 쉬우르(전체 토론)한다.
활동 도움말	• 정보 탐색 정도와 시에 대한 이해도, 학업성취 등에 따라 하브루타 활동의 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꾸준한 연습과 수업 적용을 통해 하브루타에 익숙해져야 한다. • 하브루타 수업에서는 즐거나 명하게 있는 것보다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그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말한다. 소통 능력이 생기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자주 하브루타를 하다 보면 공부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의 즐거움을 느끼고 익숙해질 것이다. 또한 친구들과의 협력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협조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4 활동지

교과서 173~178쪽

비교 중심 하브루타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해하기

3단원 (1) 서정 갈래

학년 반 이름:

● 아래의 시를 읽고 작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자.

읽기자료 (21)

내가 제일 예뻤을 때

이바라기 노리코

내가 제일 예뻤을 때
거리마다 와르르 무너지고
영동한 곳에서
푸른 하늘 같은 게 보이곤 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 술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도 없는 섬에서
나는 몇 부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누구도 정다운 선물을 주지는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엔 알지 못했고
서늘한 눈길만을 남긴 채 죄다 떠나 버렸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내 머리는 텅 비어 있었고
내 마음은 꽉 막혔으며
손발만이 짙은 갈색으로 빛났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에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라디오에선 재즈가 흘러나왔다
금연 약속을 깨뜨렸을 때처럼 비틀거리면서
나는 이국의 달콤한 음악을 탐했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
나는 몸시도 불행했고
나는 몸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했다

그래서 다짐했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자고 될 수만 있다면 오래 살기로
나이 먹어서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처럼 말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언제였던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무도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 준 적이 없었던 탓이다. 슬프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절을 놓쳐 버렸다는 사실이. 나는 젊지 않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갔다. 진실을 말하자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둡고 괴로우며 오직 지나간 시절만이 아름답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일본 시인이다. 1926년에 태어났으니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전쟁에 열을 올릴 때 인생의 황금기를 맞았을 테다. 「내가 제일 예뻤을 때」는 찬란한 시절을 전쟁에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다. 전쟁통에 사람들이 마구 죽어나가고 거리는 폭격으로 폐허로 변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패전국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나락으로 떨어졌다. 패전국 소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를 탐했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에 누구도 노리코에게 아름답다고나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혼자 아름다운 그림을 남긴 프랑스의 루오 영감님을 가슴에 품었을 뿐이다. 노리코는 한국어와 윤동주 시인을 사랑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전쟁의 불행에 빠뜨린 일본 제국주의 시민이라는 걸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한 최초의 일본 시인이다.

문학 교과 학습 내용과 읽기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보자.

		「참회록」(윤동주)	「내가 제일 예뻤을 때」(이바라기 노리코)
내용	화자		
	상황		
	행위		
	태도		
표현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		
시대적 배경			
작가 정보			
기타			

○ 짝 하브루타

1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의 유형을 살펴보고 짝과 이야기 나눌 질문을 만들어 보자.

	질문의 유형
사실(내용) 질문	텍스트의 사실적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
심화(상상) 질문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탐구하기
메타(종합) 질문	종합, 정리하는 질문. 반성, 시사점, 교훈 등에 대한 질문

	내가 만든 질문
사실 질문 하브루타	• •
심화 질문 하브루타	• • •
메타 질문 하브루타	• • •

2 좋은 질문을 각각 두 개씩 골라 짝과 하브루타 토론을 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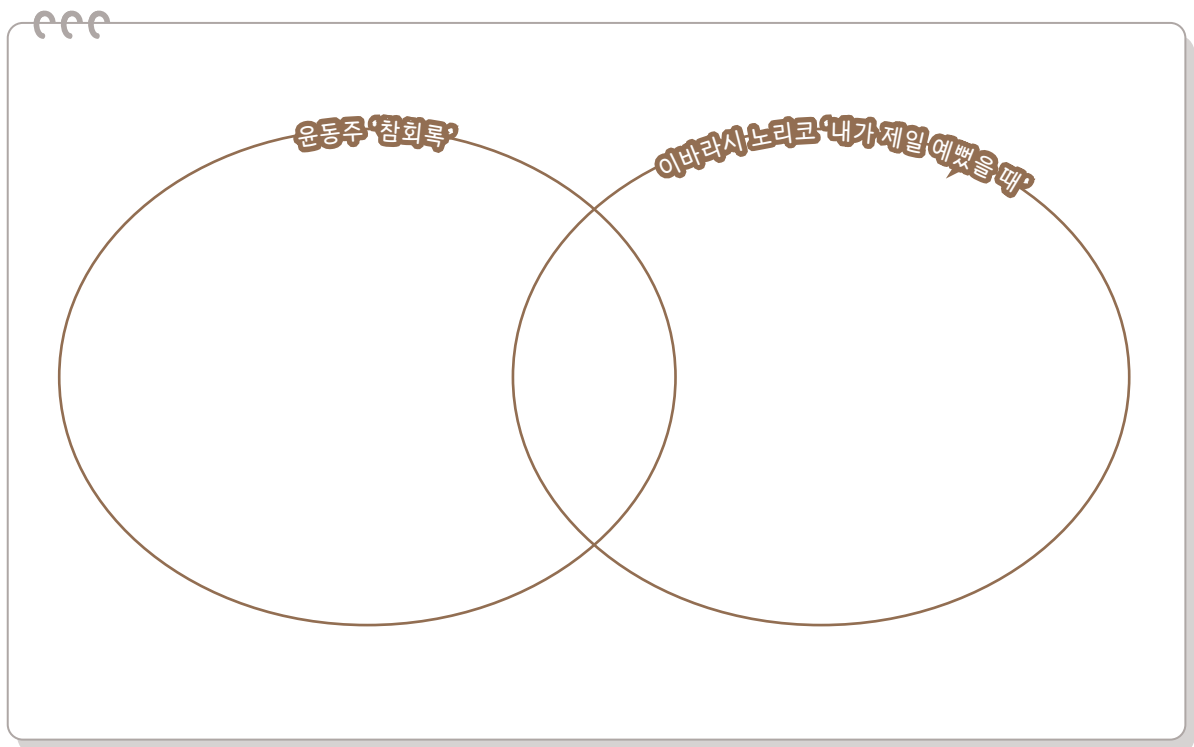
구분	질문	하브루타 활동 내용	
		나의 답변	짝의 답변
나의 질문	•		
	•		
짝의 질문	•		
	•		

모둠 하브루타

1 짝과 나눈 하브루타 활동 중 논의가 활발했던 질문을 하나만 골라 모둠원들에게 소개하고 모둠 하브루타를 해 보자.

구분	질문	하브루타 활동 내용			
		나	모둠원 1	모둠원 2	모둠원 3
나와 짝의 질문	.				
다른 친구의 질문	.				

2 자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하브루타하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모둠 의견을 정리해 보자.



● 쉬우르(전체 토론)

윤동주의 「참회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해 학급 전체 하브루타를 해 보자.

학급 쉬우르	
한국 문학의 특수성	한국 문학의 보편성
•	•
•	•
•	•
•	•
•	•

3 점검표를 작성하며 활동을 정리해 보자.

점검 요소	점검 결과
1. 주도적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였는가?	☆☆☆☆☆
2. 하브루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3.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
• 활동을 하며 새롭게 배우고 느낀 점을 작성해 보자.	

온라인 게시판 토론

「주몽 신화」(작자 미상)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2) 서사 갈래

작품 「주몽 신화」(작자 미상)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고대 건국 신화를 바탕으로 현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리더의 모습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를 분석하여 두 신화 속에 투영된 당대 사람들의 열망과 가치관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리더상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현대판 주몽 신화를 창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의 전달을 넘어 당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는 중요한 문학적 형식임을 깨닫게 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신화도 하나의 문학 장르로, 바람직한 리더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욕구가 반영된 갈래이며, 21세기인 지금도 리더에 대한 욕망이 다양한 소설, 드라마, 영화로 창작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수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의 공통점을 분석하며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바람직한 리더에 대한 열망을 동일하되, 차이점을 분석하며 그 욕망이 지역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 다른 욕망이 다른 작품으로 창작되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현대판 주몽 신화를 창작하며 바람직한 리더를 바라는 마음은 고대와 현대가 같으며, 시대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가장 오래된 문학 갈래인 신화에 투영된 사람들의 욕망을 현대의 사람도 지니고 있으며, 지금도 문학 활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 한국 작품과 외국 작품을 비교하며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교과서 연계	교과서 189~196쪽(「주몽신화」)
준비 자료	온라인 게시판과 QR코드 준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온라인 게시판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며 학습 목표를 안내한다. • 신화에는 시대 상황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해할 것임을 안내한다. •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를 비교하며 두 신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볼 것을 안내한다. ▶ 학생들에게 다음 발문을 제시한다. • “주몽과 로물루스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리더를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현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리더의 모습을 바탕으로 현대 대한민국판 「주몽 신화」를 만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 지난 시간까지 교과서에서 학습한 신화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제공한다. • 발문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답변을 유도한다.
전개 (40분)	▶ 신화 속에 투영된 시대 상황을 분석한다. • 활동지를 활용해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의 주요 내용과 투영된 당대 사람들의 열망, 리더의 모습을 분석한다. • 분석을 통해서 신화에는 당대 사람들이 원하는 리더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고, 이는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한다. •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에는 원하는 리더상에 차이가 있고, 각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서 시대별, 지역별로 건국 신화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건국 신화가 새로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담아낸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점도 안내한다. ▶ 현대 대한민국의 시대 상황을 분석한다. • 현대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도덕성, 경제, 사회 불평등 등)를 분석한다. • 시대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을 활동지에 작성한다. ▶ 현대판 주몽 신화 이야기를 만든다. • 모둠별로 리더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지니고 있을지 생각하며 「주몽 신화」의 서사 구조에 맞게 작성해 본다.	• 활동지 작성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다. • 현대 대한민국의 문제는 신과의 연결, 신이한 힘과 자연의 도움 등 환상적인 능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웅 서사의 구조에 맞게 삶의 과정을 적도록 안내한다.
정리 (5분)	▶ 다음 차시의 학습 내용을 안내한다. • 다음 차시에는 실제로 신화를 써 보고, 온라인 게시판 토론을 활용해서 다른 모둠의 작품을 공유하고, 각 작품에 드러난 현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해 볼 것임을 안내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이전 차시에서 분석한 내용을 간략히 복습하며 학습 목표를 안내한다. ▶ 다음 발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현대 대한민국의 리더 이야기를 상 상해 본다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리더가 필요할까요?”	• 이전 차시에서 작성한 활동지를 준비하여 복습을 간결히 진행한다. • 발문을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전개 (40분)	▶ 현대판 「주몽 신화」를 창작한다. • 각자 이전 차시에서 작성한 대한민국 리더의 서사 구조를 구체적인 이야기로 작성한다. ▶ 모둠별 최고의 이야기를 선정한다. • 학생들에게 온라인 게시판 QR코드를 제시하고 입장을 안내한다. • 모둠에서 개별적으로 창작한 이야기 중 가장 구체적이고, 리더의 모습과 시대적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재미있는 작품을 한 가지 선정한다. • 선생님이 제시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모둠별로 뽑힌 이야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다. ▶ 온라인 게시판에 댓글을 단다. • 다른 모둠의 이야기를 읽고 댓글을 작성할 때 필요한 다음 네 가지의 내용 요소를 안내한다. ① 이 이야기에 투영된 시대 상황은 무엇인가? ②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③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퍼질 경우 국민들은 이 리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④ 이 이야기에 대한 한 줄 소감을 작성한다.	• 시대 상황과 리더의 모습이 잘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모둠별 토의 시 모든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 온라인 게시판을 사전에 준비하고, 와이파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술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다. • 댓글 작성 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작품과 의견을 존중하도록 강조한다.
정리 (5분)	▶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건국 신화의 창작과 향유 이유와 기능에 대해 생각하며 활동을 마무리한다. •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건국 신화는 왜 지어서 널리 퍼뜨려야 했을까?” • “건국 신화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어떻게 반영될까?” • “건국 신화는 그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까?”	• 학습 목표와 연관지어 활동 내용을 종합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온라인 게시판 토론이란?

- 온라인 게시판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글을 게시하고, 서로의 의견을 읽고 댓글이나 답변을 통해 토론을 이어가는 활동이다.
- 각 개인 또는 모둠의 산출물을 동시에 게시판에 업로드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비평하면서 소통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온라인 게시판 사전 준비: 패들렛, 퀴즈앤 등 온라인 게시판 플랫폼을 설정한다. • 교실의 와이파이 등을 점검하고, 학생들에게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 게시판 사용 방법, 사용 예절, 온라인 게시판에 사진 등을 업로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한다. • 주제 안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릴 주제 또는 업로드할 과제를 안내한다.
② 게시 단계	• 학생들은 주어진 주제 또는 과제를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한다. • 수업 시간에 진행할 경우, QR코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게시판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③ 댓글 의견 교환	• 다른 친구들이 작성한 글 또는 게시한 과제를 보며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작성한다. • 공감되는 작품 또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게시글 또는 과제와 댓글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흥미와 재미 위주로 '좋아요'를 누르지 않고, 의미를 위주로 '좋아요'를 누르도록 안내한다.
④ 마무리	• 교사는 학생들의 참여 내용을 확인하고, 우수한 의견이나 독창적인 내용을 칭찬하며 마무리한다.
활동 도움말	• 댓글 작성 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교사는 의미 있는 게시글과 댓글을 미리 파악하여, 활동 마무리 단계에서 학생들과 공유하고, 생각해 볼 것을 질문하여 대화하면 게시판 토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게시판 토론

우리는 어떤 리더를 열망하는가?

3단원 (2) 서사 갈래

학년 반 이름:

○ 다음 활동을 통해 모둠원과 함께 각 신화에 시대 상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자.

1 「주몽 신화」의 내용, 투영된 리더의 모습, 시대적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빈칸을 채워 보자.

작품의 내용	당대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	당대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를 열망한 이유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와 연결된 리더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음. 신과 연결된 리더는 권위와 정당성을 갖춰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었음.
주몽의 뛰어난 활솜씨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함.	용맹하고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하는 리더	
강을 건널 때 물고기와 거북이의 도움을 받음.		자연재해나 환경적 위험이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리더를 사람들이 원했음. 신비한 도움은 리더의 특별한 능력을 상징함.
신성한 혈통을 통해 주몽의 리더십 정당성을 강조함.		가문과 계층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신성한 혈통을 가진 리더는 믿음과 안정감을 주었음. 사람들이 리더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임.

2 「로마 건국 신화」에 투영된 리더의 모습, 시대적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고 빈칸을 채워 보자.

작품의 내용	당대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	당대 사람들이 그러한 리더를 열망한 이유
마르스 신과 베스타 여사제 사이에서 태어남.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와 연결된 리더	
암늑대가 로물루스와 레물루스를 키워 줌.		자연의 위험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생존의 상징이었음. 특별한 보호를 받은 리더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됨.
로물루스와 레물루스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		로마는 초기 부족 사회에서 새로운 정착지와 자원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꼭 필요했음. 새로운 땅의 개척과 공동체의 설립은 생존과 번영의 상징이었음.
	강력한 결단력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리더	초기 사회는 내부 갈등과 경쟁이 치열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음. 강력한 결단력은 분열을 막고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음.

3 「로마 건국 신화」와 「주몽 신화」에 드러난 리더의 모습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공통점:

.....

.....

.....

.....

*차이점:

.....

.....

.....

.....

4 시대와 지역, 국가에 따라서 바람직한 리더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자.



.....

.....

.....

.....

.....

.....

.....

.....

- **모둠 토론**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야별로 검색해 보고, 문제의 해결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는 어떤 모습을 지녔을지 생각해 보자.

분야	현대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	우리 사회의 문제
도덕성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특권 의식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 예를 들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느끼게 하여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켰다.
변화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과 AI 기술 적용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AI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활용 산업 비율은 10%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20%, 미국의 25%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높이며,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에서의 혁신이 시급히 요구된다.

- 모둠 토론 앞서 작성한 리더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지녔는지 토론하며 ‘대한민국 리더 이야기’의 서사 구조를 찬성해 보자.

서사 구조 요소	내용
혈통	주몽은 천제(하늘의 신) 환인(桓因)의 후손으로, 하백(河伯, 강의 신)의 딸 유화와 하늘의 신 해모수 사이에서 태어난 신성한 혈통을 가진 인물로 묘사됨.
출생	유화가 해모수와 만남 이후 햇빛을 받아 주몽을 임신함. 이는 신화적 존재의 신비한 탄생 과정을 통해 주몽의 특별함을 강조함.
어린 시절의 시련	주몽은 부여에서 왕의 자손들로부터 질투와 압박을 받음. 특히 부여 왕 금와가 주몽의 재능을 경계하고 의심하며 그를 통제하려 함.
능력과 재능	주몽은 뛰어난 활솜씨와 지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입증함. 특히, 새들을 쏘아 맞추거나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와 행동력이 돋보임.
성장 후 시련	부여에서의 위협과 견제를 피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부여를 떠나면서 생명의 위협과 강을 건너야 하는 시련에 직면함.
시련의 극복	주몽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면서 생명을 위협하던 상황을 극복함. 신화 속 동물들의 도움은 주몽의 신성함과 신화적 요소를 강화함.
위업의 달성	새로운 땅에 도착한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여 왕이 되고, 나라를 발전시키며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함. 이는 주몽이 혈통, 능력, 시련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서사 구조 요소	내용
이름	
혈통	
출생	
어린 시절의 시련	
능력과 재능	
성장 후 시련	
시련의 극복	
위업의 달성	



개별 활동 앞서 작성한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각자 '현대판 주몽 신화'의 이야기를 써 보자.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 온라인 게시판 토론을 해 보자.

온라인 게시판 토론 진행 방법	
1	모둠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와 리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뽑는다.
2	선생님이 제시하는 온라인 게시판 QR코드를 찍어서 온라인 게시판으로 입장한다.
3	모둠별로 최고의 이야기로 선정된 한 가지 이야기를 온라인 게시판에 사진으로 찍어 올린다.(패드렛, 퀴즈앤, 핑커벨 등의 온라인 게시판 활용)
4	각 학생들은 나의 모둠 이야기 이외의 모든 이야기를 읽고, 각 이야기에 아래 요소를 포함하여 댓글을 쓴다. ① 이 이야기에 투영된 시대 상황은 무엇인가? ②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리더의 모습을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③ 이 이야기가 대한민국에 퍼질 경우, 국민들은 이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④ 이 이야기에 대한 한 줄 소감

● 활동을 마무리하며, 아래 내용을 생각해 보자.

1 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건국 신화를 퍼뜨려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 건국 신화에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대중들의 열망이 어떻게 반영될까?

3 건국 신화는 그 집단이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어떤 기능과 역할을 했을까?

[참고 자료 1] 대한민국의 분야별 문제 상황 글 자료

오늘날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변화와 혁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문제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통계와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도덕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특권 의식은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느끼게 하여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경제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평균적으로 월 소득을 전혀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기간, 즉 주택 구매 가능 연수(PIR)는 18.5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민층과 청년층이 주거 안정을 이루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8.5%를 넘어섰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문제입니다.

셋째,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격차와 주거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2023년 기준 약 6배로 벌어졌으며, 이는 OECD 평균(약 4배)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계층 간의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의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 가정의 주거비 부담은 전체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째, 변화와 혁신이 더딥니다. 세계는 디지털 대전환과 AI 기술 적용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AI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활용 산업 비율은 10% 수준으로, 이는 중국의 20%, 미국의 25%에 비해 크게 못 미칩니다. 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높이며,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에서의 혁신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력이 없고 불신과 대치만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소통과 타협 부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 간의 협력 대신 정쟁과 대결 구도가 지속되며, 주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고, 국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정책이나 경제 회복과 같은 긴급한 현안에서조차 대립이 극심하여 문제 해결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들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도덕성과 경제 안정, 사회적 평등, 기술 혁신, 그리고 국민적 소통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대한민국은 내적으로는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2] 「주몽 신화」와 「로마 건국 신화」 분석

「주몽 신화」

작품의 내용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	당시 시대 상황과 사람들이 열망한 이유
주몽의 신성한 탄생: 태양신 해모수와 유화 부인 사이에서 태어남.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와 연결된 리더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음. 신과 연결된 리더는 권위와 정당성을 갖춰 사람들을 단합시킬 수 있었음.
주몽의 뛰어난 활솜씨와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함.	용맹하고 똑똑하게 위기를 해결하는 리더	외적의 침략과 내부 갈등이 많던 시기였음. 강한 군사 능력과 지혜로운 판단력으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지도자를 사람들이 원했음.
강을 건널 때 물고기와 거북이의 도움을 받음.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신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더	자연재해나 환경적 위험이 많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리더를 사람들이 원했음. 신비한 도움은 리더의 특별한 능력을 상징함.
신성한 혈통을 통해 주몽의 리더십 정당성을 강조함.	가문과 혈통으로 정통성을 가진 리더	가문과 계층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신성한 혈통을 가진 리더는 믿음과 안정감을 주었음. 사람들이 리더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임.
고구려 건국 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함.	여러 사람을 통합하고 질서를 만드는 리더	부족 간의 갈등과 경쟁이 심하던 시기였음. 다양한 세력을 하나로 묶고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했으며, 주몽은 이런 통합적 리더로 묘사됨.

「로마 건국 신화」

작품의 내용	사람들이 열망하는 리더의 모습	당시 시대 상황과 사람들이 열망한 이유
마르스 신과 베스타 여사제 사이에서 태어남.	신성하고 특별한 존재와 연결된 리더	초기 로마는 작은 집단이었고, 종교와 신화에 의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음. 신과 연결된 리더는 그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었음.
암늑대가 로물루스와 레물루스를 키워 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특별한 보호를 받은 리더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사람들에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보호받을 수 있는 지도자는 생존의 상징이었음. 특별한 보호를 받은 리더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인식됨.
로물루스와 레물루스가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노력함.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공동체를 이끄는 개척자	로마는 초기 부족 사회에서 새로운 정착지와 자원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이끌어줄 지도자가 꼭 필요했음. 새로운 땅의 개척과 공동체의 설립은 생존과 번영의 상징이었음.
로물루스가 레물루스를 죽이고 로마의 왕이 됨.	강력한 결단력과 경쟁에서 승리하는 리더	초기 사회는 내부 갈등과 경쟁이 치열했으며, 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권위를 확립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음. 강력한 결단력은 분열을 막고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자질로 여겨졌음.

「이생규장전」(김시습)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2) 서사 갈래

작품 「이생규장전」(김시습)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서로 시대가 다른 애정 전기 소설을 분석하고 현대에 맞는 새로운 애정 전기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애정 전기 소설이 왜 창작되었고, 한국 문학사에서 이어져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한다. 조선 초에 창작된 「이생규장전」과 조선 후기에 창작된 「운영전」을 중심으로 주제, 갈등 구조, 인물의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경험을 반영한 현대의 애정 전기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다. 첫째,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비교·분석하며, 애정 전기 소설의 내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 주인공들의 애정을 좌절시키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전기소설의 비현실적인 요소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비경쟁 토론 활동을 진행하며 작품의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는 한편, 같은 모둠 친구들의 경험과 생각을 경청하도록 한다. 셋째, '사랑'이라는 주제와 '판타지'라는 전기적인 표현 방식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흥미로운 문화 콘텐츠라는 점을 강조한다. 앞서 1차시에서 이해한 애정 전기 소설의 구조, 2차시에서 꼬집어 낸 애정 전기 소설의 소재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206쪽의 '관련 있는 소재를 다룬 작품'의 「운영전」
준비 자료	• 「운영전」 본문
토의·토론 방법	• 비경쟁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질문한다. • “조선 전기에 창작된 전기 소설과 조선 후기에 창작된 애정 전기 소설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을까요?” ▶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주제를 소개하며 수업의 학습 목표를 안내한다.	• 학생들이 작품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답변을 수용하며 긍정적으로 피드백한다.
전개 (40분)	▶ 작품을 읽고 분석하도록 안내한다. • 「이생규장전」은 이미 읽었으므로, 「운영전」을 읽고, 활동지에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안내한다. ▶ 활동지의 질문을 정리하며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분석해 본다.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인물, 시대 배경, 전기적 요소 등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본다.	• 「운영전」의 인물, 갈등, 사회·문화적 배경, 전기적 요소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전에 관련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해당 요소들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어려워하는 학생이 스스로 작품에서 내용을 발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격려한다.
정리 (5분)	▶ 활동한 내용을 공유한다. • 활동지에 적은 내용을 발표하게 하며, 학생들이 파악한 인물, 갈등, 사회·문화적 배경, 전기적 요소에 대해서 공유한다.	• 각자 파악한 내용에 대하여 정답이나 오답이냐를 알려주기보다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공유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수업 활동과 목표를 안내한다. • 학생들에게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주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애정 전기 소설을 창작하는 활동임을 설명한다. • 활동을 통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비현실적인 요소로 형상화하는 작품이 왜 우리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출현했는지 이해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발문을 통해 흥미를 유발한다. • “애정 전기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은 어떤 사회적 장벽과 맞닿아 있을까?” • “현대 사회에서 사랑을 가로막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학생들이 활동의 목표와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한다. •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대적 사례(영화나 드라마)를 제시한다.
전개 (40분)	▶ 비경쟁 토론을 통해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인물, 사건, 갈등, 비현실적 요소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 활동지의 질문에 따라 모둠별 토론을 통해 작품의 인물, 갈등 구조, 사회적 배경, 전기적 요소 등의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 비경쟁 토론을 통해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에 대해 분석하고, 현대의 애정 전기 소설을 창작한다면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요소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상상해 본다.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 작품의 요소를 바탕으로 현대적 사례를 상상하고, 각 요소(사랑의 방해 요소, 갈등 구조, 전기적 요소 등)에 맞는 줄거리를 구상해 본다.	• 학생들이 활동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토론 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도록 격려하며, 정답이 없으며, 근거가 타당하고 설득력 있으면 좋은 의견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 대강의 줄거리에 대해서 먼저 정하게 하고, 소설의 구성 단계별로 어떻게 이야기를 채워 넣을지 논의하도록 안내한다.

	▶ 모둠 내에서 함께 대화하며 줄거리를 작성해 본다. • 소설의 구성 단계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줄거리를 활동지에 기록한다.	
정리 (5분)	▶ 모둠의 활동 결과를 공유한다. • 몇 개의 모둠을 지명하여 모둠에서 분석한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내용과 새롭게 상상한 현대의 애정 전기 소설의 줄거리를 발표하도록 한다. ▶ 활동의 의의를 안내한다. • 애정 전기 소설은 한국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여 창작되어 왔으며, 남녀 간의 애정을 비현실적인 요소로 형상화하는 이 방식이 현대에도 창작되고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다양한 내용과 관점을 인정하고, 다른 학생들의 경청과 호응을 유도한다. • 학생들이 애정 전기 소설의 시대적 변천에 따른 변화 과정과 현대에도 전기적 요소와 애정의 주제가 지속되어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한다.

3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지난 차시에서 분석한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의 내용을 상기하며 다음 질문으로 시작한다. • “현대를 배경으로 한다면, 애정 전기 소설의 주인공, 갈등,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수업 목표를 안내한다.	• 학생들이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흥미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진다. • 현대적 요소와 전통적 소설 요소를 연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전개 (40분)	▶ 지난 차시까지 구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한다. • 2차시에서 분석한 전기적 요소와 환상적 요소, 소설 단계에 맞게 구상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한다. • 학생 개인별로 창작하며, 구성, 인물, 배경 등을 활동지에 따라 작성한다. ▶ 교실 벽에 작품을 붙이고, 돌아다니며 다른 친구의 작품을 감상한다. • 각자 작성한 소설을 책상에 전시한다. •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2개 이상의 작품을 감상하고, 포스트잇에 감상평을 작성해 붙인다.	▶ 소설 창작 시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경우, 예시 질문을 제공한다. • “주인공은 어떤 인물인가요?” • “현대적 배경에서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 갤러리 워크 중 학생들이 모든 작품을 감상할 필요는 없으니, 시간을 관리하며 2~3개 작품을 집중적으로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 포스트잇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정리 (5분)	▶ 갤러리 워크 활동을 마무리하며, 몇몇 학생에게 인상적인 작품과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 오늘의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짧게 발표하거나 적도록 한다.	▶ 학생들의 창작과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해석과 창의적 시도를 격려한다. • 활동 마무리 시 수업 목표와 연계하여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비경쟁 토론이란?

- 비경쟁 토론은 상대방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이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공동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진행되는 토론 방식이다.
- 참여자들은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토론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선정하거나 교사가 배정한다. • 학생들을 4~5명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모둠으로 구성한다. • 토론을 할 때, 정해진 정답은 없으며, 주장이나 의견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고 논리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인 인지시킨다. • 경청, 호응, 공감, 차이점에 대한 인정, 근거를 덧붙여 말하기와 같은 사회적 기술의 개념에 대해서 안내하고 시범을 보이거나 예시를 보여 준다.
② 토론 진행 단계	• 교사는 제시되는 질문에 대해서 안내한다. • 학생은 질문에 대해서 이해하고, 궁금한 점은 교사에게 질문한다. • 모둠장은 적절히 질문을 모둠원에게 제시하고, 모둠원들은 적극적으로 답한다. • 자발적으로 답을 하는 모둠원이 없을 경우, 모둠장의 오른쪽부터 돌아가며 답하도록 지도한다. • 모둠원의 말에 궁금한 점, 자기 생각과 다른 점, 생각해 볼 점이 있으면 후속 질문을 하되,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한다.
③ 피드백 단계	• 토론이 종료되면, 각 모둠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발표시키면 좋다. 발표시킬 때에는 미리 1분 정도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를 준비할 시간을 주면 좋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면과 발전할 점을 강조한다.
활동 도움말	•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비경쟁 토론의 핵심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통한 의견 교류임을 강조한다. • 발언 횟수를 제한하거나 균등하게 분배해 소수의 학생이 주도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 토론이 끝난 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낀 점을 성찰하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4 활동지

교과서 197~206쪽

비경쟁 토론

사랑과 판타지는 영원하지

3단원 (2) 서사 갈래

학년 반 이름: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하며 두 작품을 비교해 보자.

1 주요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는 한 문장을 작품에서 발췌해서 써 보자.

작품	남자 주인공(이생)	여자 주인공(최씨)
이생규장전		
작품	남자 주인공(김 진사)	여자주인공(운영)
운영전		

2 두 작품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사건이나 요소를 찾고, 각각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지 써 보자.

작품	사건이나 요소	배경으로 하는 시대
이생규장전		
운영전		

3 두 작품의 주요 갈등(욕구의 충돌) 구조를 아래 표에 정리해 보자.

작품	인물의 욕구는?	욕구는 무엇(누구)에 의해서 충돌하거나 좌절되고, 극복되는가? (예 가치관, 문화, 제도, 내적인 신념이나 정서 등)
이생규장전		
운영전		

4 두 작품에 드러난 전기적 요소를 아래 표에 정리해 보자.

작품	내용
이생규장전	
운영전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며 작품의 대한 나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자.

1 [인물] 남녀 주인공의 성격은 각각 어떠한가?

작품	남자 주인공(이생)	여자 주인공(최씨)
이생규장전		
작품	남자 주인공(김 진사)	여자 주인공(운영)
운영전		

2 [인물] 위의 네 인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인물은?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인물은? 그 이유는?

3 [갈등] 주인공 중에서 내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겪는 인물을 고른다면? 그 이유는?

4 [갈등] 두 작품에서 주인공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는 각각 무엇인가?

5 [갈등] 최근 봤던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 사이의 사랑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6 [전기성] 주인공 사이의 사랑을 이어 주는 비현실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7 [전기성] 최근 봤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재미있게 보았던 비현실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 「이생규장전」과 「운영전」을 아래 표에 맞게 요소별로 분석해 보고, 우리 모두가 창작할 애정 전기 소설을 동일한 요소로 구상해 보자.

작품	요소	내용
이생규장전	사랑을 가로막는 시대적·사회적 요소	
	갈등 구조	
	인물의 성격	
	전기적 요소	
운영전	사랑을 가로막는 시대적·사회적 요소	
	갈등 구조	
	인물의 성격	
	전기적 요소	
우리가 창작할 현대의 애정 전기 소설	사랑을 가로막는 시대적·사회적 요소	예) 경제력, 부모, 문화, 종교, 권력, 법, 이념, 직업 등
	갈등 구조	예) 외적 갈등, 내적 갈등, 오해, 비밀, 성격 차이, 진로, 시간, 거리, 성장과 변화
	인물의 성격	예) 열정적, 낙천적, 내성적, 감성적, 완벽주의적, 목표 지향적, 자유분방, 냉정 등
	전기적 요소	예) 귀신, 천사와 악마, 마법, 초능력, 평행 우주, 외계인, 환생과 윤회, 신선, 꿈, 빙의, 불가사의한 장소, 심령 현상, 타임 슬립 등

● 구상한 애정 전기 소설을 모듈별로 대화하며 소설의 구성 단계에 맞추어 줄거리를 간략히 써 보자.

단계	내용
발단	• 인물과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소개된다.
전개	• 갈등이 시작된다. 인물과 인물의 관계, 갈등 관계가 조성된다.
위기	•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감이 조성된다.
절정	•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사건이 해결될 실마리가 제시된다.
결말	•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

● 우리 모둠에서 함께 구상한 소설을 구체화해서 '2쪽 단편 소설'로 완성해 보자.



*제목: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intended for student responses or discussion notes.

「태평천하」(채만식)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2) 서사 갈래

작품 「태평천하」(채만식)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읽고 윤 직원의 행동에 내재된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며 작품과 시대적 맥락을 탐구하도록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윤 직원의 행동은 조선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논제를 분석하고, 찬반 입장에서 각자의 근거를 준비한 후, 짝 토론·모둠 토론·전체 토론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논제와 관련하여 주장을 하고, 근거를 들며, 다른 친구의 주장과 근거를 깊이 고민해 보면서, 학생들은 문학 작품의 주제와 시대 상황을 논리적으로 연결 지으며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된다. 토론 후에는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통해 자신의 토론 과정에서 보여 준 태도가 성숙한 민주 시민의 태도였는지를 돌아보게 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토론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찬반 입장의 학생들이 서로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기 시작하면 논리적인 토론이 어려워지고, 윤 직원 영감과 당시 시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수업 전에 경청, 존중, 차이점에 대한 인정, 논리적인 말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을 강조한다. 둘째, 논제와 쟁점을 분석하고 쟁점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모두 되어 보도록 지도한다. 논제 분석을 풍성하게 해야 토론에서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생성형 시를 활용하도록 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생성형 시를 활용하여 짧은 시간에 생산한 주장과 근거를 사용할 때에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토론 맥락에 맞게 적절성을 판단하여 사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하게 되고 성숙한 공동체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207~216쪽
준비 자료	•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 토론 중심 하브루타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만약 내가 일제 강점기에 살았다면,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을 지 질문하며 주의를 환기한다. ▶ 토론 중심 하브루타의 개념을 설명한다. • 윤 직원의 행동에 대해서 '생존'과 '윤리'의 관점에서 토론해 볼 것을 안내한다. •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작품의 내용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지어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논제를 제시하며('윤 직원의 행동은 조선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다.'). 흥미를 끌 수 있는 사례나 질문을 사용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학생들이 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개 (40분)	▶ 쟁점을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한다. • 활동지의 <쟁점 예시>와 <쟁점 분석 예시>를 살펴보고 논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 3가지 주요 쟁점을 선택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근거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작성한 내용을 조별로 발표하고, 각 조의 의견을 공유하며 논의를 정리한다.	• <쟁점 예시>와 <쟁점 분석 예시>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이 논리적 근거를 도출하고 발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 학생들이 근거를 작성할 때 작품 내용과 역사적 배경을 활용하도록 독려한다.
정리 (5분)	▶ 다음 차시 활동을 예고한다. • 짝 토론, 모둠 토론, 전체 토론의 진행 방식을 설명하며, 다음 시간에는 오늘 분석한 논제와 쟁점을 바탕으로 실제 토론을 진행할 것을 안내한다.	• 학생들이 다음 활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토론 중심 하브루타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한다. • 토론 중심 하브루타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며, 1:1, 2:2, 학급 전체 토론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치며,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바람직한 토론의 자세에 대해 안내한다. • 경청하고 존중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들어 제안하며, 후속 질문과 적절한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 학생들이 토론 중심 하브루타의 취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 학생들이 토론에서 꼭 필요한 성숙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돕는다.
전개 (40분)	▶ 짝 토론, 모둠 토론, 전체 토론을 차례로 진행한다. • 짝 토론에서는 어깨 짝과 앞뒤 짝을 구성해 찬반 입장에서 발언하며 의견을 교환한다. 어깨 짝으로 시작해 앞뒤 짝으로 교체하여 동일한 논제를 논의한다. • 모둠 토론에서는 앞뒤 짝 2쌍이 2:2로 구성되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논제를 논의한다.	• 교사는 토론의 시간을 명확히 안내한다. 토론의 시간은 학생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1:1 토론은 3~5분의 범위 내에서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2 토론은 1:1 토론의 2배 시간을 부여한다. 전체 토론은 2:2 토론의 1.5~2배를 할애하면 적당하다.

	• 전체 토론에서는 교사가 사회자가 되어 학급을 절반으로 나누어 한 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의견을 지정하고, 자유롭게 1명씩 발언권을 부여하여 토론한다.	• 학생들이 윤 직원의 행동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리 (5분)	▶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며 윤 직원 영감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만의 가치판단을 해 보게 한다.	• 토론을 마무리할 때, 윤 직원의 행동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판단에 대해서 안내하며, 학생들이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토론 중심 하브루타란?

-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사고를 확장하는 학습 방식이다. 주로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고, 해당 질문에 대해서 짝이나 모둠을 만들어 토론하는 활동이다.
- 토론 중심 하브루타는 논제에 대해서 짝을 지어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다. 짝을 지어 1:1로 토론하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며, 짝을 바꾸어 회전목마 토론(동일한 논제에 대해서 짝을 다양하게 바꾸며 1:1로 토론하는 방식)과 같이 운영할 경우, 학생들은 다양한 상대와 만나며 입체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보통 1:1 토론을 한 후, 자신과 토론했던 상대와 한 편을 되어서 다른 편과 2:2로 찬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상대와 팀이 역동적으로 바뀌므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게 참여하게 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텍스트나 주제를 기반으로 질문(논제)을 준비한다. • 학습자가 만들 수도 있고, 교사가 제시해 줄 수도 있다.
② 짝 토론	• 옆에 앉은 '어깨짝'과 짝을 지어 1:1로 토론한다. • 어깨짝과 토론한 후에는 앞뒤로 앉은 '앞뒤 짝'과 2차 토론을 진행한다. • 찬반 입장을 정할 때, 학생의 선호를 고려할 수도 있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찬성, 진 사람은 반대로 정해 주어서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찬성과 반대를 다양하게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③ 모둠 토론	• 직전에 토론한 앞뒤 짝이 한 팀이 되어, 옆에 앉은 앞뒤 짝 다른 팀과 2:2로 토론을 한다. • 모둠 토론이 끝난 후에는 다시 4:4로 옆 모둠과 토론시킬 수도 있다.
④ 전체 토론	• 전체 모둠을 절반으로 나누어 팀을 만든다. 교실 공간을 절반으로 나누고, 왼쪽에 있는 모둠, 오른쪽에 있는 모둠으로 나누면 토론 진행이 편리하다.

토론 중심 하브루타

윤 직원의 행동은 일제 강점기의 적절한 생존 전략일까?

3단원 (2) 서사 갈래 교과서

학년

반 이름:

● 아래의 과정에 따라서 토론 중심 하브루타를 해 보자.

문제 분석	① 논제의 쟁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쟁점 예시>를 보고 확인한다. <쟁점 예시>에 없지만 스스로 생각한 쟁점은 ‘기타’에 적는다. ② <쟁점 분석 예시>를 보고, 쟁점을 어떻게 분석할지 이해한다. ③ 3가지 쟁점을 선택하여 찬성과 반대로 분석해 본다.
짝토론	① 어깨짝(옆에 앉은 짝)이 서로 찬성과 반대를 정한다. 선호하는 입장이 겹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② 찬성이 먼저 발언하며 토론을 시작한다. ③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며, 말할 때는 근거를 들어 차분히 말한다. ④ 앞뒤짝(앞뒤로 앉은 2사람씩 짝)과 동일하게 한 번 더 토론한다.
모둠토론	① 방금 토론한 앞뒤짝이 한 팀이 되고 바로 옆에 앉은 앞뒤짝과 2:2로 토론하게 된다. ② 서로 찬성과 반대를 정한다. 선호하는 입장이 겹치면 가위바위보를 한다. ③ 2:2로 토론을 한다.
전체토론	① 전체 모둠을 반으로 가른다.(총 8개 모둠이면 4:4로) ② 찬반을 가르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한다. ③ 교사가 사회자가 되고, 4개 모둠 vs 4개 모둠의 자유 토론을 실시한다. ④ 사회자인 교사에게 발언권을 얻고 말해야 하며, 발언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1명은 2번까지만 연속으로 발언할 수 있다.

○ 아래의 논제에 대하여 쟁점을 분석하고 근거를 마련해 보자.



윤 직원의 행동은 조선 사회에서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다.

1 논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생각해 보며, 의견이 부딪치는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쟁점 예시

- * 도덕성이 우선인가? 생존이 우선인가?
- * 보호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는가, 국가에게 있는가?
- * 도덕성을 지키는 행위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현실이었는가?(내가 윤 직원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 * 사회적, 경제적인 특권층(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부를 많이 쌓은 계층)의 사회적 책무는 무엇인가?
- * 윤 직원의 행동은 그 자신에게,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게, 사회 공동체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 개인의 생존만을 위한 선택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 기타:

2 쟁점 예시 중 원하는 쟁점을 3가지 선택하거나 스스로 쟁점을 만들어서, 아래 예시와 같이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마련해 보자.

쟁점 분석 예시

찬성(윤 직원의 행동은 적절하다.)	쟁점	반대(윤 직원의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
생존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 기본적인 생존이 도덕적 선택의 전제 조건이다. 생존이 불가능한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도덕적 이상은 의미를 잃는다. • 일제 강점기는 혼란스럽고 매우 부패한 상황에서 윤 직원은 생존을 위해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 • 생존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의安危를 지킬 수 있었다.	도덕성이 우선인가? 생존이 우선인가?	도덕성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 윤 직원은 일제에 뇌물성으로 기부하고 협조하며 부정부패를 심화시키고 조선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 도덕성을 포기하면 사회 전체의 신뢰 관계가 흔들린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다. • 도덕성을 포기하면 결국 자기 자신도 지키기 어렵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회가 흔들리면 개인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

쟁점 분석

○ 상호 평가 및 자기 평가(본인 활동지를 오른쪽으로 한 명씩 돌리며 평가받고, 마지막에는 자기 평가 실시)

평가 대상자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상호 평가 기준	점수
경청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후속 질문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여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논리적 말	모둠 활동에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말에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존중	나와 다른 모둠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상호 평가 기준	점수
경청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후속 질문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여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논리적 말	모둠 활동에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말에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존중	나와 다른 모둠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상호 평가 기준	점수
경청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후속 질문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여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논리적 말	모둠 활동에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말에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존중	나와 다른 모둠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자기 평가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상호 평가 기준	점수
경청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며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후속 질문	토의 과정에서 경청하여 모둠원의 말을 잘 이해하였는가?	5 / 4 / 3 / 2 / 1
논리적 말	모둠 활동에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말에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존중	나와 다른 모둠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는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오픈 스페이스 토의

「통영 오광대」(장재봉·오정두 구술)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3) 극 갈래

작품 1 「통영 오광대」(장재봉·오정두 구술)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학생들이 텍스트로 제시된 「통영 오광대」와 내용과 전통극의 형식적 특징 등을 모두 학습했다고 가정하고 오픈 스페이스 토의를 활용한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통영 오광대」의 학습을 통해 「봉산 탈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와 인물의 특성 등에 대해 학습자 간의 토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석해 낼 수 있으므로 교과서 학습활동에 제시된 「봉산 탈춤」에 대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은 전제로 하지 않았다.

또한 전통극인 탈춤의 모티브를 현대 소설에 적용한 심윤경의 소설 「위대한 그의 빛」을 읽고 인물의 특징을 형상화한 방법과 탈춤의 문학적 기능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생들 입장에서 고전의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전 「위대한 개츠비」(피츠제럴드)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심윤경의 소설을 통해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현실의 삶과 관련 하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제재를 선정하였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세션과 팀 주제 선정’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오픈 스페이스 토론의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논제가 쏟아져 나와야 한다.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논제를 세션의 상위 주제와 팀에서 논의할 하위 주제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극 갈래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고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 둘째, 각 팀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허용적인 수업 분위기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전통극이 그 사회에서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것이 전통극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교과서 연계	• 학습 활동 4번 - 「통영 오광대」와 「봉산 탈춤」의 상호텍스트적 분석(234, 235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 A4용지, 이젤 패드, 굵은 펜, 세션과 팀 위치 표시, 포스트잇
토의·토론 방법	• 오픈 스페이스 토의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통영 오광대」 공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통영 오광대」에 드러난 전통극의 특징을 되짚어보며 극 갈래의 발전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 「제2과장 풍자탈」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 말뚝이춤」을 통해 작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볼 것을 주지시킨다.	• 개별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한국 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골계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전개 (40분)	▶ 오픈 스페이스 토의에 대해 설명하고 「풍자탈」과 「양반 말뚝이춤」에서 드러나는 전통극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과 효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볼 것임을 설명한다. ▶ 논제를 선정한다. • 교사가 제시한 큰 주제와 관련하여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논제를 자유롭게 제시한다. • 학습자들이 제시한 논제를 몇 번째 세션에 논의할 것인지, 세션에서 몇 개의 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논제를 배치한다. ▶ 오픈 스페이스 토의를 진행한다. • 한 세션에 포함된 논제들 중 참여하고 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대화한다. • 대화 중 제시된 내용은 큰 종이에 기록하여 벽에 붙인다. • 한 세션이 끝나면 다음 세션을 운영한다. ▶ 논의 내용을 게시하고 공유한다. • 벽에 붙여진 논제별 논의 내용을 게시하고 자유롭게 관람하며 활동을 수행한다.	•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의미 있는 논의를 위해 교사가 반드시 의견을 나누었으면 하는 세션과 주제에 대해 미리 고민하고 의견 제시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논제를 제시할 학습자는 원의 안쪽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논제를 종이에 적는다. • 토의의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의견 또는 투표가 필요한 경우 기록에 반영한다. • 토의 내용을 살피며 투표에 참여하거나 포스트잇을 통해 의견을 추가, 요약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다시 큰 원으로 모여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한다. 교사가 내용을 요약정리하며 토의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 교과서에 제시된 「제7과장 미알할미 영감춤」을 읽어 보도록 안내하고 2차시 활동에 대해 예고한다.	• 학생들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 작품과 표현에 관하여 교사의 정리 활동이 필요하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 지역에 구글이 준비한 신사옥 내부 사진을 보여 주며 휴식과 소통, 창의성을 살리는 열린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 자유로운 형태의 토의·토론이 새롭고 가치 있는 생각을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함을 강조한다.	•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학습 분위기가 주는 효과를 생각해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전개 (40분)	▶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 「봉산 탈춤」에 사용되는 탈을 보고 각각의 인물이 어떤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심윤경의 소설 「위대한 그의 빛」의 줄거리와 탈춤을 활용한 부분을 제시하고 「봉산 탈춤」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본다. ▶ 오픈 스페이스 토의 운영: 1차시와 유사한 순서에 따라 오픈 스페이스 토의를 진행하며 상호텍스트적 분석을 통해 발전적인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논제 선정하기 • 오픈 스페이스 토의 • 논의 내용의 게시와 공유 • 활동 정리	• 1차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과 관련성이 높으며 비교적 정해진 결론을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논제가 주로 제시되리라 예상된다. 2차시는 학생들이 좀더 다양한 논제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하였다. 1차시 오픈 스페이스 토의 과정을 연습하며 토의 기법을 익히고, 2차시 적극적으로 토의 활동에 참여하여 대규모 토의·토론 활동의 재미와 효과를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수업 성찰 일기를 작성하며 토의·토론 기법의 효과, 탈춤의 특성과 문학적 가치, 주제 의식의 표현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²²⁾

(1) 오픈 스페이스 토의란?

- 넓은 공간에서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법으로 많은 의견을 생성하고 학습자 간 공유,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토의 기법이다.
-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공유하는 회의 운영 또는 조직 변화 방법론이다.
- 오픈 스페이스 토의의 원리와 규칙

- 오픈 스페이스 토의의 네 가지 기본 원리
 -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둘째,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다.
 - 셋째, 대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는 모두 유의미한 것이다.
 - 넷째, 언제든지 자유롭게 끝낼 수 있다.
- 오픈 스페이스 토의의 한 가지 규칙
 - 두 발의 법칙(Law of two feet):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원하는 주제의 대화에 참여하고, 다른 주제로 이동할 수 있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논제 선정	• 큰 원으로 모여 앉는다. • 교사가 수업의 목표와 학습 제재의 성격을 고려하여 함께 이야기할 토의 주제를 제시하면 원형으로 모여 앉은 학습자들은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세부 논제를 A4 용지에 적어 원의 가운데 놓인 탁자에 제출한다. 칠판, 게시판 중앙 탁자 (논제 제출) 원형으로 학습자 배치																								
② 세션과 팀 주제 선정	• 교사와 학생들이 제출한 논제를 함께 검토하고 토의 세션과 팀의 계열성을 고려하여 논제를 배치한다. • 각 세션에는 교사가 제시한 토의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볼 포괄적인 주제를 배치한다. • 각 세션의 큰 주제가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논의해보고 싶은 하위 주제를 선정하여 팀별로 배치한다. 빈칸이 생기면 교사와 학습자가 주제의 위계를 생각하며 적절히 채워 넣는다. • 모든 학습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table><tr><th>세션</th><th>1팀</th><th>2팀</th><th>3팀</th><th>4팀</th><th>5팀</th></tr><tr><td>1 주제 1</td><td>주제 1-1</td><td>주제 1-2</td><td>주제 1-3</td><td>주제 1-4</td><td>주제 1-5</td></tr><tr><td>2 주제 2</td><td>주제 2-1</td><td>주제 2-2</td><td>주제 2-3</td><td>주제 2-4</td><td>주제 2-5</td></tr><tr><td>3 주제 3</td><td>주제 3-1</td><td>주제 3-2</td><td>주제 3-3</td><td>주제 3-4</td><td>주제 3-5</td></tr></table>	세션	1팀	2팀	3팀	4팀	5팀	1 주제 1	주제 1-1	주제 1-2	주제 1-3	주제 1-4	주제 1-5	2 주제 2	주제 2-1	주제 2-2	주제 2-3	주제 2-4	주제 2-5	3 주제 3	주제 3-1	주제 3-2	주제 3-3	주제 3-4	주제 3-5
세션	1팀	2팀	3팀	4팀	5팀																				
1 주제 1	주제 1-1	주제 1-2	주제 1-3	주제 1-4	주제 1-5																				
2 주제 2	주제 2-1	주제 2-2	주제 2-3	주제 2-4	주제 2-5																				
3 주제 3	주제 3-1	주제 3-2	주제 3-3	주제 3-4	주제 3-5																				

③ 오픈 스페이스 토의	• 첫 번째 세션의 토의 활동을 진행한다. 팀의 활동 공간을 팻말이나 종이를 통해 구분하고, 참가자는 원하는 주제의 팀에 합류하여 토의한다. 토의의 참가자들은 팀별로 배부된 이젤 패드에 논의 결과를 자유롭게 정리한다. The diagram illustrates the 'Open Space' discussion format. It features a central pink circle. Five teams, labeled '1팀' through '5팀', are positioned around the circle. Above the circle, there is a green rectangular box containing the text '칠판, 게시판' (Chilpan, Gyesipan), which translates to 'Flipchart, Bulletin Board'. Each team is represented by a small orange box with its respective number. • 세션의 수에 따라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토의한다.
④ 토의 결과 나누기	• 각 팀별로 토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벽에 부착하고 참가자가 자유롭게 관람하며 투표, 요약, 의견 첨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⑤ 활동 정리	• 다시 큰 원으로 모여 제시된 내용을 발표, 공유한다.
활동 도움말	• 수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으나, 계단식 강의실 등에서는 운영하기 적절하지 않다. • 학생들의 적극적인 토의 활동 참여와 토의과정 관리를 위해 사회적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이해와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 세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제의 난이도나 학생들의 관계에 따라 팀의 인원엔 편차가 커질 수 있다. 자유롭게 토의 주제를 고르는 것이 토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교사가 적절히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이동 여부나 팀의 논의 진행 정도를 파악하며 개입할 필요가 있다.

4 활동지

교과서 227~235쪽

오픈 스페이스 토의

읽어 읽고 이야기 나누며 전통극의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3단원 (3) 극 갈래

학년 반 이름:

- 교과서에 제시된 「통영 오광대」의 제2과장 ‘풍자탈’(228쪽)과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 말뚝이춤’(234쪽)을 읽어 읽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 오픈 스페이스 토의란?

넓은 공간에서 많은 학습자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논제를 도출하고 의견을 생성, 공유할 수 있는 토의 방법

■ 오픈 스페이스 토의 운영 방법

〈 논제 정하기 〉

- ① 큰 원 모양으로 모여 앉으세요.
- ② 선생님이 수업에서 논의하고 싶은 큰 주제를 제시합니다.
- ③ 큰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논의하고 싶은 작은 주제를 생각해 보고 자유롭게 종이에 적은 뒤, 원의 가운데 책상 위에 모아 봅시다.
- ④ 선생님과 함께 논제들을 살펴보고 각 세션과 팀에서 논의할 주제를 정리해 봅시다.

〈 세션 활동 〉

- ① 1세션에서 팀별로 논의할 소주제를 확인해 보고 의견을 나누고 싶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 ② 토의한 내용은 팀 내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이젤 패드에 기록하고 교실 벽에 게시합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고 싶거나,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해 보고 싶다면 그런 생각을 결과지에 그대로 담아 줍니다.
- ③ 선생님의 신호에 맞추어 2, 3세션 활동을 이어갑니다.

〈 개별 정리 활동 〉

- ① 모든 세션이 끝나면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은 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교실 전체를 둘러봅시다.
- ② 벽에 붙어 있는 결과물을 두루 살펴보고 다양한 활동을 해 봅시다. 포스트잇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결과물에 붙이거나 친구들이 구성한 투표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친구들의 논의 결과에 대해 발전적인 방향을 건의해 봅시다.

〈 전체 정리 활동 〉

- ① 다시 큰 원으로 모입니다.
- ② 우리가 논의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③ 오늘의 토의 활동의 결과와 의미에 대해 정리합니다.

오픈 스페이스 토의 논제 예시

토의 주제					
구분	1팀	2팀	3팀	4팀	5팀
1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전통극의 특징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2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말뚝이라는 인물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3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전통극의 의의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공유 및 정리 활동					

○ 제시된 영상⁽²³⁾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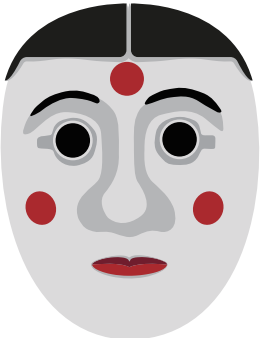


1 미국 캘리포니아주 구글 신사옥의 공간을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공간의 특징	• •
자유롭고 개방적인 토의·토론의 중요성	• •

2 다음 자료는 「봉산 탈춤」에서 사용된 탈의 사진이다. 탈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인물의 특성을 써 보자.

		
취발이	미알할미	소무
• • •	• • •	• • •

3 「봉산 탈춤」 제7과장의 줄거리를 읽어 보고 ‘미알춤’의 주제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항해도 봉산군에 전승되던 탈춤인 봉산 탈춤은 크게 7과장으로 구분된다. 1과장 사상좌춤(四上佐舞), 2과장 팔목중춤(八目僧舞), 3과장 사당춤(社堂舞), 4과장 노장춤(신장수 놀음·취발이놀음 포함), 5과장 사자춤, 6과장 양반 말뚝이춤, 7과장 미알춤 등으로 구성된다. 미알춤 마당은 영감과 미알할멈, 영감의 첩인 덜머니집과의 삼각관계를 그리고 있다. 서로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영감에게 맞아 죽은 미알할멈의 원혼을 달래는 무당굿으로 끝맺는다.



4 심윤경의 소설 『위대한 그의 빛』과 관련한 읽기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읽기 자료 (24)

작품의 줄거리

황금만능주의가 만연했던 1920년대 미국 재즈 시대를 다룬 소설 『위대한 개츠비(F. 스콧 피츠제럴드)』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심윤경 작가의 소설 『위대한 그의 빛』은 2020년대 대한민국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성수동 초고층 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한강 너머 압구정동 아파트의 초록 불빛을 바라보는 40대 후반의 ‘제이 강(강재웅)’은 바이오 스타트업과 가상화폐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이다. 나는 제이 강이 접근하는 것을 나에게 대한 관심이라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곧 그의 정체와 목적에 대해 알게 된다. 그는 대학 시절 사랑했던 ‘유연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막대한 부를 쌓았으며 그녀의 집이 바라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에서 매일 밤 파티를 열면서 지낸다. 자본주의의 승리자인 그를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드는 것이다. 제이 강은 대학에서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나(이규아)’를 통해 유부녀인 연지를 다시 만나고자 한다. 연지와 내가 사촌지간이고 각별한 친구였던 탓이다.

이 소설은 제이 강과 유연지라는 인물의 관찰자 역할을 하는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며 불가능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거침없이 질주하는 상류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전 『위대한 개츠비』가 남성 관찰자인 ‘닉’의 시선으로 ‘개츠비’라는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심윤경의 소설은 여성 관찰자인 내가 위대한 그(제이 강)의 ‘빛’인 여성, 유연지가 가진 빛과 삶의 서사를 들려준다.

가 이광채(유연지의 남편, 나의 대학 동기)에게 이끌려 호사들이 모이는 쉼 호텔의 파티에 참석한 나

나에게는 오래된 춤새들이 있었다.

“춤을 잘 추시네요. 동작이 아름다워요.”

와키자나의 아내가 서툰 한국어로 나를 칭찬했다.

“고마워요. 미알할미의 궁둥이춤이에요.”

“한국의 전통 스텝이군요! 무용가이신가요?”

“아뇨. 그냥 대학 때 동아리에서 조금.”

난간아마에 주게탁, 웅게눈에 개발코, 머리털은 다 모즈러진 빗자루 같고 쌍통은 깨진 바가지 같고 한 손엔 부채 들고 또 한 손엔 방울 들고 키는 석자 세 치 되는 미알할미는 힘차게 엉덩이를 내두르면서 걷는다. 기억의 암막을 뚫고 오래된 아니리가 어렵지 않게 술술 흘러나왔다. 그 기세 좋은 할미의 걸음으로 나는 꽤 인기를 끌었다.

나 대학 시절 탈춤 동아리에서 춤을 추던 재웅(제이 강)을 회상하는 나

전통춤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고 힘든 봉산 탈춤에서, 날아갈 듯 너울너울 뛰어오르는 취발이의 깨끼춤은 재웅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귀를 가지를 든 취발이가 소무를 유혹하기 위해 엽전 꾸러미를 툭 던질 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여자들은 내심 설레었다.

다 전나의 휴학을 말리기 위해 학교로 찾아온 연지는 탈춤 동아리 공연의 뒤풀이에 참석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재웅을 만나게 된다. 그 만남 이후, 연지와 재웅은 연인이 된다.

연지에게 가장 적극적이었던 한 선배가 꿩과리로 자진모리장단을 감아쳤다. 연지는 난처하게 웃으면서도 꽤나 맵시 있게 선배가 보여 주는 발걸음을 따라 했다.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덜머리댁의 아장걸음으로 연지는 술집으로 들어갔다. (중략) 나는 그날부터 덜머리댁의 아장걸음이 인간이 운명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 연지와 제이 강의 부적절한 관계가 모두 밝혀지고, 갈등을 겪던 유연지와 나, 제이 강과 이광채는 에클타워의 파티에 참석했다. 이 파티 이후 이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온다.

나는 낡은 나일론 털몽치를 뒤집어쓴 앞사자였다. 오래전 그때는 등뒤에 같은 털몽치 사자 가죽 안에서 허리를 더 깊이 굽힌 뒷사자 재웅이 있었다. 나는 몸이 날래고 균형을 잘 잡아서 뒷사자의 어깨에 올라서는 앞사자를 맡곤 했다. 내 몸뚱이만큼 커다란 사자의 가면을 들고 도리도리, 가웃가웃, 혀를 날름날름, 앞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며 사자의 표정과 마음을 잘 표현해야 한다.

“이놈 사자야, 네가 내려온 심지를 좀 알아보자. 우리 목중들이 선경에서 도를 닦는 노승을 띄어 파계시킨 줄로 알고 석가여래의 영을 받아 우리들을 벌주려고 내려왔느냐? 그러면 우리 목중들을 다 잡아먹을라느냐?”

사자가 드디어 꺼떡꺼떡, 아주 힘차게, 백번 그렇다는 뜻이다. 그리고 마부를 잡아먹으려 번쩍 고개를 든다. (중략)

“아이쿠, 이거 큰일났구나. 사자야, 말 좀 들어 봐라.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진심으로 회개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 부처님의 제자가 될 터이니 그러면 용서하여 주겠느냐?”

이런이런, 속없이 겨우 이 정도 회유에 귀를 기울이고, 앞사자는 뒷사자의 어깨에서 풀쩍 내려온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노라고. 고개를 꺾적꺾적, 앞발 뒷발을 휘적휘적, 도드리에 타령에 굿거리까지, 한바탕을 추어 인간 세계의 회개를 칭찬한다. 우리는 그때, 봉산 탈춤의 사자 과장을 연습하면서 이 부분에 늘 불만이 많았다. 우리는 사자가 이렇게 쉽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쉽게 봐주지 않았다고요,”

어릴 때 가산 오광대를 추며 자란 재웅이 말했다.

“아무리 발뺌을 해도 잡아먹고 말았지.”

봉산은 황해도, 가산은 경남의 진주 인근이다. 가산 오광대의 영노는 봉산 탈춤의 사자보다 매섭고 가차 없다. 가산의 양반은 영노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발뺌한다. 하지만 가산의 영노는 가차 없이 잡아먹고 만다. 우리는 봉산보다 가산의 결론을 선호했다. 그래, 그쪽이 후련하고 깨끗해. 나는 사자가 아니라 영노가 되기로 마음먹고 아가리를 크게 벌려 마부를 뿜친다.

마 ⁽²⁵⁾ 제4과장은 ‘노장춤’으로, 제1경 ‘노장춤’과 제2경 ‘신장수춤’, 제3경 ‘취발이춤’으로 나누어진다. ‘노장춤’은 생불(生佛)이라는 칭송을 받던 노장이 소무에게 유혹되어 파계하는 대목으로, 파계승에 대한 풍자를 보여 준다.

‘취발이춤’은 취발이가 노장과 대결하여 노장을 물리치고 소무와 사랑을 나눈 뒤 아이를 얻고서 자문자답으로 아이를 어르고 글을 가르치고 신세타령을 하는 내용이다. 노장과 취발이의 대결은 늙음과 젊음, 겨울과 여름의 대결로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취발이가 소무에게 하는 모의적인 성행위와 출산은 풍요 제의적(豐饒祭儀的) 성격을 띠고 있다.

제5과장은 ‘사자춤’으로 파계승들을 벌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보낸 사자가 내려와 목중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목중들이 회개하겠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고 함께 춤을 춘다.

(1) 읽기 자료에 나타난 인물과 탈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제시문	등장인물	탈춤에서의 역할	인물과 탈춤을 연결한 이유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가)	이규애(나)		
(나)	제이 강		
(다)	유연지		

(2) 제시문 (라)를 읽고 작품과 탈춤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구분	영노	사자
잡아먹으려고 하는 대상		
‘영노’와 ‘사자’의 공통점		
‘영노’와 ‘사자’의 차이점		

(3) 심윤경 작가가 소설 집필 과정에서 ‘탈춤’을 활용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오픈 스페이스 토의

토의 주제					
구분	1팀	2팀	3팀	4팀	5팀
1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2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3세션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논의 주제
주제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논의 내용
공유 및 정리 활동					

 배움 확인 질문을 읽고 수업 일기를 작성해 보자.

배움 확인 질문

- 전통극인 탈춤에서 ‘탈’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 「통영 오광대」, 「봉산 탈춤」, 「위대한 그의 빛」, 세 작품에서 탈춤이라는 소재를 통해 비판하고 싶어 한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 세상을 징벌하는 사자(통영 오광대에서는 영노)는 탈춤을 공연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투영된 존재인가요?

「원고지」(이근삼)



교과서 연계 단원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3) 극 갈래

작품 2 「원고지」(이근삼)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연극의 스토리보드를 창작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다라트를 이용한 토의·토론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 극 갈래의 형식적 특징이 사고와 표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단막극을 스토리보드로 작성하도록 한 것은 극 갈래의 형식적 특성의 제약을 줄이고 풍자와 위트라는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창작 활동 과정에서 온라인 협업 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모두가 창작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극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극 갈래의 요소를 전위적으로 연출한 부조리극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전통극과 현대 부조리극이 가지는 공통점을 느끼며 한국 문학의 정서와 민중의 바람을 담은 문학의 역할에 대해 체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범위와 갈래, 변화 양상을 탐구한다. • 한국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교과서 연계	• 학습 활동 4번 - 부조리극의 특성에 대한 이해(246~247쪽)
준비 자료	• 읽기 자료 및 활동지 • 스토리보드 작성을 위한 큰 종이, 포스트잇 등 피드백 도구
토의·토론 방법	• 만다라트 토론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한 평론을 읽고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한 표현을 찾아보고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 주기 위하여 풍자와 해학이라는 건강한 표현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련 활동에 대해 안내한다.	• 학생들이 영화 자체나 기사로 많이 접했을 영화 「기생충」, 언론을 통해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할 영화평론가 이동진이 쓴 평론을 제재로 선정하였다.
전개 (40분)	▶ 만다라트 토론을 운영한다. • 비판하고 싶은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만다라트 토론의 방법을 설명하고, 모둠에서 선정한 대주제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보도록 한다. • 만다라트 토론에서 생성한 아이디어 중 단막극의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막극의 개요를 작성한다. ▶ 부조리극의 특징을 반영해 본다. • 교과서에서 학습한 부조리극의 특징을 살펴보고 단막극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다.	• 모둠별로 다양한 대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순회하며 모둠 대화를 관찰한다. • 만다라트의 모든 칸을 채우려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사고의 확장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한다. • 현대의 연극과 대조되는 부조리극의 특성을 떠올리며 실험적인 연출을 기획 활동에 반영하여 비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정리 (5분)	▶ 부조리극의 표현상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활동의 의의에 대해 설명한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장애인 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만평을 제시하고 그림의 의미와 인상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드라마의 주인공인 '우영우'는 화제가 되고 큰 사랑과 이해를 받지만, 실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인기 드라마와 현실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나타낸 것에 주목한다.
전개 (40분)	▶ 단막극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 스토리보드의 개념을 설명하고 단막극의 흐름을 모둠별로 표현해 보도록 지도한다. ▶ 활동 내용을 공유한다. • 스토리보드에 작성한 내용을 학급 친구들과 공유한다. • 다른 모둠의 결과물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에는 PMI 토의·토론 기법을 활용하여 Plus(장점), Minus(단점), Interesting(창의적 대안, 흥미로운 점)이 포함되도록 안내한다. • 친구들의 평가를 읽고 단막극의 내용과 설정에서 보완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수정한다.	• 오프라인을 활용한 공유 활동: 협동 학습의 '돌 가고 돌 남기', '전시장 관람 모형' 등을 활용하여 관람하고 포스트잇으로 개인의 의견을 남김 • 온라인을 활용한 공유 활동: 패들렛, 퀴즈앤 등 온라인 보드에 모둠의 결과물을 업로드하고 다른 모둠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모둠의 작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거나 개인의 반응을 남길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을 원작자와 다른 학습자도 관찰할 수 있다.

		• 스토리보드 작성을 일부 학생이 독점하지 않도록 완성도 높은 그림이 필요하지 않은, 협동 활동의 일부임을 강조한다.
정리 (5분)	▶ 활동을 정리한다. • 수업 성찰일기를 작성하며 수업의 목적과 성취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본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만다라트(연꽃기법) 토론이란?⁽²⁶⁾

- 만다라트는 ‘목적에 달성하다’, ‘목적에 달성하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하나의 발상과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위 주제로 확장해 가는 토론 방법이다.
- 아이디어가 방사형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사고의 확장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가 가지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균형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2) 만다라트 활동 예시⁽²⁷⁾



4 활동지

교과서 237~248쪽

만다라트 토론

부조리극의 특징을 활용한 사회 풍자 단막극 창작

3단원 (3) 극 갈래

학년 반 이름:

- 2019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대한 평론⁽²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그러니까 상층과 하층, 두 계급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던 민음의 벨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기생충」에서 정말로 불공평한 것은 바로 소통이다. 무전기까지 동원해가며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동익 가족과 달리, 기택 가족은 무임승차로 쓰던 와이파이가 끊기면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와이파이 신호를 보다 더 잘 잡으려면, 휴대폰을 높게 들어야 한다는 기택의 말처럼 높이 올라가야 소통할 수 있다. 기택 가족은 동익의 저택에 한 명씩 차례로 진입한 후 멋진 계단 위로 높이 올라가는 계급 상승의 환상에 사로잡힌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올라가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음으로써 소통에 성공한 곳은 보잘것없는 계단에 이어져 있는 반지하 화장실 변기가 고작이었다. 폭우가 쏟아지자 그 변기마저 역류한다. 실내로 역류하는 오수를 피하면서 기정이 자신의 집에서 가장 지상에 가까운 높은 곳인 변기 뚜껑에 올라앉아 천장에 숨겨 둔 담배를 꺼내 피우는 대목은 이 영화에서 가장 처연한 장면일 것이다.

그래도 예의와 배려, 활력과 기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처럼 보였던 세상은 로버트 알트먼적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폭우 이후에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폭우가 내린 다음 날, 연교는 아들의 생일파티에 초대할 손님에게 “비가 엄청 와서 미세 먼지 제로예요. 비 안 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라고 말한다. 하지만 고지대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파티를 최적의 환경에서 열도록 만들어 주었던 비는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서 저지대 사람들에겐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잠시 기분을 내기 위해 마당에 설치한 다송이의 미제 텐트는 비 한 방울 새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고단한 몸을 누여야 할 서민 주택가에서는 비만 오면 난리가 난다. 폭우 속에서 동익과 연교는 모처럼 기분을 내며 짜릿한 밤을 즐기지만, 기택 가족은 체육관에 수용되어 고단한 밤을 지새운다. 위에서는 물이 씻어 내려 깨끗한 환경을 만들지만, 아래에서는 물이 한데 고여 온갖 오물과 뒤섞인다. (중략)

두 집이 들어선 위치에서부터 등장인물들의 동선까지, 높낮이 설정과 상승 하강의 이동 방향으로 명징하게 짜여 있는 「기생충」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은 곧 소통의 방향과도 일치한다. 이 영화에서 이야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다송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일에서 짜파구리를 급하게 끓여 내는 일까지,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내리는 업무 관련 지시뿐만이 아니다. (중략)

봉준호의 영화들에는 카타르시스가 없다. 거기에 희망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햇불이 아니라 불씨로서 간신히 존재한다. 탁월하게 연출된 그의 작품들을 보고 나서 번져 오는 무력감의 진짜 이유는 싸움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싸움의 구도이다. 봉준호는 그 무력감이 지배하는 그라운드 제로의 폐허에서 다시금 이 세계의 모순에 대해 치열하게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는 회의론자다.

1 읽기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고 '상층'과 '하층'으로 나누어 보자.

	상층	하층	그렇게 나눈 이유
동익	○		
기택			
기정			
연교			
다송			

2 영화의 소재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소재가 상징하는 것
고지대의 대저택	
저지대 사람들, 반지하	
멋진 계단	
보잘것없는 계단	

3 영화 「기생충」을 통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써 보자.

ccc

모둠별로 사회 문제에 대해 풍자하는 단막극을 구상해 보자.

1 우리 모듬이 주제로 삼을 사회 문제와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써 보자.



주제와 선정 이유

2 만다라트 토론을 통해 사회 문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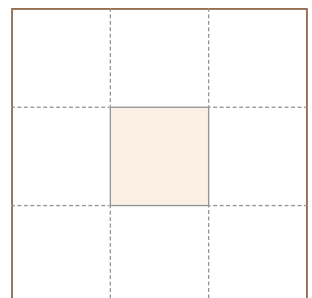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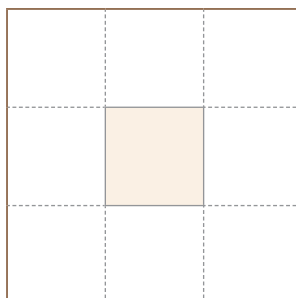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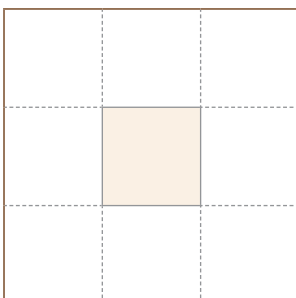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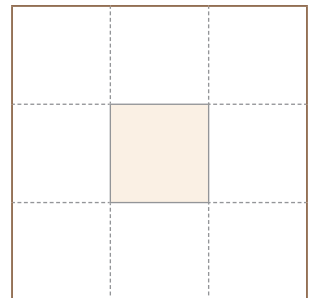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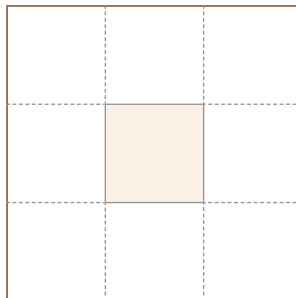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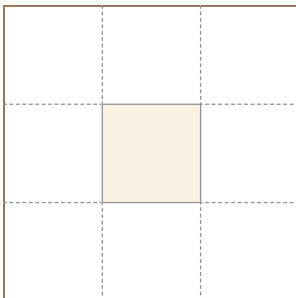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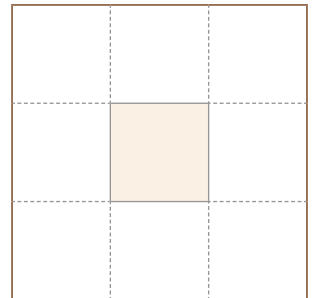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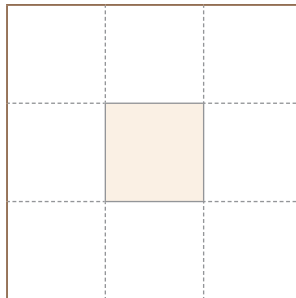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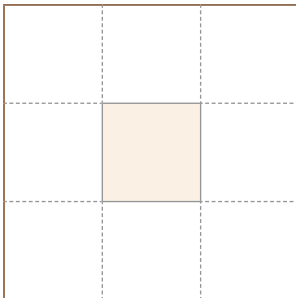
■ 만다라트 토론이란?

방사형으로 확장하는 활동지를 채우며 사고를 확장시키는 기법으로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하는 토론 방법

■ 만다라트 토론 방법

- ① 활동지의 중앙에 모듬이 생각한 주제(사회 문제)를 적습니다.
- ② 주제어를 둘러싼 8개 칸에 하위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여 적습니다.
- ③ 8개의 하위 주제를 주변의 만다라트 중심에 넣습니다.
- ④ 8개의 요소가 다시 하위 만다라트의 중심이 되어 ②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 ⑤ 64개에 이르는 요소들에서 우리 모듬의 단막극에 사용할 아이디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만다라트 토론 활동지



3 단막극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배경	시간	공간
등장인물과 특징	• • • • •	
중심 사건	• • • • •	

4 교과서에서 학습한 부조리극의 특징을 반영하여 세태를 풍자하고 희화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자.

	부조리극의 실험적 특성	단막극에 사용할 아이디어
극의 구조	• 기승전결의 플롯 개념이 없음. • 장면이 기계적으로 반복됨. • 현실과 환상이 중첩되는 시적인 이미지를 활용함.	• •
등장인물의 특징	•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가진 개성적 인물이 아니라 기계적인 모습으로 그려짐. • 무대 위의 등장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맡기도 함.	• •
대사의 성격	• 의미가 휘발된 상투적인 어구를 사용함. • 무의미한 대사와 비슷한 행동을 되풀이함. • 극도의 압축 및 생략이 일어남. • 대사와 행동이 모순됨.	• •
무대 장치와 소도구	• 극도로 간소화되어 하나의 상징으로 기능함.	• •

● 다음의 만평을 보고 표현 방법과 의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비판하고자 하는 것	
표현 방법	

●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단막극의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자.

‘스토리보드’란?: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구성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영화나 드라마, 광고를 제작할 때 연출자의 생각이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 주기 위해 스토리보드를 제작합니다.



제목:

①

장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스토리보드를 공유하고 학급 친구들이 들려 준 의견을 정리하여 써 보자.

Plus 장점	• •	• •
Minus 단점	• •	• •
	↓ 그래서, 어떻게 보완할까?	
Interesting 흥미로운 점	• •	• •

● 배움 확인 질문을 읽고 수업 일기를 작성해 보자.

배움 확인 질문

- 풍자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 모둠에서 계획한 단막극에서는 부조리극의 어떤 특성을 활용했나요?
- 그 표현은 주제를 표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전통극인 탈춤과 부조리극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비경쟁 토론, 모둠 상호 평가

「주몽설」(권근)



교과서 연계 단위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흐름 (4) 교술 갈래

작품 「주몽설」(권근)

1 활동 개관

이 활동은 고전 수필 「주몽설」의 내용과 개인적 경험을 연결하며 감상하고 수필을 창작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고전 수필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며 시작하여, 현대 사회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풍랑'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돛단배'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토론한다. 이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경험과 깨달음을 담은 현대 수필을 작성하며, 이를 동료들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과 자기 평가를 하게 된다.

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넓고 깊게 성찰해 보고, 의미 있는 소재를 선정하여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작고 사소한 경험이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온 경험을 떠올려보도록 안내한다. 둘째, 모둠 상호 평가 활동에서는 친구들의 글을 분석적으로 읽고 조언하도록 하되, 친구와 글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지도한다. 글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의미 있는 상호 평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은 왜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스스로 정리하여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학생들은 「주몽설」의 작가가 창작한 것과 비슷한 창작의 과정을 겪으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왜 교술 장르가 창작되고 향유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고, 고전과 현대 문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성찰 역량을, 경험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면서 정보 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2 활동 지도안

학습 목표	• 문학의 다양한 형식에 대해 이해한다. •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교과서 연계	• 교과서 251~256쪽
준비 자료	• 활동지
토의·토론 방법	• 비경쟁 토론, 모둠 상호 평가

1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주몽설」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회상한다. • 풍랑과 돛단배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며 발문한다. •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풍랑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헤쳐 나갈 방법, 여러분의 돛단배는 무엇일까요?” ▶ 활동의 목표를 안내한다. • 4명으로 모둠을 구성하고 자리 배치를 확인한다. • 고전 수필인 주몽설의 내용을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후, 그 내용을 다시 현대 수필로 창작해 보는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한다. • 활동을 통해서, 일상의 경험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교술 갈래, 그중 수필 갈래가 우리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왔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한다.	• 지난 시간에 「주몽설」을 읽고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한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 학생들이 풍랑과 돛단배의 상징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거나 단계적으로 발문한다.
전개 (40분)	▶ 비경쟁 토론으로 「주몽설」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한다. • 활동지에 제시된 질문에 따라 「주몽설」 속의 풍랑과 돛단배의 의미, 글쓰기가 깨달은 내용을 토론한다. • 자신이 경험한 풍랑과 거기서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토론한다. • 비경쟁 토론이 끝나면 활동지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한다. ▶ 내가 경험한 풍랑과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 활동지의 예시1과 예시2를 읽어 본다. • 예시를 참고하며 내가 경험한 풍랑과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기록한다. ▶ 「무소유」를 참고하여 내가 창작할 수필의 개요를 작성한다. • 법정 「무소유」를 읽고, 현대 수필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표현하는지 확인하고, 「무소유」의 내용을 활동지에 정리한다. • 「무소유」의 개요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자신이 창작할 수필의 개요를 작성한다.	• 토론을 시작할 때 경청, 호응, 차이점에 대한 인정, 구체적으로 말하기 등의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안내한다. • 경험을 떠올리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 예시를 제공한다. • 그룹 활동에서 특정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조율한다. • 「무소유」의 개요 예시 자료는 실제로 법정이 쓴 것이 아니라 썼을 것으로 예측하여 작성한 자료임을 안내한다.
정리 (5분)	▶ 오늘 활동을 요약하고 다음 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필을 창작하고 모둠 내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을 것임을 안내한다.	•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학생과 모둠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한다. • 다음 활동의 기대감을 높인다.

2차시

단계	교수·학습 활동과 방법	지도상 유의점
도입 (5분)	▶ 이전 차시 활동을 회상한다. • 지난 시간의 활동에 대해 질문하며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떠올리게 한다. • 지난 시간에 자신이 작성했던 활동지의 내용(경험, 깨달음, 개요 등)을 확인하게 한다. ▶ 오늘 할 활동을 안내한다. • 수필을 실제로 작성하고, 모둠 피드백을 하고 발표할 것을 안내한다.	• 학생들이 이전 차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돕는다.
전개 (40분)	▶ 현대 수필을 창작해 본다. • 지난 시간에 작성한 개요와 「무소유」(법정)를 참고하여 현대 수필을 창작한다. ▶ 브레인 라이팅 방식의 상호 피드백을 진행한다. • 자신이 작성한 수필과 자신의 상호 평가지를 함께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린다. • 왼쪽의 학생으로부터 수필과 상호 평가지를 받는다. 수필을 읽고 수필에 대한 상호 평가지를 작성한다. • 다 하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돌린다. • 다 돌고 자신의 수필과 상호 평가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면, 모둠원들이 자신의 수필에 대해서 피드백한 내용을 보며 자기 평가를 한다. ▶ 발표를 진행한다. • 모든 반이 공유했으면 하는 작품을 모둠에서 한 작품씩 뽑도록 한다. • 모둠별로 발표하되, 수업 시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 창작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은 모둠 내에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모둠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한다. • 친구에게 상호 평가를 할 때에는 친구의 작품을 존중하며, 친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정리 (5분)	▶ 수업을 마무리하며 토의를 진행한다. • 인간이 자신의 일상의 경험과 그 깨달음을 왜 나누고 싶어 하는지 질문한다. •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면 나와 타인에게 무엇이 좋은지 질문한다. • 고전 수필에서 현대 수필로 이어져 오는 동안, 표현 방식과 구성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경험과 깨달음을 표현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는 조선 시대와 지금이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학생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긍정적 피드백을 제 공한다. • 수필이 지닌 보편성과 의미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3 토의·토론 방법 소개

(1) 모둠 상호 평가란?

- 모둠 상호 평가는 모둠 내에서 각자 자신의 활동 결과물과 이에 대한 상호 평가지 2가지를 함께 옆으로 돌리면서 상호 평가를 하게 하고, 모든 모둠원의 상호 평가를 거친 후, 상호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자기 평가를 하게 하는 학습 활동이다.
- 4명이 1모둠인 경우, 모든 모둠원이 오른쪽으로 활동지를 돌리면 3번의 상호 평가 후 자기 자신의 결과물과 상호 평가지가 돌아오게 된다. 다른 모둠원들이 자신의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하고, 자기 평가를 실시한다.
- 모둠 상호 평가에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적용하여 더 풍성한 피드백 내용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브레인 라이팅은 공동으로 다양한 생각을 발산하고 공유하는 창의적인 사고 기법이다. 방식은 다양하나, 보통 종이에 주제를 적고 모둠원들이 종이를 돌려가며 종이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생각을 적는다. 사람을 거칠수록 종이에 적힌 아이디어들은 풍부해지고 모둠원들에게 공유된다. 이 브레인 라이팅 방식을 모둠 상호 평가에 적용할 경우, 상호 평가지에 앞 사람이 썼던 피드백은 제외하고 새로운 피드백을 적어야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비평 용어와 서로 다른 장단점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2) 진행 방법

단계	진행 방법
① 준비 단계	• 자신의 글과 글에 대한 상호 평가지를 준비한다.
② 상호 평가	• 자신의 글과 글에 대한 상호 평가지를 오른쪽의 모둠원에게 넘긴다. • 왼쪽에 앉은 모둠원의 글과 상호 평가지를 받아서 글을 읽고 상호 평가한다. • 다 하면 오른쪽으로 글과 상호 평가지를 넘기고, 다시 왼쪽의 모둠원으로부터 글과 상호 평가지를 받는다. • 과정을 3번 반복하며 모든 모둠원들의 글에 대해서 상호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③ 자기 평가	• 자신의 글과 상호 평가지가 모둠원들에게 모두 평가를 받고 자신에게 돌아오면, 모둠원들이 자신에게 제시한 상호 평가 내용을 읽어보고, 이 내용을 종합해 본다. • 모둠원들의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자기 평가를 한다.
활동 도움말	• 상호 평가를 하기 전에 모범문 또는 학생의 예시 글에 대해서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이 함께 평가해 보면 학생들이 평가 기준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4 활동지

교과서 251~256쪽

비경쟁 토론 모둠 상호 평가

가치 있는 경험은 민들레 씨앗처럼 널리 널리

3단원 (4) 교술 갈래

학년

반 이름:

- 고전 수필 「주몽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하며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성찰해 보자.

■ 토론 과정 안내

- ① 모둠원들이 추천(모둠장으로 적절한 사람을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지명하기)해서 1명을 선정한다.
- ② 모듬장은 아래의 질문을 한 가지씩 모듬원에게 제시하고, 모듬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 ③ 궁금한 점이나 더 이야기해 보고 싶은 추가 질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제시한다.
- ④ 모든 질문에 대해서 토론한 후에, 아래 빈칸에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

1 「주몽설」에서 풍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주몽설에서 뚝단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주몽설에서 주몽과 만난 경험을 통해 작가가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4 내가 경험한 풍량에는 무엇이 있을까?

5 내가 경험한 풍량 속에서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가?

● 내가 경험한 풍랑과 깨달음에 대해서 예시와 같이 정리해 보자.

순	경험한 풍랑	풍랑 속 깨달음
예시 1	[개인적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적으로 얻는 보상을 생각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지,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보상이 주어지는 것으로 할지 고민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타인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두렵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일은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는 중이다.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찾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해서 원하는 진로를 찾기에는 시간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 원하는 것이 바뀌어 왔고, 지금도 바뀌고 있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라면, 그냥 현재의 나를 믿어 보기로 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해 보고, 원하는 길을 가 봤을 때 또 새롭게 보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예시 2	[사회적 변화] 미래 사회가 빠르게 변한다고 한다. 인공 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인공 지능과 로봇이 대체할까 두렵다.	걱정만 한다고 미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간호사 직업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간호사를 인공 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지 찾아봤다. 인공 지능과 로봇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는 대체할 수 있지만, 정서적 돌봄과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간호사에게는 이제 AI, 로봇과 협력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알게 되고 나니,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명확하게 보였다. 간호사에게 필요한 AI나 로봇과의 협업 능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었다. 막연히 걱정을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것을 찾아보면 나에게 새로운 활력과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자신이 생각한 내 삶의 풍량과 깨달음을 「무소유」⁽²⁹⁾을 참고하여 현대 수필로 작성해 보자.

1 「무소유」 발췌 부분을 읽고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허노사(耘虛老師)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 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 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 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 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길을 떠나지 못한 채 꿈쩍을 못했다. 밖에 불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조금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 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흥가분한 해방감. 삼 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有情)’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흥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無所有)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글쓴이의 경험은?

.....

.....

.....

.....

.....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은?

.....

.....

.....

.....

.....

.....

2 「무소유」를 쓰기 전에 작성했을 법한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이 개요를 참고하여 내가 쓸 현대 수필의 개요를 작성해 보자.

「무소유」 개요 예시

봉선사로 가던 길

- 배경: 장마가 갠 날, 봉선사로 가던 길

난초에 대한 집착

- 사건: 햇볕에 난초가 시들까 염려됨. 난초 잎이 축 늘어져 있는 모습 발견
- 행동: 샘물로 살리고자 애씀. → 여전히 생기가 부족함.

집착이 괴로운 것을 깨달음.

- 난초에 너무 얽매이는 생활을 함.
- 일상 속에서 큰 집착을 하고 있었음.

소유와 집착에서 해방됨.

- 해결: 난초를 친구에게 줌.
- 깨달음: 소유에서 해방 → 홀가분함, 자유로움
- ‘유정’이 떠난 후에도 허전함보다는 해방감을 느낌. 난초를 통해 무소유의 의미를 배우게 됨.
- 다짐: 하루에 하나씩 내려놓겠다는 마음



내가 쓸 수필의 개요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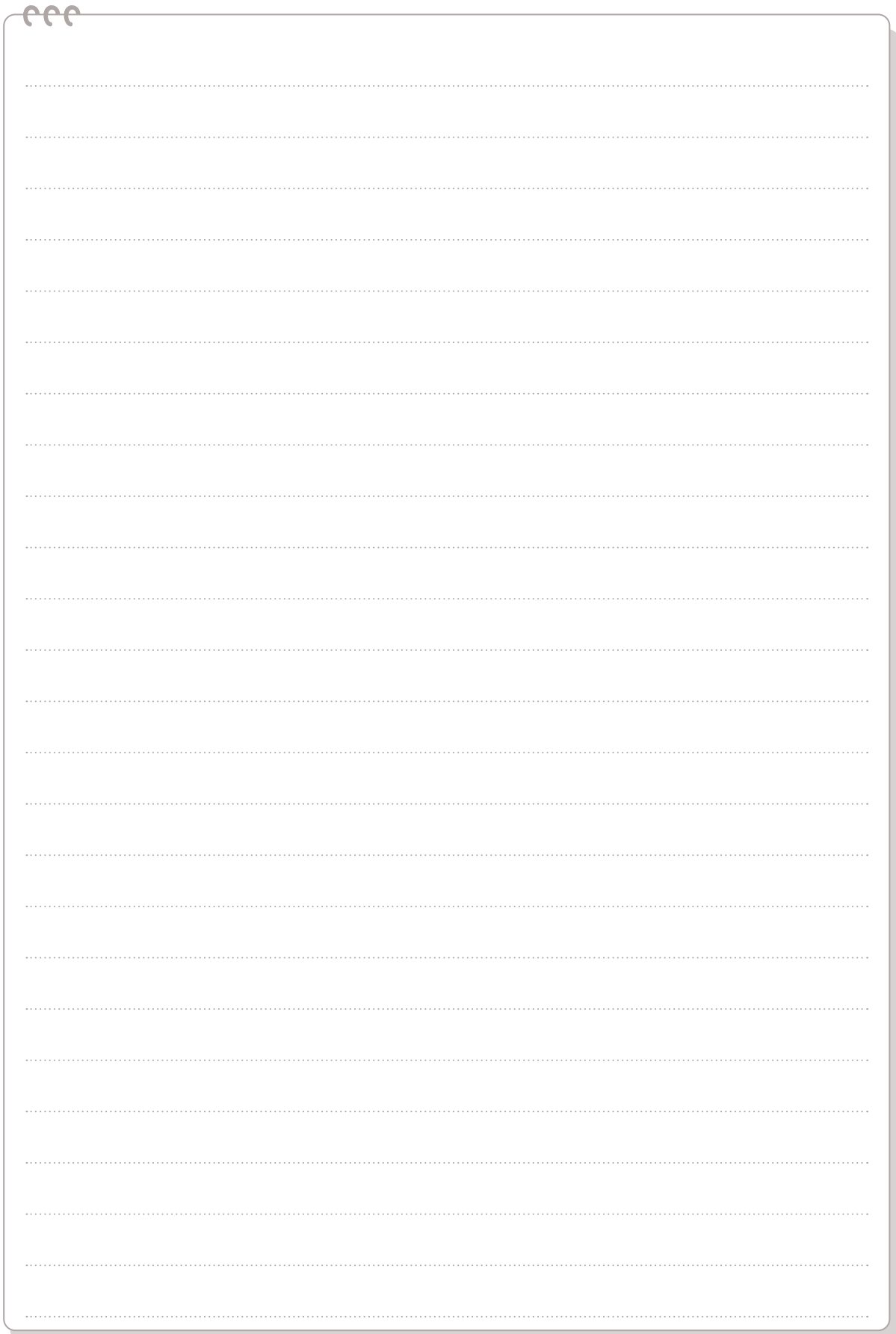
.....

.....

.....

.....

3 개요를 바탕으로 수필을 써 보자.



● 브레인 라이팅 방식으로 옆으로 돌아가며 상호 평가와 자기 평가를 해 보자.

평가 대상자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기준				점수				
수필 결과물	글쓰기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해하기 쉬운가?(관련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전개)				5 / 4 / 3 / 2 / 1				
	그 경험에서 느낀 점, 배운 점(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 설득력 있게 서술되었는가?				5 / 4 / 3 / 2 / 1				
	글 전체의 구성과 문단의 구분이 적절한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기준				점수				
수필 결과물	글쓰기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해하기 쉬운가?(관련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전개)				5 / 4 / 3 / 2 / 1				
	그 경험에서 느낀 점, 배운 점(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 설득력 있게 서술되었는가?				5 / 4 / 3 / 2 / 1				
	글 전체의 구성과 문단의 구분이 적절한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평가자	학년	반	이름:	매우 그렇다(5) / 그렇다(4) / 보통(3) / 그렇지 않다(2) / 매우 그렇지 않다(1)				
구분	기준			점수				
수필 결과물	글쓰이의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이해하기 쉬운가?(관련 인물,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전개)			5 / 4 / 3 / 2 / 1				
	그 경험에서 느낀 점, 배운 점(또는 새롭게 알게 된 점,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 설득력 있게 서술되었는가?			5 / 4 / 3 / 2 / 1				
	글 전체의 구성과 문단의 구분이 적절한가?			5 / 4 / 3 / 2 / 1				
			점수 합계					
서술 평가 (구체적, 자세히)								

● 고전 수필과 현대 수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수필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1]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
- [2] OECD,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2019, 김중윤 역, 2020.
- [3] 이상우, 『협동 학습으로 토의·토론 수업 완전 정복』, 피앤씨미디어, 2022.
- [4] 거트 비에스타, 『교육의 아름다운 위험』, 교육과학사, 2024.
- [5] 이해진, 「논쟁 수업을 위한 소크라틱 세미나 실천 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74호, 2022.
- [6] 이상우, 『협동학습으로 토의·토론 수업 완전 정복』, 피앤씨미디어, 2022.
- [7] 4·16재단, 『월간 십육일』, 사계절, 2024, 62~66쪽.
- [8]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480~481쪽.
- [9] 장경원, 이병량 공저, 『토의와 토론으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8, 108~110쪽.
- [10] 정재찬, 『시를 읽은 그대에게』, 휴머니스트, 2015, 111~112쪽, 115~116쪽.
- [11] 송승훈, 「2021 고등학생 추천 시집 목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intertree91>
- [12] 한강 수상 소감 “문학은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 SBS 뉴스, 2024.12.11. (http://www.youtube.com/watch?v=fdh_4zzZ_Nk&t=272s)
- [13] 김중혁, 「무용지물 박물관」, 『펍킨 뉴스』, 문학과 지성사, 2006, 17~18쪽, 33쪽, 38~38쪽.
- [14] 맹용재 외, 『18종 문학 교과서 종합 자습서 디딤돌 고전 문학』, 디딤돌, 2006.
- [15] 홍석경, 「『미나리』와 영화의 국적」, 『서울신문』, 2021.02.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1030008>)
- [16] 박주용, 『미래는 생성되지 않는다』, 동아사이, 2024, 64쪽
- [17] 배광호,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토론 수업 34차시』, 뜨인돌, 2017, 168~169쪽, 177쪽.
- [18] 어경선, 「우리'는 언제나 '나'보다 강하다」, 『내일신문』, 2015.10.30.
- [19] 배광호,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토론 수업 34차시』, 뜨인돌, 2017, 79쪽, 168~169쪽.
- [20] 전성수, 고현정 공저, 『질문이 있는 교실-중등편』, 경향BP, 2015, 99~100쪽
- [21] 장석주, 『삶에 시가 없다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포레스트북스, 2024, 47~51쪽.
- [22] 장경원, 이병량 공저, 『토의와 토론으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8, 120~123쪽.
- [23] 이영현, ‘구글, 9년 준비한 새 사옥 공개… 스타디움 외경에 친환경 에너지까지’, KBS 뉴스, 2022.11.28. (<http://youtu.be/66mH50RwCkY>)
- [24] 심윤경, 『위대한 그의 빛』, 문학동네, 2024.
- [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Article/E0023902>)
- [26] 장경원, 이병량 공저, 『토의와 토론으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8, 120~123쪽.
- [27] 『교과별 토의·토론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고등학교)』, 충청남도교육청.
- [28] 이동진, 『영화는 두 번 시작된다』, 위즈덤하우스, 2019, 23~45쪽.
- [29] 법정, 『스스로 행복하라』, 샘터사, 2020, 188~190쪽.

사진 출처

쪽	자료명	출처
157	베이뷰 캠퍼스_구글 신사옥	셔터스톡
157	봉산 탈춤(취발이, 미알할미, 소무)	게티이미지
171	다른 반응	전국장애인총연합회 페이스북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사나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